"주석사찰에서 다비의식을"
연화회 '사찰 다비' 생전접수
상담문의 010-4727-6065

현대불교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558호 HYUNBULNEWS.COM 2025년 12월 10일(음력 10월 21일) 수요일 / 불기 2569년

땅 파지 않고 유구 확인 폐사지 조사 새 장 열다

불교문화유산연구소·국립문화유산연구원 MOU

GPR 활용 지하 유구 조사 가능
국립유산硏, 관련 기술 첫 협약
조사 비용 및 기간 단축 효과
"사지 조사 신뢰도 상승" 기대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불교문화유산연구소장 혜공 스님(사진 오른쪽)과 임종덕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전국에 산재한 폐사지를 최신 기술로 조사 연구할 수 있게 됐다.

조계종 (재)불교문화유산연구소(소장 혜공 스님)와 국립문화유산연구원(원장 임종덕)은 12월 3일 조계종 중앙신도회관 3층 회의실에서 '전국 중요 폐사지 공동학술조사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폐사지는 불교문화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문화유산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상당수가 방치되거나 개발 위협에 놓여 있어 시급한 보존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불교문화유산연구소와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은 폐사지 조사·연구·보존·활용에 이르는 종합적 관리체계를 마련하기로 했으며 지난 9월부터 실무 협의를 시작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이번 협약에 큰 특징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지하물리탐사(GPR) 기술을 활용해 폐사지에 매장된 지하 유구를 비파괴 방식으로 조사하게 되는 점이다. GPR(Ground Penetrating Radar, 지하투과레이더)은 지하로 레이더파를 방출해 반사되는 파의 신호를 분석함으로써 지하 구조를 파악하는 비파괴 조사 기법으로, 최근 문화유산 조사에서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다.

박윤정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고고연구실장은 "전면 조사가 이뤄지기 전에 가람 전체의 배치 상황을 알게 되기 때문에 매장 유구들의 보존이 먼저 선행될 수 있다. 또한 조사의 효율성도 높아진다"면서 "지하물리탐사가 가장 잘 반응하는 매질이 바로 석재로 폐사지 조사에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술 개발을 위해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과 협약은 맺은 바 있지만 GPR기술 관련 문화유산연구단체와 협약을 맺은 것은 불교문화유산연구소가 처음"이라며 "폐사지 전문 조사 경험이 많은 불교문화유산연구소와 GPR기술은 최고의 시너지를 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임석규 불교문화유산연구소 학예연구실장은 "GPR기술은 개복 수술하기 전 엑스레이를 촬영하는 것과 같다. 넓은 범위에 분포된 폐사지의 유구를 미리 파악할 수 있어 발굴 조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불교문화유산연구소는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전국 폐사지에 대한 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불교문화유산 보호 역량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폐사지는 불교 역사와 수행 전통을 밝히는 중요한 연구 자산인 만큼, 조사 성과를 바탕으로 △아카이브 구축 △교육·체험형 콘텐츠 개발 △불교문화 향유 기회 확대 △지역과 연계한 활용 모델 발굴 등 다양한 연구·활용 방향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방침이다.

더불어 불교문화유산연구원과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은 향후 공동 학술대회 개최, 조사 성과물 발간, 전시와 교육 콘텐츠 개발 등을 통해 조사 성과를 폭넓게 공유하고 불교문화유산의 가치 제고에 기여하는 협력관계를 지속할 예정이다.

불교문화유산연구소장 혜공 스님은 "전국의 폐사지는 오랜 세월 우리 불교사와 지역 공동체의 기억을 품어온 소중한 터전"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지하물리탐사와 학술조사가 결합된 과학적 연구가 이뤄지게 된다면 그동안 눈에 보이지 않았던 사지의 역사와 가치가 한층 더 명확히 드러날 것"이라고 협약의 의미를 강조했다.

임종덕 국립문화유산연구소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각 기관의 장점인 지하물리탐사 기술과 연구경험 및 정보의 접목을 통해 폐사지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새롭게 조명함으로써 방치된 폐사지가 제도권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부처를 향해 나아가라"
행자들에게 흔들림 없는 정진을 당부했다.

12월 4일 전국 총림과 선원에서 일제히 동안거 결제 법회를 봉행하고 석 달 간의 정진에 들어갔다. 영축총림 통도사 설법전에서 봉행된 법회에서 조계종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는 법어를 통해 "내 부처를 찾는 길은 누구도 막지 못한다"고 강조하며 방부를 들인 수

글 · 사진=하성미 기자 〈총림 동안거 결제 법회 현장 4면〉

종지협 공동대표의장에 진우 스님 재선출

종지협, 12월 2일 임시이사회서
진우 스님 "종교 상호존중" 강조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사진〉이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제18대 공동대표의장(이사장)으로 재선출됐다. 제17대에 이은 것으로, 진우 스님은 2022년부터 공동대표의장을 맡고 있다.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는 12월 2일 서울 조계사 템플스테이관에서 '제3차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정했다. 이날 임시이사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고경환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나상호 원불교 교정원장, 최종수 성균관장, 박인준 천도교 교령, 이용훈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 김령하 한국민족종교협의회 회장 등 7대 종교 대표 모두 참석했다.



공동대표의장 진우 스님은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종교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종교 간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상생의 길을 열어나가겠다"고 뜻을 전했다.

한편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는 1997년 10월 종교 간 화합과 교류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다. 한국 사회를 대표하는 7개 종교 대표들이 참여하고 있다. 종교 간 상호존중을 기반으로 사회 통합과 공동선 실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열암곡 마애부처님, 실대형 모의실험서 30cm 양중 성공

12월 2일, 경주 시험장서
110톤 모형, 양중 시험 실시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부처님을 원형 훼손 없이 이동 및 입불하는 가능성을 검증하는 실대형 모의실험이 의미 있는 성과를 냈다.

고송문화재보존연구소는 12월 2일 경주 시내 설치된 시험장에서 '열암곡 마애불상 실대형 모의실험 연구' 양중(揚重, 들어올리기) 시험을 실시했다. 시험에서는 약 110톤 규모의 실대형 모형이 유압장치를 통해 약 30㎝ 가량 올려졌다.

이날 시험 현장에는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조계종 미래본부 사무총장 일감 스님과 총무원 문화부장 성원 스님, 임영애 동국대 교수가 실험 과정을 참관했다.

열암곡 마애불은 불상 상하부 공간이 극도로 협소해 전통적인 밧줄 설치 방식으로는 양중이 불가능한 구조를 갖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진은 불상 주변이 아닌 바깥쪽에 대형 프레임을 세우고 그 구조물에 유압 장치를 연결해 간접적으로 들어올리는 방식을 적용했다. 이번 실험의 핵심은 실대형 모형과 프레임 장비를 포함한 총 110톤을 '제자리에서 안전하게 들어올릴 수 있는가'가 목표였다. 시험은 목표한 높이까지 안정적으로 양중이 이뤄지며 성공적으로 종료됐다.

경주=하성미 기자

▶2면에 계속



실대형 양중 성공으로 입불 가능성 확인

1면에서 이어짐

경주=하성미 기자

'제자리서 올릴 수 있나' 관건
미래본부, 자문위원으로 참여
2026년 1월 보고서 발간 예정


외부 프레임과 유압 장치를 이용해 실대형 모형이 약 30cm 들어 올려졌다.


현장 연구진이 양중 장치를 확인하며 시험 데이터를 점검하고 있다. 이날 시험 현장에는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조계종 미래본부 사무총장 일감 스님 등이 참석했다.

양중 시험을 총괄한 최준현 고송문화재보존연구소 대표는 "열암곡 마애불상을 현장에서 입불하든 이동을 추진하든,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제자리에서 들어 올릴 수 있는가'라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은 이론으로 존재하던 방식을 실제로 구현해 본 데 의미가 있다. 앞으로 데이터 분석을 통해 구조적 영향과 재현 가능성을 세밀하게 검토하고, 필요시 2차 실험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미래본부는 "모의실험이 철저하게 진행될수록 남산 열암곡 부처님을 온전히 모실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데 한 걸음 더 가까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열암곡 마애불상 실대형 모의실험 연구는 지난해 2월 28일에 시작해 올해 12월 30일까지 이어지는 장기 사업이다. 연구의 목표는 마애불을 훼손하지 않고 이동하거나 현장에서 입불할 수 있는지를 과학적으로 확인하고, 구조적 안전성을 평가해 보존·정비 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다.

연구진은 실대형 모형을 제작해 실제에 가까운 조건에서 입불 가능성을 시험하고 있으며, 이동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할 수 있는 정비 대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경관, 지형, 지질 등을 포함한 기초 조사도 병행 중이다.

사업은 국가유산청과 경주시, (재)신라문화유산연구원이 주관하며, 고송문화재보존연구소가 실대형 거동 실험을, 동국대 와이즈캠퍼스 산학협력단이 학술 정비안을, 한성엔지니어링이 지반 및 안정성 평가를 맡고 있다. 미래본부는 자문위원으로 참여해 사업 전반을 함께하고 있다.

그동안 협약 체결과 착수보고회, 자문회의, 실험장 조성, 모형 제작과 프레임 구축이 차례로 진행됐다. 올해 6월 실험장 조성이 완료됐고, 11월까지 프레임 제작이 마무리됐다. 11월 말부터 12월 초까지는 유압 장치 설치와 충진재 작업, 양중 시험이 순차적으로 실시됐다.

연구진은 전체 실험 결과를 토대로 내년 1월 최종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한편,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부처님은 2007년 엎어진 채로 발견됐다. 통일신라 8세기 후반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열암곡 마애불은 높이 5.6m에 무게 약 70톤 규모로, 불상의 코와 지면 바위의 거리가 불과 5㎝밖에 되지 않아 '5㎝의 기적'으로도 불린다.

도영 대종사 문도회, 청사 복구기금 2000만원

12월 2일, 진우 스님에
광제사도 1000만원 전달


도영 대종사 문도회가 스님의 뜻을 잇기 위한 보살행을 실천했다.


광제사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복구기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조계종 총무원 청사 화재 피해 복구가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도영 대종사 문도회가 스님의 가르침을 잇기 위해 복구기금 전달로 보살행을 실천해 훈훈함을 자아냈다.

도영 대종사 문도회 대표 법진 스님(완주 송광사 주지)과 금산사 주지 화평 스님은 12월 2일 서울 조계사 템플스테이관 3층 담소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복구기금 2000만원을 전달했다.

진우 스님은 "어른 스님이 떠나셔서 허전하실 텐데 이렇게까지 힘을 모아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스님은 이어 "교육원장 소임을 보던 시절 도영 스님을 뵈었는데, 포교 지침을 일러주셨던 것이 기억난다"며 "도영 스님께서는 포교에 큰 신념과 열정을 가지고 계셨다. 말로는 쉽지만, 실천은 어려운데 스님께선 언제나 행동으로 보여주셨다"고 회고했다.

법진 스님은 "은사 스님 영결식에 총무원장 스님께서 참석해주셔서 큰 힘이 됐다"고 감사 인사를 전하며 "도영 스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으셨고, 작은 가능성도 현실로 이끌어 내셨다. 시샘도, 마음의 결핍도 없으셨던 스님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큰 가르침을 남기셨다"고 강조했다.

법진 스님은 또 "은사 스님께서는 총무원장 스님이 추진하는 '선명상'에도 깊은 애정을 갖고 계셨다"며 "종도들과 뜻을 모아 좋은 결실이 있길 바란다"고 응원했다.

금산사 주지 화평 스님도 "6년 전 도영 스님께서 크게 편찮으셨을 때 문도들이 곁에서 정성껏 모셨다"며 "한평생 종단 발전과 포교·전법에 헌신하신 큰스님의 뜻을 잇기 위해 문도 스님들과 금산사 소임자 스님들이 힘을 모아 기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세종 광제사(주지 탄대 스님)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의 조속한 복구를 염원하며 기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전달식에는 주지 탄대 스님과 서효근 광제사 신도회장, 이준우 후원회장이 함께했다.

김내영 기자

태고종 불이성 법륜사 주지에 성파 스님

12월 1일 제17대 주지 취임식
"수행·교화 중심도량 위상 강화"



태고종 불이성 법륜사 제17대 주지에 성파 스님이 취임했다.

12월 1일 법륜사 3층 대불보전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성파 스님은 "청정한 수행 가풍을 세우고 지역사회 교화에 앞장서는 한편, 종단과 한국불교 위상을 높이는 데 일조하겠다"고 밝혔다. 법륜사는 금강산 유점사의 서울포교당으로 개원해 태고종 총무원 청사인 한국불교문화전승관 건립 후 그 법맥을 이어오고 있다.

종정 운경 상보 대종사는 "총무원과 법륜사가 둘이 아닌 하나이기에 총무원 종무행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원활한 사찰 운영과 종무행정에 앞장서는 주지가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법륜사가 지역불교 중심 도량으로 굳건히 자리매김하고 나아가 종단 위상을 더 높이는 중추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여수령 기자

성웅·도심 스님, 새 장학위원으로 위촉

임기는 2026년 10월 6일까지



조계종의 인재 양성을 위해 장학승을 선발·지원하는 제8기 장학위원회 새 위원으로 총무원 총무부장 성웅 스님과 도선사 주지 도심 스님이 위촉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승가교육진흥위원장)은 12월 3일 서울 조계사 템플스테이관 3층 담소에서 성웅 스님과 도심 스님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번 위촉식은 총무부장과 도선사 주지의 새로운 임명에 따른 조치다. 임기는 제8기 장학위원회 위원의 잔여임기를 승계받아 이날부터 내년 10월 6일까지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장학위원회는 불교를 깊이 배우고 수행한 스님들이 종단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장학생을 공정하게 선발하고, 장학금을 고루 지급하는 중요한 소임"이라며 "새롭게 위촉된 총무부장 스님과 도선사 주지 도심 스님이 맡은 소임을 잘 수행해 장학위원회의 역할과 위상을 더욱 높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내영 기자

세계불교회관 낙성식에 진우 스님 초청

대만불교총회, 초청장 전달



대만불교총회(이사장 홍안 스님)가 12월 29일 대만 남부 핑동지역에서 열리는 전세계불교연합회관 낙성식에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초청했다.

대만불교총회 소속인 전원 스님(대만 가의현불교회 이사장)과 상로 스님(중화불교비구니협진회 이사장), 견인 스님(중화불교비구니협진회 사무총장) 등은 12월 2일 서울 조계사 템플스테이관 3층 담소에서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전세계불교연합회관 낙성식 초청장을 전달했다.

전세계불교연합회관은 전세계 불교계의 상호 협력과 학술 교류를 목표로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진우 스님은 "최대한 참석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다"고 답했다.

김내영 기자

Heungkuk 흥국생명

제례의식의 수행 주체인 **사찰을 수익자(보험금 수령)로 지정**할 수 있는

(무)흥국생명 **49재 하늘소풍 제례 종신보험**

누구나 좋은보험!

"죽고 나면 내 제사는 누가 지내주나?"
더 이상 자녀와 후손에게 부담은 그만!
가족 간의 불화와 갈등인 제사 고민 끝!

이제 사찰에서 여법하게 모십니다.

다양한 보장금액으로
나의 재정 상황에 알맞게
든든한 미래 준비

보험료 납입 중 사망하더라도 가입금액 전액 보장
가입 후 2년 이내 자살 등의 경우 부지급

선택사항
49재(천도재)와 기제사(1년~5년)를 기본으로 구성
범패, 바라, 위패봉안, 큰스님 영가법문 등
사찰에서 이루어지는 전통 다비식까지 다양한 옵션

보험가입자(피보험자)
웰다잉! 내가 선택하는 사후(死後)

유가족
제사 부담 해소, 고인에 대한 예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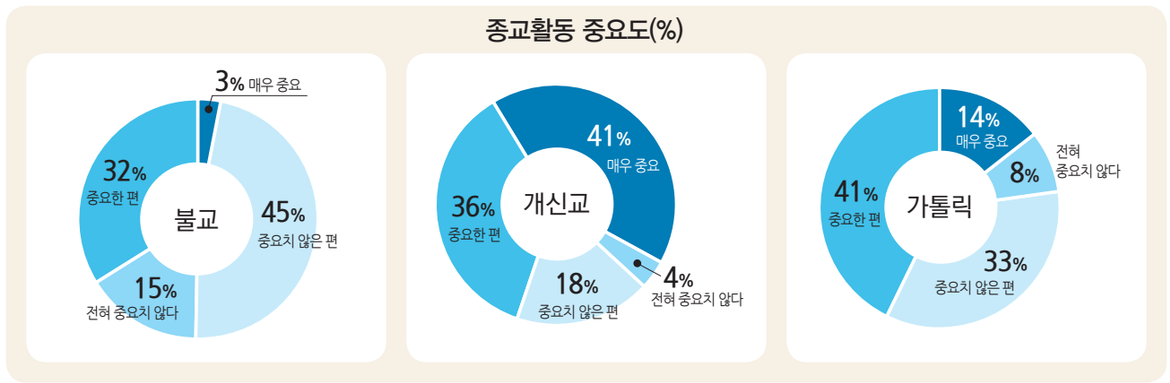
사찰
안정적인 제사 확대

상담문의전화 선우HK 보험대리점 **1522-1543**
대리점등록번호 제 2025038022호

<가입시 알아두실 사항> *본 보험은 사망을 보장하는 종신보험으로 은행의 예,적금과는 다른 상품이며 저축보험, 연금보험이 아닙니다. *본 보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체결전약관및상품설명서를반드시읽어보시기바라며보험계약청약서에보험상품명,보험기간,보험료,보험료납입기간,피보험자등을반드시확인하시고보험상품내용을설명받으시기바랍니다. ※보험계약자가기존에체결했던보험계약을해지하고다른보험계약을체결하면보험인수가거절되거나보험료가인상될수있으며보장내용이달라질수있습니다.※피보험자가고의로자신을해친경우,보험수익자가고의로피보험자를해친경우,계약자가고의로피보험자를해친경우,회사는보험금을드리지않습니다.고의로인한사고및일반사망보험금의경우2년이내자살할경우보험금지급이제한됩니다.※계약자는보험증권을받은날부터15일이내에청약을철회할수있으며,이경우철회를접수한날부터3영업일이내에보험료를돌려드립니다.단,회사가건강상태진단을지원하는계약,보험기간이90일이내인계약또는전문금융소비자가체결한계약은청약철회를할수없습니다.위에도불구하고청약한날부터30일(65세이상을보험계약자로하는통신판매보험계약의경우에는45일로합니다)이초과된계약은청약을철회할수없습니다.청약철회기간내에청약철회를하실경우납입한보험료전액을돌려받으실수있습니다.※계약자가약관및계약자보관용청약서를청약철회때전달받지못하였거나약관의중요한내용을설명듣지못하였을경우또는계약을체결할때계약자가청약서에자필서명을하지않은때에는계약자는계약이성립한날부터3개월이내에계약을취소할수있으며,이경우회사는납입한보험료와정해진이자를더하여돌려드립니다.※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는보험계약을청약할때회사가사면으로질문한중요한사항(계약전알릴사항)에대해사실대로기재하고,보험계약자와피보험자는자필서명(전자서명포함을하셔야합니다.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중요한사항(계약전알릴사항)에대하여사실과다르게알린경우에는회사는별도로정한방법에따라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의의사와관계없이보장을제한하거나계약을해지할수있으며,계약해지시에는이미납입한보험료가아닌해약환급금이지급됩니다.※이보장에는예금보호법에따라해약환급금등을합한금액이만5천만원까지(본보험회사의여타보험상품과합산)보호됩니다.이와별도로본보험회사보험상품의사고보험금을합한금액이만5천만원까지보호됩니다.다른계약의보험료납입기간이만료된경우에는예금자보호대상에서제외됩니다.※계약자가납입한보험료는불의의사고를당한다른가입자에게보험금으로지급되고보험회사운영에필요한경비로사용되므로중도해지시지급되는해약환급금은납입한보험료보다적거나없을수있습니다.※피보험자의위험직업종류또는운전차량종류및용도에따라가입이거절되거나제한될수있습니다.※계약자께서는본상품에대한내용과본상품에서제시된보장내용,보험기간등을변경하여보험설계를하는경우에는아래에서당사의상품과유사한다른회사의상품을비교하실수있습니다.※보험에관한불만사항이있는경우에는콜센터1588-2288로문의하여주시면신속히확인해드리겠습니다.※흥국생명보험:서울시종로구새문안로68흥국생명빌딩소비자보호팀※금융감독원금융소비자보호센터(https://fss.or.kr):국번없이1332※보험상품비교공시:www.klia.or.kr(생명보험협회)※보험상품및가격공시실:www.heungkuklife.co.kr(당사홈페이지)※승인번호:생명보험협회심의필제2025-06402호(2025-09-23~2026-09-22)

“종교활동 중요한가” 불자 35%만 “그렇다”

한국리서치 종교인식조사서
‘종교 활동 중요성’ 설문에
개신교 신자가 가장 긍정적
불자15% ‘전혀 중요치 않아’
법회 변화, 핵심신도 양성을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당신의 삶에서 종교활동이 중요한가”를 묻는 질문에 불자의 35%만 “중요하다”고 답해 신앙 공동체로서 유대감과 결속력 증진을 위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여론조사기관 한국리서치는 12월 2일 ‘2025년 종교인식조사: 종교인구 현황과 종교활동’을 발표했다.

한국리서치는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22번의 조사를 통해 올해 종교인구를 추산했다. 이에 따르면 무종교인(종교 없음)은 전체 응답자의 51%로 종교인을 상회했다. 종교인 중 20%는 개신교인이었으며 불자는 16%, 가톨릭인 11%로 뒤를 이었다. 이는 지난해 실시한 조사와도 동일한 결과로 한국리서치는 “종교 인구 비율이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은 종교계의 새로운 신자 유입 노력이 이탈을 상쇄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종교활동 참여 빈도를 묻는 질문에는 종교 인구 중 37%가 “매주 종교활동에 참여한다”고 응답했다. 한달에 2~3번 참여하는 사람은 11%, 한달에 1번 참여하는 사람은 12%로 나타났다. 한번도 참여 않는 사람은 18%, 한달에 한번 미만으로 참여하는 사람은 21%이다.

매주 종교활동에 참여하는 신자의 비율은 종교마다 격차가 컸다. 매주 종교활동에 참여하는 신자는 개신교는 63%로 가장 많았고 가톨릭 34%, 불교 3% 순이었다. 보고서에도 “예배 중심의 개신교·가톨릭과 달리 불교는 개인 수행의 비중이 높아 종교활동의 개념이 다르게 인식될 수 있다”고 밝힌 것처럼 종교활동의 빈도를 신앙의 척도로 보기는 어렵다.

실제 근대종교 개념이 강하게 형성된 한국의 개신교와 가톨릭은 자기 정체성이 뚜렷한 경성종교(硬性宗教)로 분류돼 인구 등의 집계가 용이하다.

반면 집단의 심성·철학·가치관·문화로서 자리매김하는 연성종교(軟性宗教)의 특징을 갖는 불교는 인구, 신앙이 명확하게 조사에 반영되기 어렵다는 게 종교학계의 지적이다.

그럼에도 종교활동의 중요성을 묻는 질문에 개신교인은 77%, 가톨릭인은 55%가 “중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불자의 35%만이 “중요하다(매우 중요 3%·중요한 편 32%)”라고 답한 것은 불교계가 곱씹어봐야 할 문제다. 불자의 경우 15%가 “종교활동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응답했으며 해당 비율은 3대 종교 중 가장 높았다.

이에 한국리서치는 “이는 불교의 특징으로도 볼 수 있지만 불교 신자 간의 유대감이나 공동체가 약화되 가는 신호로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조사에서는 종교활동(법회·예배·미사)에 매주 참여하는 사람일수록 종교활동의 중요성을 높게 평가했다. 종교활동에 매주 참여하는 사람 중 96%가 “종교활동이 본인의 삶에서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중 57%가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반면 종교활동에 월 1회 미만으로 참석하거나 아예 참석 않는 사람들 중 22%만이 “중요하다”고 인식했다.

현대 한국인의 라이프 사이클이 ‘주간’으로 변화한 만큼 전통적 음력법회가 아닌 일요법회 등 정기법회의 변화를 줘 신도 소속감과 충성도를 늘리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또 조직화 및 교육화된 신도 양성 방안도 종단적으로 마련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이와 함께 한국리서치는 종교인구 비율은 정체돼 있고 개종율도 낮아 안정적으로 보이지만 위기의 징후도 확인됨을 언급했다.

한국리서치는 “겉보기에는 안정적으로 보이지만 종교인구 고령화가 전체 인구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젊은 신자의 수가 많지 않고 젊은 신자의 종교활동 참여도와 중요성 인식이 낮아 믿음의 ‘강도’도 약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도 수를 늘리는 것, 특히 젊은 층과 어떻게 접점을 만들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 종교계의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맛있는 김치로 따뜻한 겨울 보내세요”



조계사는 12월 3일 ‘도농상생 김장나눔 전달식’을 가졌다.



봉은사는 12월 3일 경내에서 김장김치 1만포기를 담갔다.

조계사, 12월 4일 전달식
1500박스 지역 내 이웃들에
봉은사도 12월 3일 1만 포기

서울 조계사(주지 담화 스님)는 12월 4일 경내 백송 앞마당에서 ‘도농상생 김장나눔 전달식’을 개최했다. 김장김치는 3톤(2kg, 1500박스)으로 조계사 신도회가 1000만원, 해남군이 3000만원, NH농협 종로금융센터가 500만원을 기부해 마련됐다.

이날 조계사는 종로구청 사회복지관에서 선정한 지역 내 거주 취약계층에 1200박스, 종로구 청소년 보육원인 ‘선덕원’에 250박스, 종로구 주민소통센터에 50박스의 김치를 각각 전달했다.

조계사 주지 담화 스님은 “지난해 김장 날은 영하 10도에 눈도 와서 애를 먹었다”며 “올해도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신도들을 배려해 김장은 해남군이 담당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님은 “사부대중 모두의 정성이 모아지면 추위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며 “맛있는 김장김치를 통해 어려운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 봉은사**(주지 원명 스님)도 12월 3일 경내 주차장에서 ‘불기 2569(2025)년 봉은사 김장축제’를 열고 1만 포기의 김장김치를 담갔다.

봉은사는 이날 담근 김장김치 중 약 2000kg(1000포기)을 판교노인종합복지관과 대치노인복지관 등 사회복지법인 봉은 산하 19개 복지시설과 지역 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했다.

김내영 기자 · 송정인 수습기자

“故 뚜안 사망 진상 규명하라”

조계종 사회노동위, 11월 30일
광화문 일대 삼보일배 오체투지



“더 이상 죽이지 말라, 강제단속 중단하라! 우리 친구 뚜안을 살려내라!”

정부 합동단속으로 지난 10월 28일 사망한 베트남 출신 뚜안 씨의 명복을 빌고 이주노동자 강제 단속 중지와 인권 향상을 발원하는 삼보일배 오체투지 행진이 서울 광화문에 이어졌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지몽 스님, 이하 사노위)는 11월 30일 서울출입국 세종로출장소 앞에서 이주노동자 오체투지를 개최했다.〈사진〉

故 뚜안 사망사건 진상규명과 강제단속 중단을 위한 대구경북공대위 ‘사람이왔다’가 함께한 이날 오체투지에는 조계종 사회노동위원 한수스님, 원경 스님, 혜찬 스님, 보현 스님, 혜도 스님과 희생자 故 뚜안 씨 유족, 이주노동자들, 우다야라이 이주노동위원장, 이춘기 경주이주노동자센터장 등이 100여 명이 동참했다.

이들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세종로 출장소에서 정부서울종합청사까지 약 1.2㎞ 거리를 오체투지로 행진했다.

임은호 기자

동국대 성추행 A교수 직위해제…중징계 받는다

법인 이사회, 12월 2일 결의
부정행위 B교수도 동일 의결
감사에 법성 스님 재선임

최근 성추행으로 교내 안팎에서 문제가 된 동국대 문화유산학과 A교수와 연구 부정행위 의혹을 받는 스포츠문화학과 B교수가 직위해제되고 중징계 의견으로 교원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학교법인 동국대(이사장 돈관 스님)은 12월 2일 제363회 이사회를 열고 교원 징계의결 요구의 건을 상정해 이 같이 결의했다.

A교수는 지난 2023년 학과 동계답사 뒤풀이 중 부적절한 신체접촉과 성희롱이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올해 7월 학교인권센터 조사 결과가 교원인사실에 이첩됐으며 8월 열린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중징계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문화유산학과 1·2·3대 학생회는 학내 대자보 등을 통해 해당 교수가 지속적으로 위계를 이용해 성희롱 등을 반복해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공 특성상 취업을 위해서는 대학원 진학과 취업에 있어 불이익을 받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신설학과’의 첫 세대라는 책임감은 학생들의 입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11월 25일에는 불교대학 교수들도 대자보를 통해 “모든 형태의 성희롱, 성추행, 위계적 폭력은 교육자로서 절대 용납될 수 없다. 피해학생들과 연대하며 안전한 대학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행동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교원징계위는 사안의 중대성을 직시해 가장 엄정한 수준의 징계를 즉시 결정해 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B교수는 연구비와 교비 관련 부정행위로 문제가 돼 직위해제와 중징계가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두 교수의 징계 수위는 교원징계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교원징계위원회에는 징계 의견을 통보받은 후 60일 이내로 징계를 의결한다. 다만 성(性) 비위 사건은 30일 이내로 징계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와 함께 임원 선임에서는 법성 스님을 감사로 재선임했으며, 내년 4월 24일 임기만료 예정인 도림 스님의 후임 선임은 차기 이사회로 이월하기로 의결됐다.

앞서 조계종 중앙종회는 지난 11월 제236회 정기회에서 도림 스님의 후임으로 재안 스님(내소사 주지)과 성원 스님(조계종 문화부장)을 복수 추천했다.

신중일 기자

인도 네팔 성지순례 10일
2월01일 출발~2월10일 도착
■ 일정: 인천-델리-바라나시-보드가야-라즈기르-영축산-나란다대학-바이샬리-쿠시나가르-룸비니-기원정사-아그라-델리-인천
▶ 동참금 : 320만원

인도 문화탐방 9일
인도의 주요 관광지만 가는 일정입니다.
2월11일 출발~2월19일 도착
■ 일정: 인천-델리-바라나시-카주라호(인도 최고의 조각상)-아그라-자이푸르-델리-인천
▶ 동참금 : 350만원

인도 히말라야 라다크 순례 8일
고색창연한 티베트 사원들과 천년벽화의 신비 알치곰파
그리고 유명한 헤미스사원 축제
6월21일 출발~6월28일 도착
■ 일정: 델리-라다크(레)-알치-라마유루-레-헤미스-판공호수-레-델리
▶ 동참금 : 369만원

중국 아미산,낙산대불,대족석굴 5일
보현보살의 도량 아미산과 낙산대불,
중국 4대석굴중에 하나인 대족석굴 순례
3월25일 출발~3월29일 도착
▶ 동참금 : 149만원

중국 문수보살의 성지 오대산 성지순례 5일
1,500년전에 조성된 운강석굴과
문수보살의 화현처 오대산 순례
6월07일 출발~6월11일 도착
▶ 동참금 : 159만원

중국 실크로드 성지순례 10일
삼장법사 현장스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최고의 순례 길
4월01일 출발~4월10일 도착
■ 일정: 인천-서안(진시황병마용갱,화청지)-법문사(부처님불지사리)-천수(맥적산석굴)-난주(병령사석굴)-장액(대불사)-칠채산(일곱빛깔 무지개산)-가욕관·돈황(막고굴,명사산)-유원-투루판-우루무치(천산천지)-인천
▶ 동참금 : 349만원

중국 구화산, 보타산 6일
지장보살의 도량 구화산과
관음보살의 도량 보타산 순례
3월21일 출발~3월26일 도착
▶ 동참금 : 169만원

백두산, 고구려유적 순례 5일
6월25일 출발~6월29일 도착
■ 일정: 인천-연길-백두산 천지(북파,서파 2곳 등정)-집안(고구려 옛수도-광개토대왕비)-심양-인천
▶ 동참금 : 159만원

우주의 중심- 티베트 수미산 순례 16일
부처님의 탄생과 같은 말띠 해인 2026년도는
12년 만에 찾아오는 성스러운 수미산 순례의 기회입니다.
6월16일 출발~7월01일 도착
▶ 동참금 : 570만원

티베트 순례 칭짱열차 8일
라싸-갼체-시가체-삼예-칭짱열차-서녕-서안 등
티베트 주요 성지순례 일정입니다.
6월06일 출발~6월13일 도착
▶ 동참금 : 문의

중국 운남성 성지순례 7일
아름다운 운남성의 곤명-대리-
여강(옥룡설산)-샹그릴라 성지순례
4월06일 출발~4월12일 도착
▶ 동참금 : 239만원

예약 · 상담 02)720-9600
마음여행 실크로드여행사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8, 에스앤에스빌딩 901호
마음여행사 검색

석달 간 집중 수행…을사년 동안거 용맹정진 시작됐다

12월 4일, 결제 법요식 봉행
해인사 188명 스님 수행정진
수덕사에는 260명 결제 첫발
범어사 120명 수좌스님 입선
송광사 17명 포함 70명 동참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 성낙두 경남지사장
유재상 충청지사장 ·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불기 2569년 을사년 동안거 용맹정진이 12월 4일 시작됐다. 상단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해인사, 수덕사, 송광사, 범어사에서 봉행된 결제 법요식 후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전국의 선원 스님들이 석달간의 겨울 집중 수행을 펼치는 불기 2569년 을사년 동안거 용맹정진이 12월 4일 시작됐다.

해인총림 해인사(주지 혜일 스님)는 12월 4일 경내에서 을사년 동안거 결제 법요식을 봉행했다.

방장 대원 대종사는 법어에서 "즉하에 계합해서 몰록 깨달아 증득하면 불조가 밟은 길을 파하여 뛰어나리라. 나무사람은 티끌 속에서 연꽃 궁전에 오르고 돌여자는 고갯마루에서 줄 없는 거문고를 탄다"는 법어를 내렸다.

이어 스님은 "지혜 바다의 주장자는 혹 금강왕보검을 짓고 혹 땅에 웅크리고 있는 사자의 모습을 지으며 혹 낚싯대와 풀잎의 그림자 탐색을 짓고 혹 주장자 쓰는 것은 짓지 않는데 모든 사람은 도리어 알았는가"라고 묻고 "만약 안다면 용이 물을 얻은 것과 같고, 호랑이가 산을 의지한 것 같음이라. 나고 없어지며 거두고 펴서 종횡으로 응해 쓰니. 만약 서로 알지 못한다면 해 가운데 도망가는 그림자와 같다"고 설했다. 올해 해인총림 을사년 동안거에는 산내 선원에서 188명의 스님이 수행 정진한다.

덕숭총림 수덕사(주지 도신 스님)도 같은 날 경내 대웅전에서 동안거 결제 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덕숭총림 제방선원에 방부를 들이고 3개월 간 용맹정진을 서원한 260명의 선원 대중과 외호 대중이 결제의 첫발을 내디뎠다.

방장 우송 스님은 법어에서 "부처님 은혜 만분의 일이라도 갚는 길은 방청소하고, 설거지하고, 신발 바로잡고, 활짝 웃는 얼굴, 이놈 만나는 일"이라며 "오직 이놈이다. 목탁 소리도 이놈이요, 대중 소리도 이놈이다. 시심마라, 이놈이 무엇인가?"라고 설해 수행납자들에게 화두를 놓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주지 도신 스님은 "선원 스님들과 정진 납자들이 건강에 유념하시고 수행이 원만하시길 기원한다"며 "수좌 스님들을 모시는 데 소홀함도 없도록 외호에 정성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을사년 동안거 결제 참석 현황도 보고됐다. 정혜사 26명, 향천사 7명, 천장사 7명, 개심사 9명, 견성암 41명, 보덕사 14명, 법륜사 11명, 법계사 51명, 강원 9명, 율원 11명, 염불원 7명, 수덕사 산내암자 극락암 2명, 선수암 4명, 한희대 10명, 수덕사 외호대중 50명을 포함해 총 260명이 동안거 정진에 임한다.

금정총림 범어사(주지 정오 스님)도 이날 경내 보제루에서 을사년 동안거 결제 법요식을 봉행했다.

방장 정여 스님은 이날 결제 법어에서 "동안거는 스스로에게 속지 않는 수행"임을 강조했다. 스님은 "내가 일으킨 생각에 내가 속아 괴로워하는 것이 인생사"라며, 생각이 만들어낸 허망한 그림자에 사로잡히지 말 것을 당부했다. 이어 "그 허망함을 초월해 본래 마음을 보면 부처님 마음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어리석은 집착을 여의고 참나를 찾는 동안거가 되기를 바란다"고 설했다.

올해 범어사 동안거에는 금어선원과 대성암 선원을 비롯한 선원, 율원, 염불원 등 사중 수행처에서 약 120여 명의 수좌 스님들이 입선했다.

조계총림 송광사(주지 무자 스님)도 경내 대웅보전에서 결제 법회를 봉행하고, 3개월 동안 이어질 동절기 수행의 시작을 알렸다. 이번 결제에는 선원 수좌 17명을 포함해 율원·강원·산내암자·외호대중 등 70여 명이 안거에 동참했다.

법어에 나선 방장 현묵 스님은 수행자의 올바른 안목인 '정견(正見)'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견은 수행의 나침반과 같다. 이를 갖추지 못하면 모래를 쪄서 밥을 짓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된다"며 "부처님께서도 팔정도 가운데 가장 먼저 정견을 내세우며 성도 후 일체중생이 지혜와 덕성을 갖추었으나 번뇌에 가려 보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고 하셨다"고 설했다.

또한 스님은 효봉 스님의 가르침을 인용해 "사상의 실체를 꿰뚫어 보아야 한다. 도끼뿔 지팡이로 산을 넘고, 배를 타고 생사의 바다를 힘차게 저어 나아가면 분별이 사라진 깨달음의 저 언덕에 이르게 된다"고 일깨웠다.

12월 3일자(1557호) 신문에 게재되지 못한 덕숭총림 수덕사 방장 달하 우송 대종사의 법어는 QR코드를 통해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갈마법, 승가다운 승가 만드는 최적의 장치"

전자불전硏, 12월 1일 남산책방서
'갈마, 불교의 공의제도' 세미나
"승가공동체 의사결정 핵심 제도"



율장에 나타난 갈마법의 본질과 구조를 체계적으로 고찰하고 이를 현대 한국 승가 운영에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세미나가 열렸다.

전자불전문화콘텐츠연구소(소장 주경 스님)는 12월 1일 서울 남산책방에서 '동국대학교불교학술원세미나-갈마, 불교의 공의제도'를 개최했다.

'갈마'는 '승가갈마(僧伽羯磨)'의 줄임말로 포살(布薩)이나 자자(自恣)와 같은 승가의 정기적 행사를 비롯해 새로운 의결과 쟁사(爭死) 등을 해결하는 공식회의다.

이날 봉녕사금강율학승가대학원 부교수 정현 스님〈사진〉은 '화합승가의 갈마법 이해'에서 갈마법에 대해 "승가 공동체의 의사결정을 여법하게 진행하기 위한 핵심 제도"라고 강조했다.

먼저 갈마법의 핵심 주석서인 도선의 '사분율산번수기갈마'를 중심으로 갈마의 분류 체계, 참여자의 자격 요건, 실행 원칙과 예외규정, 그리고 여법한 성립 기준을 검토한 정현 스님은 "현전승가의 화합 운영을 전제로 정밀한 성립 요건과 절차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오늘날 승가가 직면한 조직 운영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갈마법이 과거 문헌 속에 존재하는 고대 인도의 승가 운영 방식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승가다운 승가'를 만들고 유지하기 위한 최적의 제도적 장치라는 것. 정현 스님은 "갈마법은 1인 독단을 방지하고 대중 합의에 기반해 의사를 결정하며 투명한 절차로 집행하는 승가 특유의 민주적 의사결정 시스템"이라며 "특히 사찰 재산 처분이나 징계와 같은 주요 의사결정에 백이갈마·백사갈마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경우 현재 발생하는 상당수의 불법과 비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님은 승가라는 독특한 공동체에 특화된 갈마법을 제대로 이해하거나 적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재산 횡령·불법 처분·징계 쟁송은 물론 세속에서 발생하는 도박이나 성범죄 같은 비위 사례들이 승가에서도 반복되고 있다고 했다. 때문에 현대 한국불교에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이 갈마법의 부재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화합승가 실현을 위한 제안으로 △계율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전환 △갈마법 이해를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갈마법을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스님은 "현실을 고려할 때 종단 및 사찰의 소임자뿐 아니라 승가 전체가 갈마법을 필수적인 승가 운영의 조직론으로 인식하고 학습과 실천을 통해 승가 공동생활과 일상에 복원하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면서 "한국불교는 오랜 전통과 대승불교의 두터운 기반을 지니고 있지만 단순한 '계율 준수'의 구호를 넘어서 계학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 율장 연구를 활성화하며 포살과 자자 등 핵심 갈마법을 사찰 운영과 일상 수행 속에서 실천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때 한국불교는 율장 전통의 재흥을 통해 새로운 도약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은호 기자

국제교류위, 내년도 한국불교 대표役 수행

10월, 한중일대회 한국 개최 대비
성파 스님 美 하버드대 전시 준비



조계종 국제교류위원회(위원장 진성 스님)가 내년도에도 활발한 해외 교류와 포교 활동을 이어간다. 국제대회 참가와 국제기관 교류를 통해 한국불교의 대표 역할을 수행하고 해외 행사 개최·지원하며 국제 불교계에 한국불교와 조계종의 위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조계종 국제교류위원회는 12월 2일 서울 운현빌딩 8층 회의실에서 '2025년 제3차 국제교류위원회 회의'를 열고 2026년도 주요사업 계획을 논의했다.〈사진〉

내년 10월에는 제26차 한중일불교우호교류회의가 한국에서 열린다. 이에 상반기부터 예비회의를 열고 철저한 준비를 해나간다는 방침이다. 한중일불교우호교류회의는 1995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첫 대회를 시작으로 매년 중국, 한국, 일본 불교계가 순차적으로 개최해 온 대표적인 불교 국제행사다. 올해 10월, 중국 베이징에서 제25차 대회가 열린바 있다.

국제교류행사에도 대거 참석한다. 1월 24~25일 인도에서 열리는 제2회 국제불교정상회의 참석을 시작으로 5월 26~28일 중국에서 열리는 2025 유엔베삭데이에 동참한다. 제43차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 참석을 위해 6월에는 일본을 방문한다. 9월에는 '한국불교세계화'를 기치로 조계종 종정 성파 대종사의 예술 작품 전시와 강연이 미국 하버드대에서 준비됐다. 이 밖에도 10월에는 태국에서 열리는 WFB 집행위원회에, 11월에는 IBC총회 등이 예정돼 있다.

국내에서도 전법 포교 세계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이 준비됐다. 4월에는 주한대사관 대사 및 관계자 초청 불교문화 체험행사와 외국어 인재 활용 워크숍, 몽골 간단사 주지 연등회 초청 등이 진행된다. 8월에는 한국-스리랑카 문화복지재단 이사회를 개최하고 조계종단의 첫 해외복지 시설인 한국-스리랑카 조계종복지타운에 종단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10월에는 외국인 스님 교육을 실시한다. 국제교류위원회의는 3월과 8월, 12월 등 3차에 걸쳐 개최, 내실을 다진다.

임은호 기자



조계종복지재단, 올 해 빛난 실천가 격려

제27회 전국불교사회복지대회
복지유공자 30여 명 표창 수여

불교사회복지 현장에서 묵묵히 자비나눔을 실천해 온 실천가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도륜 스님)은 12월 3일 서울 동국대 남산홀에서 '제27회 전국불교사회복지대회'를 개최했다.

이사장 진우 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은 이날 상을 받는 30여 기관과 개인은 물론,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한 이들에게 무한 감사와 찬탄을 보냈다. 올해 조계종 총무원장 표창은 구미 연꽃어린이집 원장 경륜 스님을 비롯해 권순호 안성시노인복지관 부장, 국제재난심리지원단 이지스 등이 받았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표창은 권희정 신안어린이집 원장과 조계종자원봉사단 불이회 등이 수상했다.

이밖에도 보건복지부 장관·성평등가족부 장관·문화체육관관광부 장관을 비롯해 국회의장 공로장 등이 30여 단체와 개인 유공자들이 수상의 기쁨을 만끽했다.

시상식 후에는 '불교상담 활성화를 위한 실천적 방안-사회복지현장 중심으로'를 주제로 세미나가 개최됐다. 임은호 기자

11개 전법단, 출가 장려·신행 확산 발맞춘다

12월 2일 분야별 전법단장 회의
선명상·밀라노 선전 법회 등



조계종 전법단(총재 진우 스님, 조계종 총무원장)은 12월 2일 서울 전법회관 3층 회의실에서 분야별 전법단장 회의를 열고 올해 주요 사업을 점검하고 내년도 주요 사업을 공유했다.〈사진〉

포교부장 정무 스님은 내년 포교부 3대 역점 사업을 △출가 장려 △신도 등록 활성화 △결계포살제도 시행으로 제시하고 전법단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내년도 전법단 예산은 1억 6700여 만원으로 책정됐다.

병원전법단은 내년 3월 '병원포교, 홀로서기에서 함께하기'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어 그동안 개인의 원력에 기대온 병원포교의 발전 방안을 모색한다.

경찰전법단은 내년 여름과 겨울 2차례 '경찰불자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선명상 프로그램'을 개최하는 한편, 서울권역을 시작으로 경승 운영 실태와 경찰불자회 활동 등 현황조사를 실시한다.

청년대학생전법단은 내년 2월 5일부터 13일까지 36개 대학 동아리 회장과 지도법사의 네크워크 강화를 위해 '히말라야 선명상 트레킹'을 진행한다. 국제전법단장도 서울 홍대선원과 뉴욕 조계사, 네팔 저스트비 히말라야를 거점으로 한국불교 세계화와 교류 확대에 나선다.

체육인전법단은 밀라노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불자 선수 심신 안정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선전 기원 법회를 봉행하고, 불자선수 템플스테이와 꿈나무불자선수 장학금 지원 등을 추진한다. 글=여수령 기자 · 사진=송정인 수습기자



탄자니아 보리가람대학 7회 졸업식 재단법인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진우 스님, 조계종 총무원장)은 11월 28일 탄자니아 보리가람농업기술대학에서 제7회 졸업식을 개최했다. 아름다운동행이 9년째 탄자니아 다르에스살람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리가람농업기술대학은 이번 제7회 졸업식에서 70명의 졸업생을 배출하며 누적 530여 명의 인재를 사회에 보내게 됐다. 임은호 기자



생명나눔실천본부는 12월 2일 서울 중랑구 일대에서 '제12회 생명나눔과 함께하는 따뜻한 정나누기'를 실시했다. 이날 이사장 일면 스님과 홍보대사들은 신내동 일대 취약계층 가구에 겨울 물품을 직접 전달했다.


홍보대사 엄영수, 배아현이 물품 상차를 함께하고 있다.


신내1동 주민센터에서 추천받은 지역 내 홀몸 어르신 가정을 찾고 있다.



가수 배아현과 팬클럽 '아트'는 환자 치료비 지원금 200만원을 기부했다.

생명나눔, 소외 이웃에 따뜻한 자비 나누다

생명나눔, 새로운 시작

11. 제12회 정나누기 현장

생명나눔실천본부, 12월 2일
서울 중랑구 일대서 '정나누기'
배우 수지 1500만원 후원으로
200가구에 김치 · 라면 등 지원
엄영수 · 배아현 홍보대사 동참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우리 어르신, 맛있는 김치 잡수시고 따뜻하게 겨울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전국 대부분이 영하권이었던 12월 2일,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이 서울 중랑구 신내1동 노후 주택 밀집 지역을 찾았다. 일면 스님은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 홀로 살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홍○○ 할머니에게 김장김치와 라면, 김 등 식료품과 전기매트를 전달하며 따뜻한 인사를 건네고 건강한 겨울나기를 기원했다.

매해 연말마다 지역 내 소외 이웃들이 따뜻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후원하는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 스님)가 올해도 겨울 물품 지원에 나섰다. 생명나눔실천본부는 12월 2일 서울 중랑구 일대에서 '제12회 생명나눔과 함께하는 따뜻한 정나누기'를 실시했다. 2014년부터 소외이웃을 위한 연말 자비나눔을 펼치며 열악한 환경에 놓인 이웃들을 보듬어 온 생명나눔실천본부는 올해 연말도 어김없이 지역 내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나눔을 전하고 지역사회 연대와 생명존중의 가치를 실천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

지난해에 이어 중랑구청(구청장 류경기)과 협업, 중랑구 신내1동 지역에서 정나누기가 진행됐다. 2025년 6월, 중랑구의회와 체결한 생명나눔 문화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2년째 이어 오고 있는 행사다.

이날 정나누기에는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본 행사에 후원금을 기부해 온 가수 겸 배우 수지의 후원금 1500만원 덕분에 김치 2000kg, 라면 200박스, 김 세트, 전기매트, 방한용품 등을 준비할 수 있었다.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을 비롯해 류경기 중랑구청장, 박종우 생명나눔 홍보위원회 장, 성명용 수석부회장 외 홍보위원들, 홍보대사 개그맨 엄영수와 가수 배아현, 박홍근 중랑구 을 국회의원의 배우자인 장미경 씨 등이 함께해 신내동 주민센터에서 추천받은 지역 내 홀몸 어르신과 저소득층 200가구 곳곳에 겨울 물품을 전했다. 이들은 모두 저소득 취약계층 가구로, 고령 및 장애로 이동이 어렵고 식료품 구입이나 김장김치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다.



생명나눔실천본부 홍보대사인 개그맨 엄영수와 가수 배아현은 어르신들에게 물품을 전달하고 손을 잡고 담소를 나누며 따뜻한 시간을 보내 훈훈함을 더했다. 특히 어르신들은 배아현 홍보대사를 한눈에 알아보고 "TV 트로트 프로그램에서 자주 봤다"며 사인을 받고 기뻐하기도 했다.

배아현 홍보대사는 "생명나눔 홍보대사이자 중랑구 홍보대사로서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어 감사하다"면서 "후원자들의 따뜻한 사랑으로 중랑구가 더욱더 따뜻해질 거라 믿는다. 앞으로 시간과 여건이 되는 대로 나눔활동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지난해부터 중랑구에서 자비나눔을 펼치고 있는 생명나눔실천본부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류경기 구청장은 "생명나눔실천본부의 지속적인 나눔 활동은 중랑구 이웃들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된다"면서 "중랑구 40만 주민들의 마음을 담아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표하며, 앞으로도 중랑구청은 복지 향상과 생명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생명나눔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거듭 고마운 마음을 표했다. 중랑구 홍보대사이기도 한 배아현 홍보대사에게도 "노래도 멋지고 마음씨도 따뜻한 중랑의 자랑"이라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생명나눔실천본부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나눔과 복지 실천 활동을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일면 스님은 "올해도 많은 분들의 정성 덕분에 나눔의 씨앗을 이웃에게 전할 수 있었다"며 "중랑구민 모든 분들이 조금이나마 온정의 손길을 느끼고, 희망을 갖길 바란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이날 홍보대사 가수 배아현과 팬클럽 '아트'는 환자 치료비 지원을 위해 200만원을 생명나눔실천본부에 전달했다. 후원금은 소아암 및 희귀 난치병 환자를 위한 치료비로 쓰여진다.


잠시 내려놓은 커피 한 잔
그 따뜻함을 하윤이에게 전해주세요
ARS 후원 060-703-1133
• 전 화 1 통 화 에 5 천 원 후 원 •
태어난지 두달 무렵
몸에 힘이 빠지고 움직이지 못해 병원을 찾은 하윤이는
근육이 점점 위축되어 대부분 두돌을 넘기지 못하는 희귀질환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린 부모님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억원에 달하는 치료비에
하윤이의 치료는 잠시 멈춰있는 상태입니다.
환자 정기 CMS 후원 신청 02-734-8059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본부

통도사, '화엄산림대법회' 한 달간 화엄법석 연다

오는 12월 20일 입재해 2026년 1월 18일 회향
〈화엄경〉 따라 이어지는 통도사 대표 산림 법회
품차 설법으로 화엄 사상 전통적 구조 제시해
선·교·율 대표 강백 해석으로 경전 의미 확장


지난해 통도사 설법전에서 봉행된 화엄산림 법회 모습. 올해 화엄산림대법회는 12월 20일 입재해 2026년 1월 18일 회향한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hasm77@hanmail.net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현덕 스님)가 화엄산림대법회를 연다. 법회는 12월 20일 입재해 2026년 1월 18일 회향하며, 한 달 동안 경내 설법전에서 대중에게 화엄의 가르침을 전할 예정이다.

통도사는 매년 겨울 화엄산림을 열어 〈화엄경〉 공부의 전통을 이어 오고 있다. 산림법회는 특정 경전을 정해 일정 기간 매일 강설하는 전통을 말하며, 화엄산림의 경우 〈화엄경〉을 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배우는 것이 특징이다. 한 달 이상 이어지는 지속성과 경전 전체의 흐름을 통찰하는 체계성을 갖춘다는 점에서 대중의 관심을 모아 왔다.

또 통도사는 과거부터 강원 교육과 교학 전승에 힘써 온 도량으로, 해마다 겨울 화엄산림을 통해 선·교·율을 아우르는 다양한 스님들의 법문이 펼쳐져 왔다. 대중은 각 스님의 해석과 가르침을 통해 경전의 의미를 다층적으로 접할 수 있으며, 산림이라는 이름처럼 '공덕의 숲'을 함께 가꿔 가는 수행공동체를 경험한다. 통도사는 "〈화엄경〉이 펼쳐 보이는 세계는 차별과 분별을 벗어난 자리이며, 대중이 한 법석에서 함께 수행하고 배워 가는 것 자체가 보살행의 실천"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대법회는 종범 스님(전 중앙승가대 총장)의 입재 법문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법석이 열린다. 종범 스님은 강원 교육과 교학 연구에 오랜 기간 헌신해 온 스님으로, 입재에서 화엄 세계관을 개괄하며 산림의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 21일부터는 〈화엄경〉의 주요 품들이 하루 단위로 이어진다. 수진 스님(조계종 계단위원)이 '세주묘엄품'을, 연각 스님(송강사 강주)이 '여래현상품'과 '보현삼매품'을, 도업 스님(화엄 법계사 회주)이 화엄의 우주관을 담은 '세계성취품'을 강의한다. 아울러 신공 스님·인해 스님·선지 스님·일면 스님 등 대강백이 차례로 법석에 올라 화엄의 사상 구조를 짚고, 현대인의 삶 속에서 실천할 지점을 안내한다.

12월 29일에는 우진 스님(전 통도사 강주)이 승수미정상품·수미정상게찬품을 설하며, 다음날 오전에는 월하 스님의 추모다례재가 봉행된다. 연말연시에는 범해 스님(전 중앙종회의장)과 반산 스님(전 쌍계사 강주)이 '십주품'·'범행품' 법문을 이어가 새해 첫날부터 화엄의 새로운 장들이 펼쳐진다. 1월 4에는 수불 스님(범어사 율주)이 '승도솔천궁품'을 설하고, 이어 지현 스님·경성 스님·법산 스님 등 강백들의 〈화엄경〉 강의가 이어진다.

1월 13일 오전에는 벽안 스님 추모다례재가 예정돼 있으며, 회향 법문은 중봉 성파 대종사가 맡아 법석을 마무리한다.

법회는 입재 오전 10시 20분, 회향은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그 외 평일 및 토요일에는 오전 11시와 오후 2시, 일요일에는 오전 10시 20분에 법문이 이어질 예정이다. 대중은 일정에 맞춰 원하는 날 참여할 수 있으며, 기간 내 여러 번 동참해 경전의 흐름을 더욱 깊이 있게 체득할 수 있다.

통도사는 화엄산림대법회가 단순한 경전 강의가 아니라 "대중이 스스로의 마음을 비추고 보살행의 정신을 익히는 수행 과정"이라며 "오늘날 복잡한 인간관계와 경쟁의 세상에서, 화엄의 가르침은 분별심을 내려놓고 서로를 이롭게 하는 삶을 실천하도록 방향을 제시한다. 법회 기간 동안 경문 독송과 예불, 예참 등을 함께하며 수행 공동체의 의미를 다시 새기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동참금은 영가 1위당 2만원, 생축 동참은 1인 10만원이다. 접수는 통도사 기도접수처(화엄전)에서 가능하다.

055-381-1288

'2025 인도영화제' 성료…韓·印 문화교류

11월 27~30일, 부산 영화의전당



부산 영화의전당에서 진행된 '2025 IFF(Indian Film Festival) 인도영화제'가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이어진 일정을 마무리했다.〈사진〉 올해 13회를 맞은 이번 영화제는 한나래문화재단(이사장 심산 스님)의 후원으로 마련돼 인도영화가 지닌 예술적 깊이와 사회적 메시지를 국내 관객에게 알리는 계기가 됐다.

올해 상영작은 총 7편으로 구성됐다. 개막작 '12학년 낙제생(12th Fail)'을 비롯해 '만주멜 보이즈', '굿모닝 맨하탄', '한번 뿐인 내 인생', '비크람', '헬라로', '시조우' 등이 나흘간 차례로 상영됐다. 작품들은 인도의 일상과 신념, 사회문제, 청춘의 고민 등을 다양한 시선으로 풀어내 관객의 호평을 이끌어 냈다.

한나래문화재단 이사장 심산 스님은 "인도영화의 서사에는 인간의 삶을 성찰하게 하는 힘이 있다"며 "이번 축제가 양국이 서로의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는 연결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범어사, 김장나눔 '복지시설 200박스' 전달

11월 30일, 전달식 개최



금정총림 범어사가 겨울을 앞두고 지역 복지시설을 위한 김장 나눔을 진행했다.

범어사(주지 정오 스님)는 11월 28일부터 30일까지 사흘 동안 경내 하후원에서 김장을 실시했다.〈사진〉 마지막 날인 30일에는 총무국장 대방 스님 등 대중 스님들을 비롯해 신행단체 회원, 산하법인기관 종사자, 보현회 봉사자 등 200여 명이 참여해 약 3000포기의 김장을 마무리했다.

범어사는 이날 마련된 김장 가운데 1000여 포기를 선별해 200박스로 나눠 담고, 사회복지법인 범어와 재단법인 범어청소년동네 산하시설, 금정구 관내 복지기관 등을 통해 지역 내 취약계층 가정에 전달했다.

총무국장 대방 스님은 "범어사가 매년 겨울 진행하는 김장 나눔이 지역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불교상담개발원, 명상·치유 결합 '생명살림법회'

11월 30일, 범어사 선문화관서
생명존중 자살예방 메시지 확산



불교상담개발원(원장 종봉 스님)은 11월 30일 범어사 선문화관에서 '생명살림법회'를 봉행하고 "몸의 움직임을 알아차리는 것이 생명을 지키는 마음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명상과 치유를 결합한 이번 법회는 생명존중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전국 릴레이의 하나로 마련됐다.〈사진〉

법회에 앞서 열린 생명살림캠페인에서는 생명존중 리플릿이 배부되고 생명살림 서약이 진행됐다. 불교상담개발원은 서약 활동을 통해 법회 참여를 일상적 실천과 연결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이날 법문은 선업 스님(전 조계종 포교원장)이 '움직임 명상'을 주제로 진행했다. 스님은 "사람은 가만히 있다고 느끼지만 실제로는 호흡과 자세, 감각이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다"며 그 움직임을 알아차리는 것이 마음의 속도를 늦추고 불안, 우울, 강박 같은 고통을 비추는 관문의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스님은 손가락을 들어 펴고 접는 간단한 동작을 안내하며 "이 움직임을 실제로 일으키는 것은 무엇인가"를 질문했고, 이를 통해 몸과 감정, 생각, 욕구, 의식으로 구성된 오온(五蘊)의 구조가 고정된 실체가 아닌 '흐름'임을 이해하도록 이끌었다.

이어 스님은 현대인들이 겪는 반복적 반추(反芻)의 문제를 짚으며 "되새김은 자연스러운 작용이지만 반복될수록 고통을 더 키운다"고 강조했다. 이어 "명상은 반추가 만든 굳은 틀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의 감정과 생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는 치유의 실천이며, 결국 생명을 더 귀하게 여기게 한다"고 법문했다.

생명살림법회는 불살생·자비·사무량심을 바탕으로 생명존중사상을 전하는 프로그램이다. 명상과 쉼 중심의 실천 활동을 결합해 심리정서적 안정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올해에는 전국 불교기관과 사찰을 중심으로 약 2800여 명이 참여했다. 법회는 불교계의 명상 수행을 사회적 자살예방 활동과 연결하는 새로운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안윤지 무용가, '향무'로 울림 전한다
〈香舞〉

12월 14일, 양산문화예술회관서



전통춤의 정중동(靜中動) 미학을 기반으로 수행적 움직임을 탐구해 온 안윤지 무용가〈사진〉가 12월 14일 오후 5시 양산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신작 '향무(香舞)'를 무대에 올린다.

안윤지 무용가는 "'향무'는 보이지 않는 실체 속에서도 진리를 느낄 수 있다는 의미를 담아낸 표현"이라며, 이는 생전에 '향성(香聲)' 개념을 통해 향기와 소리의 울림으로 진리의 자리를 비유했던 경봉 스님의 사유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무대는 불교적 상징성이 뚜렷한 승무(이매방류)를 비롯해 살풀이춤(이매방류), 부채춤, 민요, 화선무, 아쟁산조, 진도북춤 등 7개 작품으로 구성된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백제 미소’ 원찰 보원사, 천년을 깨우다

11월 29일, 장경각 불사 기공식
오층석탑 국보 승격·승방지 발굴
역사 가치 조명…중창 불사 첫발

유재상 충청지사장



내포가야산보원사는 11월 29일 보원사지 일원에서 ‘보원사 장경각 건립 기공식’을 개최했다.

‘백제의 미소’ 원찰이자 통일신라시대 화엄십찰 중 하나인 서산 보원사의 1000년 역사를 깨울 불사가 시작됐다. 최근 보원사지 오층석탑의 국보 승격 예고와 고려 최대 승방지 발굴 등의 성과와 맞물려 진행되는 중창불사로 보원사의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고 옛 위상을 복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내포가야산보원사(운영위원장 정경 스님, 주지 단경 스님)는 11월 29일 보원사지 일원에서 ‘보원사 장경각 건립 기공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덕숭총림 수덕사 방장 달하 우송 대종사와 수덕사 주지 도신 스님,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과 호계원장 정묵 스님, 내포가야산보원사 성역화추진위원장 정범 스님과 불사도감 정경 스님 등 지역 스님들과 이완섭 서산시장, 박정주 행정부지사, 조동식 서산시의회 의장, 성일종 국회의원, 수덕사 신도 등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도신 스님은 환영사에서 “그동안 임시 법당과 요사채로 신행을 이어 오던 보원사가 이제 전통 가람의 위의를 갖추고 부처님의 혜명을 잇게 되는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의미를 짚었다.

스님은 “우리 수덕사 대중들이 보원사의 역사적 가치 회복을 위한 성역화와 중창불사를 발원한 것은 무려 1978년부터로, 긴 시간이 걸렸지만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그 첫발을 내딛게 됐다”며 “새로운 서해안 1000년의 역사를 시작하고 있는 이 순간, 환희와 무거운 책임감이 함께한다. 보원사가 시대가 요구하는 종교적·사회적 역할을 다하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경 스님은 장경각 건립 경과보고에서 2012년 서산시와 수덕사의 업무협의체 구성 이후 2021년 보원사지 정비 용역 결정, 2023년 장경각·관리동 건립 합의, 2024년 설계 보조금 확정과 설계사 선정, 올해 기본·실시설계 승인과 토지 매입·교환 완료, 시공사 선정 등까지의 주요 진행 과정을 상세히 설명했다. 또 최근 확인된 오층석탑 국보 승격 예고와 고려 철불 반환 논의에 대해 “전통문화 보존을 위해 노력해 온 분들의 정성과 의지가 오늘의 결실을 이끌었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축사에서 “보원사는 오랜 세월 역사의 중심 역할을 해 온 공간”이라며 “이번 중창불사로 보원사가 시민과 방문객의 마음을 다독이고 희망을 주는 도량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주 행정부지사는 “오층석탑 국보 지정 예고를 계기로 전국적 관심이 확대됐고 앞으로 방문이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동식 서산시의회 의장은 “장경각 건립이 지역과 불교계를 잇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완공까지 지속적으로 함께할 뜻을 전했다. 성일종 국회의원은 “이번 불사는 사찰의 중건을 넘어 역사 복원과 미래를 여는 대역사”라고 강조하며 스님·연구자·행정 관계자들의 헌신에 감사를 전했다.

이어 달하 우송 대종사의 정근과 축원이 울려 퍼지자 참석 대중은 관음정근을 하며 장경각 건립과 중창불사의 원만 성취를 발원했다. 또 불사에 뜻을 모은 참석자들이 첫 삽을 뜨며 보원사가 다시 시대의 도량으로 우뚝 서기를 기원했다.

보원사는 장경각에 이어 승실, 연구동 등을 순차적으로 건립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신행 공간이 정비되고 방문자 시설이 마련되면 보원사는 백제·통일신라·고려로 이어지는 역사적 흐름을 품은 도량이자 서해안 시대의 정신·문화 중심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대강백 운허 스님 가르침 계승하겠습니다”

봉선사, 11월 29일 운허 스님 45주기 및 건당식



조계종 제25교구본사 봉선사(주지 호산 스님)는 11월 29일 경내 청풍루에서 ‘운허당 용하 대종사 시적 제45주기 기신재 및 입실 건당식’을 봉행했다.〈사진〉 이날 행사는 일생을 역경 사업과 인재 양성, 독립운동에 헌신했던 운허 스님의 위업을 기리고 후학들이 그 정신을 계승하고 다짐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법회에는 봉선사 조실 밀운 부림 대종사를 비롯해 원로의원 두산 일면 대종사, 봉선사 주지 호산 스님, 능엄학림 학장 취봉 정원 대종사, 원로 청허 화범 대종사, 수월 무착 대종사 등 문도 스님들과 사부대중 500여 명이 참석했다.

운허 스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는 기신재에 이어 봉행된 ‘입실 건당식(入室 建幢式)’에서는 봉선사의 법맥이 새로운 세대로 이어졌다. 건당식에서는 어산어장 인묵 스님에게 지경 스님이, 전 불암사 주지 법일 스님에게 관무 스님이 각각 법을 청하며 건당 제자로 입실했다. 건당 제자들은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전법의 길을 걸을 것을 서원하며 스승에게 삼배를 올렸고, 스승은 제자에게 가사와 발우를 전하며 수행 정진을 당부했다.

조실 밀운 스님은 법어를 통해 “수행자의 본분을 잊지 말고, 인천(人天)의 사표가 되어 널리 중생을 이롭게 하라”고 격려했다.

오후에는 진접푸른숲도서관 공연장에서 남양주 진접 지역의 3·1 만세운동 역사를 소재로 한 창작 뮤지컬 ‘그날’이 무대에 올랐다.

봉선사 주지 호산 스님은 “스님들은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나라를 구하는 호국불교의 전통을 이어왔다”며 “오늘 이 자리가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역사의식을 심어 주고,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는 배움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하동규 경기북부지사장

남해 보리암, 고산당 혜원 대종사 사리탑 제막

11월 29일, 제막식 봉행
“수행 전통 굳건히 계승을”


남해 보리암은 11월 29일 고산당 혜원 대종사 사리탑을 제막했다. 사진은 인사말을 하는 보리암 주지 성조 스님.

남해 보리암(주지 성조 스님)이 선대 조실 고산당 혜원 대종사 사리탑을 조성하고 스님의 수행 전통 계승을 서원했다.

11월 29일 보리암에서 열린 ‘고산당 혜원 대종사 사리탑 제막식’에는 스님의 제자인 보광 대종사와 덕민 대종사를 비롯해 쌍계사 회주 영담 스님, 쌍계사 주지 지현 스님, 보리암 주지 성조 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1부 점안 의식에 이어 2부 제막 법요는 삼귀의, 헌향, 헌다, 헌화, 반야심경 봉독, 축사, 덕민 대종사의 비문 해석, 공로패 수여, 인사말, 부도탑 오색사 커팅 순으로 진행됐다. 보리암은 이날 사리탑 조성에 기여한 김한열 보광석재 대표와 손종복 불자, 이남철 신도회장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성조 스님은 인사말에서 “큰스님으로부터 금산 보리암은 천지의 기운이 모인 성지이니 작은 돌 하나라도 함부로 건드리지 말라는 당부를 세 번이나 들었다”고 회고하며 “그 말씀을 지키고자 사리탑의 자리·모양·배치를 정하는 모든 과정이 조심스럽고 무거웠다”고 설명했다. 이어 “더 넉넉하게 모시지 못한 마음의 빚이 있지만 평생의 정성과 마음을 다해 사리를 봉안했다”며 “참배하는 모든 분들이 경건한 마음으로 예를 갖추어 달라”고 당부했다.

영담 스님은 “오늘 사리탑 제막은 후학들이 따를 길을 밝혀 주는 수행의 이정표”라며 “대종사께서 남기신 청정 수행과 가풍이 다시 살아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또 “보리암이 앞으로도 수행과 기도의 도량으로 더욱 빛나길 바란다”고 축원했다.

보광 스님은 법문에서 “우리 삶의 고통은 외부 요인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지은 업에서 비롯된다”며 “남 탓을 멈추고 자신을 바로 보는 것이 수행의 첫걸음”이라고 설했다. 이어 “부처님 사리는 육신이 아니라 자비·정진·깨달음의 상징”이라 강조하며 “사리를 친견하는 순간이 곧 본받겠다는 서원이며 수행의 출발점”이라고 일깨웠다.

덕민 스님은 비문에 새겨진 혜원 스님의 수행 행적과 보리암의 역사를 상세히 소개하며 “이번 불사는 여러 기관과 신도들의 정성이 모여 성취된 공덕이다. 부족했던 점이 있었다면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달라”고 양해를 구하며 대중의 안녕을 기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보리왓 보리수어린이합창단 정기공연

11월 28일, 설문대문화회관



보리수어린이합창단은 11월 28일 제주 설문대여성문화회관에서 정기공연 ‘보리수 아름다운 인연 그 길을 따르리라’를 개최했다.〈사진〉 이날 행사에는 합창단 지도법사인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장 성원 스님과 조계종 미디어홍보실장 덕안 스님, 선림사 진학 스님, 시원암 주지이자 천진불어린이합창단 총괄국장 도진 스님 등이 참석했다.

합창단원 26명은 무대에 올라 올여름부터 정성껏 갈고 닦은 합창 실력을 바탕으로 ‘아름다운 인연’, ‘그 길을 따르리라’, ‘보물’, ‘시즌 오브 러브(Season of Love)’ 등을 불러 관객들의 박수와 호응을 받았다. 특히 ‘아름다운 인연’은 지도법사 성원 스님이 작사를 맡아 의미를 더했다.

성원 스님은 인사말에서 “법당에서 노래를 배우며 배려와 존중, 부처님의 가르침, 가사 의미를 되새기는 마음공부까지 함께 이뤄 온 소중한 결실”이라고 격려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마이산 탑사 가을 산신대재 성료

11월 28일, 탑사 돌탑군서



신비의 돌탑군으로 국가지정문화유산 명승으로 지정된 마이산 탑사(회주 진성 스님)가 을사년 가을 산신대재를 봉행했다.〈사진〉

11월 9일 마이산 탑사 돌탑군 앞에 전국각지에서 생산된 공양물과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될 자비의 쌀이 진설된 특별법단에서 봉행된 산신대재는 원융회장 일로 스님, 태고종 전북교구종무원 부원장 현진 스님, 진성문도회 정진·마정·정륜·정념 스님 등 사부대중 300여 명이 동참했다.

진성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자비심으로 어려운 이웃에게 공양미를 나누는 것은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것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념법회에서 (사)붓다봉사단은 복성산업개발의 후원으로 마련한 자비의 쌀 3톤(1000만원 상당)을 진안군에 전달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담양 용흥사 면면, ‘산중문답’으로 전하다

11월 29일 인문콘서트 진행
예술 · 불화 · 명상 결합 법석



담양 용흥사(주지 덕유 스님)가 사찰 문화유산을 중심으로 전통예술과 명상, 인문적 사유를 결합한 특별한 가을 무대를 열었다.

담양군문화재단은 11월 29일 용흥사 대웅전과 보제루에서 ‘2025 담양 인문콘서트 산중문답(山中聞答)’을 개최하고, 동종(보물)과 사찰 공간의 울림을 전통공연예술과 함께 전달하는 시간을 마련했다.〈사진〉

이번 행사는 1644년 조성돼 현재 보물로 지정된 용흥사 동종을 중심으로, 사찰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현대적으로 조명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행사에는 호국사 동천 스님, 덕유 스님을 비롯해 담양지역 예술인과 신도 등 200여 명이 동참했다.

첫 무대는 동종이 모셔진 대웅전에서 열린 ‘명금(鳴金)’으로 시작됐다. 주지 덕유 스님의 타종과 함께 사물 타악기의 연주가 어우러지며 용흥사 동종의 깊고 웅장한 울림이 현장을 채웠다.

이어 연희단팔산대의 판굿, 전통타악시나위 등이 펼쳐졌다. 보제루에서는 국가무형문화유산 불화장 전승교육사 이채원이 동종에 새겨진 보살입상을 재현하는 ‘명선(鳴線)’ 퍼포먼스를 비롯해 주지 스님의 화답, 채상소고춤이 이어졌다.

참가자들은 백양사 천진암 사찰음식 명인 정관 스님이 마련한 사찰음식을 나누며 회향의 시간을 가졌다.

주지 덕유 스님은 “오늘 타종의 울림이 산중에만 머무르지 않고 널리 퍼져, 모두의 소원이 성취되는 인연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선운사 첫 단기출가학교 회향

11월 30일 회향식…11명 수료
범어사, 진관사 등도 진행 예정



선운사의 첫 단기출가학교가 9박 10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11명의 수료자를 배출하며 11월 30일 회향했다.

조계종 제24교구본사 선운사(주지 경우 스님)는 11월 30일 대웅보전에서 제1기 단기출가학교 회향식을 개최했다.〈사진〉 ‘쉼, 그리고 시작’을 주제로 9박 10일간 진행된 이번 출가학교에는 남행자 6명과 여행자 5명 등 총 11명이 입교해 일정을 수료했다.

특히 14살 학생부터 66살 어르신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이들은 일정 동안 새벽 4시에 기상해 새벽예불을 시작으로 사찰예절과 목탁 예불습의, 참선 등을 익히고 부처님 생애, 〈초발심자경문〉, 〈반야심경〉 등을 배웠다.

회향식에서 주지 경우 스님과 본말사 대중 스님들은 참가자들에게 수료증을 전달하며 자비와 지혜의 길을 굳건히 닦아 나가기를 축원했다.

경우 스님은 치사에서 “출가학교를 나선 뒤에도 이곳에서 배운 ‘한 번 더 돌아보는 마음’, ‘한 번 더 멈추는 숨’, ‘한 번 더 자비를 선택하는 지혜’가 삶에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수료생들은 발원문을 통해 “수행 과정에서 배운 마음 챙김과 지혜를 일상에서도 실천하며 지혜와 자비를 잊지 않고 베풀겠다. 돌아가는 일상에서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모든 순간에 드러내겠다”고 서원했다.

조계종 교구본사 단기출가학교는 지난 9월 문을 연 덕숭총림 수덕사 선출가학교와 이번 선운사 출가학교에 이어 12월에는 금정총림 범어사, 내년에는 속초 신흥사와 서울 진관사에서도 열릴 예정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가무악극 ‘사명당 아리랑’ 초연

11월 29일 밀양아리랑아트센터…사명 대사 정신 되새겨



사명 대사의 호국·평화 정신을 기린 가무악극 ‘사명당 아리랑 – 한비(汗碑)’가 11월 29일 밀양아리랑아트센터 대공연장에서 첫선을 보였다.〈사진〉

밀양아리랑예술단(단장 김금희)이 제작한 ‘사명당 아리랑’은 나라에 큰 변란이 있을 때마다 땀을 흘린다는 표충비 ‘한비’를 모티브로, 사명 대사의 삶과 전란 속에서 승병을 이끌며 나라를 구한 구국 행적을 압축적으로 재구성한 가무극이다.

밀양불교연합회장 진각 스님(표충사 주지)은 축사에서 “승려의 신분으로 나라를 지키고 전쟁 후에는 외교로 평화를 이끈 사명 대사의 업적이 다시 조명돼야 한다”며 “이번 창작극으로 사명 대사의 고귀한 정신이 밀양을 넘어 전국에 알려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만암 스님 화합 리더십, 韓사회 공공자산”

장성 백양사·고불총림연구원 ‘정화운동과 고불총림’ 세미나
금강 스님 ‘만암 정화론’ 조명
만암 스님, ‘통합’에 중점 둬
화합 방점…합리적 대안 제시
“갈등 극복 위한 리더십 모범”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조계종 제18교구본사 백양사와 고불총림연구원은 11월 28일 동국대 문화관 덕암세미나실에서 ‘정화운동과 고불총림’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은 중앙승가대 교수 금강 스님의 발표 모습.

현대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선지식 만암 종헌 대종사(曼庵 宗憲, 1876~1957)가 정화운동 시기에 보인 정화론과 리더십의 면면을 조명하는 연구 논문이 발표됐다.

조계종 제18교구본사 백양사(주지 무공 스님)와 고불총림연구원(원장 금강 스님)은 11월 28일 동국대 문화관 덕암세미나실에서 ‘정화운동과 고불총림’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세미나에서는 불교 정화운동 연구 회고 및 전망과 만암 스님의 정화론, 종사 인식 등을 조명한 연구 논문들이 발표됐다.

특히 중앙승가대 교수 금강 스님(고불총림연구원장)은 ‘만암 스님과 정화운동’을 통해 만암 스님의 정화론과 리더십의 면면을 살펴 눈길을 끌었다.

금강 스님에 따르면 해방 이후 왜색불교 철폐를 강조하며 진행된 정화운동에서 만암 스님은 ‘급진’보다는 ‘점진’, ‘즉각적 청산’보다는 ‘통합적 개혁’에 방점을 뒀다. 이는 당시 대처승이 우세였고, 종단 내부 갈등이 있던 한국불교의 현실에 기반한 것이었다.

만암 스님은 비구승에게 주요 사찰을 할애하고 사찰 운영을 맡겨서 승가의 중심축이 서서히 비구로 전환하고 동시에 대처승의 법맥이 당대에 자연적으로 단절될 수 있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계율을 수호하고 청정을 유지한 비구승은 ‘정법중(正法衆)’으로, 대처승은 ‘호법중(護法衆)’으로 구분하고 ‘호법중’은 포교와 교화의 임무를 맡도록 했다.

금강 스님은 “정법중과 호법중의 구분은 대처승을 배제하기보다는 역할을 구분하고 재정립해 화합과 공존을 모색한 통합적 정화모델이었다”면서 “이 같은 만암 스님의 통합적 정화론은 이판사판의 불교 전통 모델에 기초한다. 이를 통해 스님은 사부중에 호법중을 더해 5부중 모델을 제안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정화론을 바탕으로 금강 스님은 막스 베버의 지배유형론에 근간해 만암 스님의 리더십을 분석하기도 했다. 금강 스님은 전환기 한국불교에서 보여진 만암 스님의 리더십은 △합리성 △통합 △실천성에 기반하고 있음에 주목하며 “만암 스님의 리더십은 점진성과 합리성, 교단화합을 기반으로 한 합리적·법적 지배로의 이행을 지향하는 리더십”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금강 스님은 만암 스님의 정화론과 리더십을 현대 한국불교와 한국사회가 주목해야 함을 역설했다.

스님은 “오늘날 한국사회가 직면한 갈등은 단순한 의견 차이나 가치 충돌을 넘어 사회적 신뢰와 상호 인정의 붕괴라는 구조적 문제로 심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암 스님의 리더십은 극단의 대립에도 포기하지 않았던 대화·조정·제도화의 실천적 지혜로서 오늘의 민주사회가 참고해야 할 공공적 자산”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만암 스님의 리더십에 대한 재조명은 한국불교의 미래뿐만 아니라 갈등 극복과 사회적 연대의 길을 모색하는 데에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강조했다.

해외불교는 지금

‘불교 극단주의’ 논란

민족주의적 목표 달성 위해
일부 출가자들 부추김 문제

평화와 비폭력의 가르침이 중심이 되는 불교. 그러나 최근 민족주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일부 지역에서 극단적인 출가자와 신도들이 폭력을 부추기는 모습들이 관측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1월 25일 영국의 ‘더 가디언’은 인도의 유명 저널리스트 소니아 팔레이로의 기고를 인용해 동남아시아에서 부각되고 있는 불교 극단주의에 대해 특별 보도했다.

불교는 근현대에 들어 서구세계와 활발한 교류를 이어 가며, 서구의 물질주의와 군비확장 등에 대한 대안으로서 비폭력과 내면의 평화를 추구하는 종교로 급부상했다. 그러나 2000년대에 이르러 스리랑카와 미얀마와 같은 동남아의 대표적인 불교 국가들에서 민족주의 단체들이 공포와 혐오 조장, 호전적인 조직 활동, 폭력 선동과 같은 전략을 채택하면서 불교를 이용하기 시작했다.

스리랑카에서 극우적인 민족주의 성향의 출가자들이 “소수 종교단체의 위협에서 불교를 보호한다”는 기치 아래 불교신도들을 결집시키면서 스리랑카 무슬림 소수민족은 물론 최근에는 스리랑카 기독교계에게도 공포의 상징이 됐다. 미얀마에서도 아신 위라투와 같은 극우적 성향의 출가자들이 로힝야족에 대한 증오를 부추기는 설법과 연설을 이어가면서 시민사회의 갈등을 조장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소니아 팔레이로는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해 “저들의 행동은 인종적 위계를 도입하고 특정 종교를 다른 종교보다 우선시하는 식민주의와 같은 역사적 요인에 의해 부분적으로 형성된 것”이라며 “특히 경제적 불평등은 이러한 긴장을 심화시켜 대중이 종교에서 위안을 찾도록 만들었고, 결과적으로 승려들에게 불균형적인 사회적·정치적 영향력을 부여했다. 이러한 양상은 세계 다른 지역에서도 나타나는 양상”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지난 2014년 불교 극단주의자들이 주도한 반이슬람 폭동에서도 알루스가마 지역의 경우 스리랑카 불교 극단주의의 지도자로 불리는 그나나사라 스님이 방문한 직후 폭동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됐다. 그러나 무슬림들이 소유한 상점과 가옥들이 공격을 받고, 무슬림들에 대한 집단 구타 등이 다수 보고 됐음에도 사망자 수가 적었던 것에 대해 “무슬림들에 대한 경제적 시기심과 갈등이 주요 이유”라고 소니아는 지적했다. 그는 “최근 스리랑카의 불교 극단주의는 힌두교나 무슬림을 넘어 기독교계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기독교 성직자들이 공격을 받거나 교회가 테러를 당하는 사건이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다”고 우려를 전했다.

이에 대해 그나나사라 스님은 “우리는 폭력을 쓰지 않는다. 사람들이 그렇게 볼 뿐이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문화와 정체성을 지켜 내야 한다”라며 자신이 세운 단체인 ‘불교도의 힘 군대(BBS)’는 비폭력주의를 우선으로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더 가디언은 “그는 한 BBS 집회에서 ‘이 나라엔 싱할라 경찰과 군대가 있다. 단 한 명의 무슬림이나 다른 소수민족이 싱할라족에 손을 댄다면 그것을 그들의 종말이 될 것’이라 연설한 바 있다”고 밝혔다. 박영빈 객원기자


2018년 반무슬림 폭동에서 테러를 당한 스리랑카 무슬림의 가게를 둘러보는 경찰들.
사진 출처=더 가디언



법인 스님의 **문자반야**

분노에 휩싸일 것인가, 바라볼 것인가

㉑ 진(瞋)

瞋

2002년, 현대의 선지식이었던 베트남 틱낫한 스님의 저서 〈화〉는 우리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는 ‘화’가 인간의 감정을 지배하고 관계를 좌우하는 핵심 심리 현상임을 보여 준다.

경전 곳곳에서도 분노의 해악을 강조한다. 〈증일아함경〉은 “분노는 먼저 자신을 태우고 그다음 상대를 태운다”라고 설한다. 한순간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 거친 언사와 행동을 쏟아 내는 분노는 쌓아 온 공덕의 숲을 태워 버린다. ‘분노의 불길’이라는 표현이 이를 상징한다. 진심(瞋心)은 삼독 가운데 하나다.

아비달마 불교에서는 마음의 현상을 다섯 범주와 75개 요소로 분석하며, 분노를 탐욕[貪]·어리석음[痴]·교만[慢]·의심[疑]·잘못된 견해[惡見]와 함께 여섯 근본 번뇌 중 하나로 본다. 그만큼 분노는 고통과 불행을 짓는 주춧돌과 같은 번뇌다.

동서고금의 성인과 사상가들도 분노를 다스리는 법을 일러 왔다. 로마 제국의 오현제이자 철학자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타인의 잘못에 화가 날 때 ‘나 역시 불완전한 존재’임을 먼저 떠올리라고 말한다. 그는 분노를 품는 것은 타인의 잘못으로 스스로를 벌하는 것이라 했다. 성경 〈에베소서〉에서도 “분노하더라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 있지 말라”라고 가르친다. 분노는 피할 수 없는 마음 작용이지만 오래 붙들지 말라는 뜻이다.

문명이 팽창하고 경쟁이 극심해질수록 자기 억압과 분노의 강도는 높아진다. 우울증·자살·무차별적 폭력 등 여러 정신병리의 기저에도 분노가 있다. 그래서 다양한 마음 치유 프로그램이 등장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분노를 어떻게 바라보고 다스리며 마음의 근력을 키울 수 있을까?

붓다는 분노가 실체 없는 ‘조작된 것’임을 통찰하라고 한다. 위빠사나 수행은 분노가 불변의 속성이 아니라 원인과 조건이 모여 ‘만들어진 것’임을 관찰하게 한다. 즉 분노는 영원하지도, 고정되지도 않는 비실체적 현상이다.

분노의 일시적 성질은 〈숫타니파타〉의 가르침에서도 드러난다. “분노가 일어날 때 ‘나는 화가 났다’라고 말하지 말고, ‘화가 일어났구나’하고 알아차리라.” 이는 ‘분노’와 ‘나’를 동일시하지 않고 잠시 일어난 현상으로 관찰할 때 그 힘이 약해진다는 뜻이다.

불법(佛法)의 근간은 연기법이다. 분노 역시 연기의 이치로 관찰하고 다스려야 한다. 분노를 일으키는 상황을 만들지 말 것, 이미 일어난 분노는 침착하게 바라보고 다스릴 것, 연민과 자애를 마음에 심어 꾸준히 가꿀 것. 몸과 마음이 자비심으로 충만할 때 분노는 자연스럽게 소멸한다.

〈화순 불암사 주지〉



현시대에 맞게 되살린 붓다의 가르침!
불교 이후
세계적인 불교 사상가 스티븐 배철러가 전통적인 불교 해석을 넘어 우리 시대, 현시대에 맞게 불교를 새롭게 이해할 수 있는 도전적이고 신선한 시각을 제시한다.
스티븐 배철러 지음, 강병화 옮김, 신국판, 532쪽, 값 30,000원

업과 윤회에 대한 알기 쉬운 입문서!
업이란 무엇인가
불교의 업사상이 어떻게 형성되고 발전해 왔는지를 추적하고, 그것이 지닌 현대적 의의에 대해 성찰하는데, 다양한 경전과 설화를 인용해서 이해를 돕는다.
히라오카 사토시 지음, 법장 옮김, 신국판, 256쪽, 값 18,000원

세계적인 명상 스승과의 문답!
불교와 명상, 마음챙김으로 살아가기
현대 최고의 마음챙김 스승 중 한 명으로 꼽히는 반테 G.(애칭) 스님이 지난 반세기 동안 주고받은 다양한 대화를 간결하게 집대성하여 20개의 주제로 엮었다.
헤네폴라 구나라타나 지음, 박경미 옮김, 신국판, 384쪽, 값 24,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수행, 치유명상 아닌 지혜성취 실천과정”

11월 29일 제24회 밝은사람들 학술연찬회

정준영, 수행–현대 명상 고찰
치유 위한 명상, 계 · 혜는 배제
수행, 치유 아닌 해탈지혜 초점

“일방적 서구 마음챙김 수용보다
삼학, 불교교리 전할 수 있어야”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오늘날 명상의 열기가 뜨겁다. 하지만 ‘수행’의 본래 의미를 모르고 ‘명상’에만 집착한다면 ‘명상’을 자칫 행복하고자 하는 갈애의 불쏘시개 정도로 전락시킬지도 모른다.”

현대 심리치료에도 활용되고 있는 치유로서의 ‘명상’은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과는 그 방향성과 목적이 완전히 다르다는 비판적 주장이 제기됐다.

정준영 서울불교대학원대학 교수는 11월 29일 동국대 본관 남산홀에서 열린 ‘제24회 밝은사람들 학술연찬회’에서 발표한 ‘수행과 명상의 현대적 의미’를 통해 초기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수행과 현대적 명상을 비교·고찰했다.

정 교수는 초기불교 ‘수행(bhāvanā)’ 구조를 분석하고 그 최종 목표가 해탈(대자유)에 이르는 ‘지혜(paññā)’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도리어 명상의 과정에서 일어난 황홀경이나 평온함을 초기불교에서는 경계했다는 게 정 교수의 설명이다. 색계에서 선정의 단계를 말하는 ‘사선정(四禪定)’에서도 초선-이선-삼선-사선으로 단계로 깊어질수록 희열, 즐거움과 같은 일체 욕구들은 사라지고 고요함만이 남게 된다. 붓다가 제자들에게 집중을 닦으라고 권한 이유 역시 “집중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마음이 집중되면 현상을 있는 그대로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초기불교에서 말하는 ‘수행’은 “(계정혜)삼학으로 윤리성을 갖춰 집중의 마음을 개발하고 번뇌를 제거해 해탈에 이르는 성장과정”이기에 심리적 안정, 힐링, 스트레스 완화에 초점이 맞춰진 실용적 수단으로서 현대의 ‘명상’은 ‘수행’을 대변할 수 없다는 게 정 교수의 주장이다.

기법에만 매몰된 현대의 명상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선정(禪定)이 깊어질수록 즐거움이 아닌 소멸로 나아가야 하지만, 현대의 명상들은 집중에 매몰돼 정학(定學)의 일부인 ‘바른 마음챙김[正念]’ ‘바른 집중[正定]’의 의미로부터 멀어져 있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초기경전에서 나타나는 위치와 맥락을 파악하기보다 마음챙김과 집중이라는 기제가 지니는 특징 자체에 주목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과정에서 마음챙김은 지혜와 조화를 잃었고 집중은 마음챙김, 알아차림과 분리됐다. 특히 계학(戒學)과 혜학(慧學)은 명상의 실천에서 종종 소외되기도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밝은사람들연구소는 11월 29일 동국대 남산홀에서 ‘제24회 밝은사람들 학술연찬회’를 개최했다. 정준영 교수가 ‘수행과 명상의 현대적 의미’를 발표하고 있다.

이어 “명상의 연구방향도 마음챙김이라는 단일 요소의 효과를 집중적으로 검증하면서 ‘명상은 곧 마음챙김’이라는 인식이 강화되고, 명상은 ‘마음챙김의 기술’로 축소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면서 “결국 현대의 마음챙김 명상은 초기불교의 통합적 수행체계와 달리 정학의 일부만을 강조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마음챙김 명상에 대한 비판적 논의는 서구 대승불교 학자들을 중심으로도 집중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한국에서도 출간된 〈마음챙김의 배신(원제:McMindfulness)〉의 저자 로널드 퍼서는 “현대 마음챙김 명상이 ‘혁명’이 아니라 산업화된 프랜차이즈 명상으로 변질됐다”고 지적하며, “미얀마 마하시 사야도의 수행법에서 일부분만 추출해 치료적·심리학적 맥락에 맞게 재구성됐다”고 비판하고 있다.

정 교수는 “‘수행’이 갖고 있는 계정혜 삼학의 구조를 통해 서구 심리치료적 명상의 한계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하다”면서 “서구 명상 치료시스템들을 받아들이는 데 급급하기보다는 그들에게 불교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제공하는 장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초기불교 수행은 신체적·심리적 건강 증진을 넘어서 인간 존재의 근본적 변형과 해탈을 추구하는 실천적 여정”이라며 “현대적 명상이나 심리치료적 명상과의 접점에서 삼학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불교 본래의 수행구조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명상의 본질을 집중을 통한 치유가 아닌 통찰과 지혜의 성장에 두는 태도 역시 요청된다”고 제언했다.

이날 연찬회는 밝은사람들연구소(소장 박찬욱, 이하 연구소)가 ‘수행’을 주제로 2027년까지 3년 동안 진행되는 ‘3년 학술연찬결사’의 첫 번째 행사였다.

첫 주제인 ‘수행, 초탈인가 치유인가’로 열린 이날 연찬회에서는 정 교수를 비롯해 한산사 용성선원장 월암 스님이 ‘조사선의 깨달음과 수행’, KAIST 명상과학연구소장 미산 스님·엄성민 데이터리퍼브릭 대표가 ‘불교수행과 명상과학: 초탈과 치유의 메타 융복합적 통합’, 성혜영 서울대 종교학과 교수가 ‘신성한 독서(lectio divina)와 수행 전통의 통합적 이해’, 권석만 서울대 심리학과 명예교수가 ‘구도적 수행의 심리학’을 각각 발표했다.

올해 연찬회가 ‘수행’의 면면을 큰 틀에서 다뤘다면 내년부터는 세부적인 접근이 이뤄진다. 2026년 11월에 열릴 연찬회에서는 ‘지관, 함께 하나 따로 닦나’를 주제로 초기·대승불교와 티베트·중국·한국불교, 종교학, 심리학 등의 관점에서 불교 수행의 핵심인 지관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2027년 11월 개최되는 연찬회에서는 ‘간화, 전통의 계승인가 창발적 혁신인가’를 주제로 초기·선불교와 불교학, 종교학, 심리학 등의 연구를 통해 간화선의 면면과 그간의 연구 현황들을 조명할 계획이다.

태평소 전문 교육·전승 위한 보존회 창립

벽응 스님계 태평소 보존회
12월 3일 창립총회 개최해
“불교 소리, 가락 전승할 것”

영산재 등 불교전통의식의 작법과 이운에 필수적 악기인 태평소(太平簫)의 체계적 교육과 전승을 위한 보존회가 출범했다.

태고종(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12월 3일 서울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1층 회의실에서 ‘벽응 스님계 재(齋) 태평소 보존회(이하 태평소 보존회)’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창립총회에는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을 비롯해 불교문예원장 지허 스님, 영산재 전승 교육사 일운 스님, 영산재보존회장 현성 스님, 교육원장 재홍 스님 등과 보존회원 스님 등이 참석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지허 스님이 보존회 초대회장으로 선임됐으며 고문으로는 상진 스님, 일운 스님, 원허 스님(영산재 이수자)이 위촉됐다. 자문위원으로는 현성·석봉·수봉·능화·영산·호산·원봉·성천 스님 등 중앙과 지역에서 영산재, 수륙재, 예수재 등을 전승하는 보존회장들이 참여했다. 전문위원으로는 위재영 피리정악 및 대취타 이수자, 박미은 삼현육각 이수자가 이름을 올렸다.



태고종은 12월 3일 서울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1층 회의실에서 ‘벽응 스님계 재(齋) 태평소 보존회’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총회 직후 진행된 기념촬영.

보존회장 지허 스님은 “1993년 신촌 봉원사에서 호적(胡笛, 태평소) 특강을 열렸고, 벽응 스님에게 가르침을 받았다. 당시 스님께서는 ‘자네만 알지 말고 후학들에게 반드시 전하라’고 말씀하셨고 이를 잊은 바 없다”면서 “그럼에도 벽응 스님의 소중한 불교 가락이 사라질 위기여서 안타까웠는데 보존회가 발족하게 돼 감개무량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앞으로 벽응 스님 선양 사업과 태평소 보존과 전승에 힘쓰겠다. 많은 분들이 회원으로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상진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범패에도 고하자가 있듯이 음이 맞지 않으면 그 음은 송불(送佛)이고 그 음이 맞으면 염불(念佛)이다. 호적도 염불이 되도록 잘 맞춰야 한다”면서 “태고종은 불교의례의식의 뿌리를 가졌다. 이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뿌리를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일운 스님은 축사에서 “벽응 스님은 태평소뿐 아니라 다방면에서 후학들에게 귀감되는 훌륭한 어른이었다”며 “많은 스님이 불교의식에 필수적인 악기인 태평소를 정확하게 배워 전통문화를 전승하는 데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향후 보존회는 월1회 무료교육을 시행해 태평소를 알리는 데 힘쓸 계획이며, 회원들에게는 2년 과정의 전수교육 강좌도 운영한다.

한편, 벽응 스님(1909~2002)의 태평소 음악(대취타·염불·천수·요잡)은 영산재나 예수재, 수륙재 등 태고종이 보유한 무형문화유산의 시연에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신중일 기자

임란 비켜간 ‘안성 청원사 대웅전’ 보물된다

국가유산청 12월 1일 지정예고
조선 초 건축양식 담겨 가치↑


보물로 지정예고된 안성 청원사 대웅전.

임진왜란의 화마를 비켜가 조선 초기 건축양식을 간직한 안성 청원사 대웅전이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된다.

국가유산청(청장 허민)은 “고려 말에서 조선시대로 이어지는 건축형식과 시대적 변화 양상을 보여 주는 ‘안성 청원사 대웅전’을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고 12월 1일 밝혔다.

‘안성 청원사 대웅전’은 창건연대가 명확하지 않으나 1854년(철종5년) 대웅전의 공사 내용을 담고 있는 상량문을 통해 그 이전에 건립된 건물임을 알 수 있다. 포작의 세부 장식이나 구성수법 등을 통해 건립연대를 조선전기로 추정할 수 있으며, 수종 분석과 연륜연대 분석을 통해 15세기의 부재로 특정할 수 있다.

국가유산청은 “임진왜란 이전에 건립돼 현존하는 건물 사례가 드물고 다는 점과 16세기경(약 1550년) 건축의 구성과 양식이 한 건물 안에 공존하고 있다”면서 “고려 시대 주심포계 공포가 조선 시대 익공계 공포로 변화·정착해 가는 과도기적 단계를 잘 보여 줘 학술·예술적 가치가 높다”고 평가했다.

한편, 보물로 지정예고된 안성 청원사 대웅전은 30일간 의견을 수렴한 후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물 지정여부가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신중일 기자

원주전통판화공모 대상에 권혜정 작가

명주사 고판화박물관 주최
10명 판화 인출 명인 배출


제13회 원주전통판화공모전 대상 수상자 권혜정 작가.

판화 인출 장인을 배출하기 위해 열리는 원주전통판화공모전의 올해 대상에 권혜정 작가가 선정됐다.

원주 명주사 고판화박물관(관장 한선학)은 “국내 유일 전통 인출 장인들의 향연인 제13회 원주전통판화공모전 대상(국가유산청장상) 수상자로 권혜정 작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대상 수상자인 권혜정 작가는 김각한 각자장의 전수교육생으로 11, 12회 공모전에서도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는 실력 있는 인출 장인이다. 특히 올해 수상작인 ‘수복강령 부귀다남문’과 ‘매헌집책판 인출본’은 “먹색의 농담 처리가 좋고, 불규칙적인 판면인데도 불구하고 먹색이 균형을 이루면서 정확하게 인출해 숙련된 기량이 돋보였다”는 게 심사위원들의 평가다.

이와 함께 △강원특별자치도지상인 최우수상에는 손석우 작가의 ‘문방사우호접덩쿨문’과 ‘청음선생년보 책판 인출본’ △원주시장상인 우수상에는 유태찬 작가의 ‘사격자만자원앙운용’과 ‘매헌집문집판’·윤수진 작가의 ‘사격자만자운학문’과 ‘성오당선생문집 책판 인출본’이 선정됐다. 고판화박물관장상인 장려상은 풍기성·이덕영·김현균·이동산·김지연·이종성 작가에게 돌아갔다.

한선학 고판화박물관장은 “판각과 인출은 판화·인쇄문화의 핵심으로 소외된 인출 기술의 보존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원주전통판화공모전이 계속 발전해 국가무형유산으로서 인출장 제도가 신설돼 한국 목판 인쇄술이 한층 더 발전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신중일 기자

‘민중불교운동’ 40년, 면면을 톺아보다

불교평론, 겨울호 발간… ‘민중불교’ 특집 다뤄

불교 대표 학술 계간지 〈불교평론〉 2025년 겨울호(통권 104호)〈사진〉가 발간됐다.

이번 겨울호에는 1980년대 한국사회의 민주화 열기 속에서 태동해 한국불교의 사회적 실천과 역사적 전환을 이끌어 낸 ‘민중불교운동’ 40주년을 맞아, 그 역사적 의의와 과제가 특집으로 집중 조명된다.

1985년 ‘민중불교운동연합(민불련)’의 창립은 불교가 산중에서 역사의 현장으로 걸어 나온 일대 사건이었다. ‘특집: 민중불교 40년과 현대 한국불교’에서는 당시 치열했던 운동의 전개 과정과 사상적 배경, 그리고 그것이 현대 한국불교에 미친 영향을 입체적으로 분석한다.

김영국 연경불교정책연구소장은 ‘민중불교란 무엇인가’를 통해 민중불교의 정의와 당시의 논쟁들을 재조명하며, 이병욱 불교평론 편집위원은 ‘역사 속에 나타난 민중불교’에서 대승불교와 삼계교, 원효 사상 등에 나타난 민중불교의 맹아를 추적한다. 이희선 정의평화불교연대 대표는 ‘민중불교운동의 태동과 전개’를 통해 1980년대 현장의 생생한 역사를 기록하며 김경호 지식정보플랫폼 운판 대표는 ‘민중불교가 현대불교에 끼친 영향’을 통해 민중불교가 불교 자주화와 사회 민주화에 기여한 성과를 평가한다. 이외에도 이혜숙 불교평론 편집위원장의 ‘동남아 참여불교의 민중적 성격’, 이명권 K-인문종교연구소장의 ‘민중불교와 민중신학’을 통해 불교의 사회적 실천을 비교·확장해 고찰한다.

‘사색과 성찰’에서는 ‘민중불교와 나’라는 주제로 당시 민중불교운동의 최전선에서 활동했던 12명의 회고를 담았다. 윤창화 민족사 대표, 이남재 합천평화의집 원장, 서동석 민불동지모임 대표, 최연 정의평화불교연대 상임대표 등 당시 활동했던 인사들의 육성을 통해 관념이 아닌 실천으로서의 불교가 어떻게 구현되었는지 생생하게 전달한다.



이 밖에도 ‘논단’에서는 박연주 동국대 대우교수의 ‘일본불교는 어떻게 전쟁을 반대했나’를 통해 전쟁과 종교의 관계를 성찰하고, 팔리문헌연구소장 마성 스님의 ‘율(律)은 절대적인가, 상대적인가’를 통해 계율의 현대적 적용 문제를 짚어 본다.

‘불교로 읽는 고전’에서는 안영훈 교수(경희대 국문과)가 중국 4대 기서 중 하나인 〈수호지〉를 불교적 관점-오탁악세에 대한 저항과 구원의 서사-에서 새롭게 해석하며 ‘세계의 불교학자’ 코너에서는 하타니 료타이와 미즈노 코겐 등 일본 근대 불교학의 거장들을 소개한다.

‘불교소설’에서는 〈덕혜옹주〉로 잘 알려진 권비영 작가의 단편소설 〈우물 속에 빠진 그것〉을 통해, 가슴 아픈 현실과 상처에 대한 위로와 치유의 메시지를 만날 수 있다.

신중일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12/3~12/9

불교전문서점 조계종출판사 불교전문서점 향전 제공 02)2031-207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나도 내 마음을 모를 때 불교심리학	보만	불광출판사
2	신심명 증도가	원순스님 옮김	법공양
3	참선수행자를 죽비로 후려치다	원택	장경각
4	스님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자현	조계종출판사
5	사유하는 불교 성지 순례	비구 허정	어의운하
6	기도 내려놓기	법륜	정토
7	우리말로 읽는 부처님 말씀 능엄경	원조 각성	비움과소통
8	정목스님의 아침편지 365	정목	김영사
9	고광 스님의 불교 도장 깨기	고광	불광출판사
10	마음의 향기를 품은 법구경	법구	나래북

불서총판 운주사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업이란 무엇인가	히라오카 사토시/법장	운주사
2	나도 내 마음을 모를 때 불교심리학	보만	불광출판사
3	요가디피카	아혱가/현천 역	선요가
4	치유하는 유식 읽기	서광스님 강의	공간
5	수행 초탈인가 치유인가	박찬욱 기획/한자경 편집	운주사
6	가장 행복한 공부	청화 지음	아시아문화커뮤니티
7	프리스틴 마인드	올갠 초왕 린포체/수연	운주사
8	탁깨달음의 대화	법륜	정토출판
9	붓다의 가르침	월폴라 라훌라/이형두	맑은소리맑은나라
10	법구경	식카와띠 위뽈라냐니	담마디빠

‘사산비명’ 천년의 언어를 오늘에 옮기다



정주사산비명 상·하

최치원 찬술 / 석전 스님 주해 / 조병활 역주 어의운하 / 각 권 2만7000원

대구·전고로 해독 어려운 명문
석전 스님의 한자 주석서 번역
방대한 역주·해설로 이해 도와
“고대 불교·금석문 연구에 도움”

여수령 기자 spero0821@hyunbul.com

명문(名文)은 시간이 흘러도 스스로의 빛을 잃지 않는다. 그러나 그 가치를 알아보는 이가 있을 때, 비로소 생명을 얻고 오늘의 언어로 다시 말을 건넨다.

신라의 명문장가 최치원(857~?)이 왕의 명을 받아 지은 ‘사산비명(四山碑銘)’이 대표적인 예다. 고대 불교사·사상사·한문학사·금석학사 연구에 매우 귀중한 자료지만 옛 문헌에 밝은 이라도 쉽사리 다가가기 어려울 만큼 난해하다. 비문(碑文) 한 편에 인용된 문헌이 40권이 넘을 정도인 데다 대구(對句)와 전고(典故)가 많이 사용되고 운율과 수사가 어우러진 변려문체(騈儷文體)로 쓰였기 때문이다.

이 난문을 풀기 위해 근세의 대강백 석전 영호(1870~1948) 스님이 16세기 이후의 방대한 주석서들을 정리·교감해 한문 주석서 〈정주사산비명〉을 저술했다. 이 귀중한 자료는 석전 스님의 전강 제자인 운기 성원(1898~1982) 스님을 거쳐, 운기 스님의 전강 제자인 혜남 스님(전 통도사 율주)에게 전해졌다. 이후 통도사 성보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던 〈정주사산비명〉을 이번에 조병활 불전연구원장이 우리말로 역주해 두 권의 책으로 펴냈다.

조 원장은 석전 스님의 〈정주사산비명〉에 실린 글 중 시와 주련 등은 제외하고 △지리산 쌍계사 진감 선사 대공령 탑비명 △월산 대숭복사 비명 △숭암산 성주사 대랑혜 화상 백월보광 탑비명 △희양산 봉암사 지증 대사 적조 탑비명 등 네 편만 번역했다.

그럼에도 책은 850페이지에 이른다. 엄청난 분량의 주석 때문이다. 상권에 소개된 ‘진감 선사 대공령 탑비명’의 원문과 역주문은 23페이지 분량이지만, 주석을 단 역주문은 80페이지에 달할 정도다. 원문의 협주·두주·각주 등은 ‘각주’로, 역주자의 주석은 ‘미주’로 처리했다. 또 각주에서는 글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역주자의 보충 설명’을 덧붙였다.



최치원의 ‘사산비명’ 중 하나인 ‘지증 비명’이 새겨진 ‘희양산 봉암사 지증 대사 적조 탑비’. 사진 제공=어의운하

특히 비명에 인용된 문장은 불교·도가·유가·역사·제자백가·기타류 등의 문헌 출처를 밝히고, 일일이 원문과 대조했다. 일례로 ‘춤추는 봉황[舞鳳]’과 ‘노래하는 난새[歌鸞]’란 구절에 대해 ‘역주자의 보충 해설’에서 인용서의 제목을 〈위지〉가 아닌 〈위서〉로 바로잡고, 해당 책에 같은 구절이 없음을 확인하고, 비슷한 내용이 담긴 글 육기의 ‘위 나라 무제를 애도하는 글’을 제시한 후, 정확한 단어의 출처를 밝히는 식이다.

또 비명과 주석문의 모든 한문 문장에 표점(標點)을 찍고, 단어를 우리말로 옮길 때는 가급적 쉬운 용어를 택해 가독성을 높였다.

조 원장은 “고전을 ‘수용’해 현대적으로 ‘변용’하고 역자의 언어적인 자립도를 제고하고자 번역에 도전했다”며 “〈정주사산비명〉은 통일신라 말 불교적·정치적·국제적 상황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자료일 뿐만 아니라 한국 고대사 연구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짚었다.

조 원장은 중국 북경대와 중앙민족대 티베트학연구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성철사상연구원장, 인제대 인제한국학연구원 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저서 〈조론소〉, 〈조론신소〉 등 20여 편의 논문과 연구서를 발표했다.

업과 윤회, 이성이 낳은 ‘합리적 신화’



업이란 무엇인가
히라오카 사토시 지음
법장 스님 옮김
운주사 / 1만8000원

‘불교학’ 관점서 업·윤회 규명
고대 인도부터 현대 사회까지
‘업론’의 형성·발전 과정 추적

업(業)과 윤회(輪廻) 사상은 불교계의 오랜 논쟁거리다. 부처님의 말씀에 근거한 ‘진리’라는 주장과 가르침을 쉽게 설명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맞서 왔고, 최근에는 이를 과학적으로 규명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일본 불교학자 히라오카 사토시 교수의 〈업이란 무엇인가〉는 ‘불교학’의 관점에서 업과 윤회를 설명한 책이다. ‘윤회의 주체는 무엇인가’를 과학적으로 논증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대 인도에서는 무엇이 윤회한다고 생각했는가’를 역사적으로 규명하고, 그 전승과 전개를 살피려는 목적에서다. 따라서 ‘무엇이 윤회하는가’, ‘윤회의 주체를 과학적으로 규명할 수 있는가’ 등은 이 책의 관심 영역이 아니다.

책은 ‘현실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벗어날 수 없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이를 바탕으로 고대 인도에서 탄생한 업 사상이 어떻게 형성되고 발전해 왔는지를 추적한다.

1장에서는 기원전 12세기경 아리아인이 인도에 침입해 바라문교를 토대로 종교를 세운 이후 업 사상이 어떻게 생겨나고 전개됐는지를 살펴본다. 2장은 불교의 업 사상을 총론으로 설명하고, 3장부터 5장까지는 각론으로 초기불교와 대승불교의 업 개념과 이해를 다룬다. 6장에서는 업과 윤회 사상이 현대 사회 문제와 인간 존재의 의미에 어떤 통찰을 줄 수 있는지를 탐구한다.

저자는 “불교의 업론은 인간의 모든 행위를 보편적으로 다 설명하려는 객관적 법칙이 아니기에 모순과 어긋남이 생겨나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불합리한 사바세계를 조금이나마 지성적이고 이성적으로 이해하려 할 때, 불교가 오랜 세월에 걸쳐 구축해 온 업 사상이 유효하게 기능하게 된다”며 “따라서 업보윤회사상은 지성·이성이 낳은 합리적 신화”라고 정의한다.



11월 24일 부산에서 열린 출간 기념 사인회에서 법장 스님(가운데)이 혜성 스님(오른쪽), 삼보회 회장 자재천 보살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책을 옮긴 법장 스님(동국대 교수)은 11월 24일 부산 아랑주 4층에서 열린 출간 기념 사인회에서 “업의 이해가 불교 수행의 핵심임에도 대중들에게 잘못 알려진 내용이 많다”며 “불교는 무아를 전제로 12처 18계의 구조 속에서 업을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업에 끌려 살지만, 수행을 통해 법(法)이 이끄는 삶으로 전환할 수 있다”며 수행의 방향을 명확히 제시했다. 여수령 기자

붓다와 공자가 전하는 ‘다스림의 기술’



붓다와 공자가 마주한 인생 독법
임종욱 지음
불광출판사
1만9000원

불교와 유교의 핵심 가르침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의 답을 찾다

괴로움을 소멸하고 완전한 행복에 이르는 길을 제시한 붓다, 어짊[仁]을 최고의 덕성으로 삼아 나와 남을 이롭게 하라고 가르친 공자. 저자는 삶의 크고 작은 시련을 만날 때 두 성현의 말씀에서 용기와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한다.

책은 참회·업·중도·방편과 같은 불교의 핵심 키워드를 유교가 강조하는 자성·실천·중용·권도와 병치해 성찰의 사유를 보여 준다. 종교의 경계를 넘나드는 이 시도는 특정 사상에 기대지 않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물음에 곧바로 닿는다.

설령 전차와 보병 부대에 둘러싸여 있다 해도 자신을 둘러싼다 한들 마음이 흔들리면 허망할 뿐이라는 〈별역잡아함경〉과 거친 밥과 맹물 속에서도 의로움은 행복이 될 수 있다는 〈논어〉의 한 구절은 시대를 넘어 우리를 일깨운다.

또 붓다가 열반에 들며 남긴 ‘자등명(자등명) 법등명’과 공자가 제자들에게 강조한 ‘발분(發憤)’의 가르침을 통해 “무엇을 언제 누구에게 배우든, 간절하고 절박한 자세가 뒷받침될 때 종착점에 닿을 수 있다”고 조언한다.

대학에서 한문학을 가르치며 연구에 전념하다 2006년 소설가로 등단해 여러 작품을 펴낸 저자는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바탕으로 삶의 방향을 찾고 싶은 이들에게 성현의 지혜를 생동감 있게 전한다. 여수령 기자



어린이 눈높이 '팔만대장경' 10년만 완간



팔만대장경 전 10권
신현득 엮음 / 송교성 그림
솔바람 / 각권 1만원



도서출판 솔바람 대표 동출 스님.

부처님 지혜·자비 담은 일화 선별
신현득 작가 재구성·생동감 더해
10권 완간…"불연의 씨앗 되길"

여수령 기자 spero0821@hyunbul.com

팔만대장경이 천년의 세월을 넘어 어린이 독자를 위한 새 옷을 입었다.

〈팔만대장경〉(전 10권)은 팔만대장경 속 우화를 아동문학계의 거목 신현득 작가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재구성한 책이다. 2018년 1권이 선보인 데 이어 최근 9·10권이 출간되며 전체 10권으로 완간됐다. 기획부터 10여 년이 걸린 대장정이다.

신현득 작가가 1990년대 펴낸 〈어린이 팔만대장경〉이 초등 고학년을 대상으로 쓰였다면, 〈팔만대장경〉은 초등 저학년도 읽을 수 있도록 쉽게 풀어쓴 것이 특징이다. 올해 93세인 작가가 어린이들에게 불연(佛緣)을 맺어 주는 일이라며 흔쾌히 재집필에 나선 것. 작가는 경전 속 이야기를 어린이의 발달 수준에 맞게 구성하고 명확한 주제 의식을 드러내되 생동감 있는 리듬으로 글을 다듬었다.

신 작가는 "이번 작업은 팔만대장경 속 우화를 오늘의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 다시 이야기하는 일이었다. 어린이들이 부처님의 지혜를 어렵지 않게, 즐겁게 만날 수 있다면 제게 큰 보람이 될 것"이라며 "이 책이 어린이들에게 우리 문화유산을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 주는 조용한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아이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웃음 짓게 하는 삽화는 일러스트레이터 송교성 작가가 그렸다. 송 작가는 우리나라 1세대 세밀화가인 송훈 선생의 아들이다.

그는 "아이들의 눈에 경전 속 인물들이 살아 움직이고, 이야기 속 지혜와 자비가 자연스럽게 전달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렸다"며 "10년 동안 이어진 여정은 쉽지 않았지만, 경전이 품은 깊이를 어린이들에게 전할 수 있다는 마음 하나로 완주할 수 있었다"고 완간 소회를 밝혔다.

출간에 힘을 보탠 이는 또 있다. 〈어린이 팔만대장경〉을 기획·편집했고, 동출 스님에게 〈팔만대장경〉 출간을 제안한 형난옥 나녹 출판사 대표.

형 대표는 "2016년 무렵 출판사 운영을 고민하고 계시던 동출 스님을 만났고, 20년 넘게 불교만화 출간에 힘쓰신 스님의 노고와 그 결실이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에 어린이를 위한 〈팔만대장경〉 기획을 제안했다"며 "마침내 완간돼 누구보다 기쁘고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번에 출간된 9권에는 팔만 사천 개의 탑을 지은 아쇼카왕과 오계를 받은 식인귀왕, 가난한 여인의 꺼지지 않는 등불, 석가모니 부처님의 수행을 방해한 마왕 파순의 일화 등이 담겨 있다. 10권에는 육바라밀을 실천한 부처님 전생담을 모은 〈육도집경〉 등에서 가려 뽑은 이야기와 팔만대장경에 대한 간략한 설명, 퀴즈 등이 실려 있다.

동출 스님은 "10년 전, 팔만대장경의 지혜를 어린이의 눈높이로 전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여정이 이제 10권 완간이라는 큰 결실로 이어졌다"며 "해인사 장경판전의 바람과 햇살, 장인들의 정성과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어린이들의 마음에 닿을 수 있도록 담고자 했다"고 출간 소감을 밝혔다. 이어 "이 책을 통해 팔만대장경이 지켜 온 지혜와 자비의 씨앗이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조금씩 자라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동출 스님은 앞으로 불교계와 학교·도서관 등과 연계해 책에 수록된 이야기와 일러스트를 함께 전시하는 방안도 구상 중이다.

불자라면 알아야 할 '염주의 모든 것'



염주의 역사와 수행 이야기
태경 스님 지음
조계종출판사
1만7500원





〈염주의 역사와 수행 이야기〉의 저자 태경 스님은 경전과 문헌에 나타난 자료를 집대성하는 한편, 전통 방식으로 염주를 만드는 모습을 기록으로 남겼다. 사진은 정성껏 염주를 만드는 마산 도솔암 스님들 모습. 사진 제공=조계종출판사

부처님이 일러 주신 수행 도구
경전·불화·전통 제작까지 총망라
염불·관상 수행을 돕는 길잡이

불자에게 가장 친숙한 신행 도구인 염주. 염불이나 기도할 때뿐 아니라 일상에서 자연스레 손에 쥐게 되지만, 정작 염주가 언제 누구에 의해 시작됐는지 정확히 아는 이는 드물다.

태경 스님(조계종 법계위원회 의제실무위원)의 신간 〈염주의 역사와 수행 이야기〉는 이러한 물음에서 출발해 염주의 기원과 역사, 수행적 의미를 총체적으로 정리한 국내 첫 전문 연구서라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책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염주의 최초 기록이 담긴 〈불설목환자경〉 이야기다. 경전에 따르면 난국의 파유리왕이 부처님께 괴로움을 벗어날 수행법을 청하자, 부처님은 "목환자 열매 108개를 꿰어 불·법·승을 외우며 염불하면 번뇌를 끊고 열반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한다. 번뇌의 숫자인 108과 수행 도구로서의 염주가 처음 등장하는 장면이다. 또한 파유리왕이 염주 1000개를 만들어 백성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기록은 염주가 공동체에 전해진 수행의 가르침이었음을 보여 준다.

이 책의 저자 태경 스님은 염주를 수행 삼아 만드는 노스님과의 인연으로 염주에 관심을 갖게 됐고, 이후 포교 현장에서 불자들이 염주에 담긴 뜻을 깊이 새기지 못하는 현실을 보고 안타까움을 느껴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다. 경전을 찾아 번역하고, 문헌에서 염주 영험담과 염주 도상의 불화를 찾았다. 인도·티베트·네팔 불교의 자료에서 염주에 관련된 도상과 설명을 찾았고 실제 염주를 만드는 과정을 기록했다. 이렇게 모은 자료가 한 권의 책으로 집대성됐다.

이 책은 총 11장으로 구성돼 염주와 관련된 거의 모든 영역을 다룬다. 염주의 재료와 알의 개수에 담긴 상징, 의궤에서 규정한 염주 사용법 등을 설명해 실질적 수행 지침을 제공한다. 특히 고려불화의 대표작인 '수월관음도' 속 염주 해석과 전통 방식으로 보리수 염주를 제작하는 무학산 도솔암 스님들의 사례는 학술적 정보와 현장성이 균형 있게 어우러진 대목이다.

또 경전 번역 시기와 지역에 따라 염주 관련 기록에 차이가 드러난다는 분석은 불교사 전개의 흐름을 염주라는 작은 사물을 통해 재조명하는 흥미로운 시도다. 부록에 실린 7편의 경전 원문 역시 연구자들에게 귀중한 자료가 된다.

염주의 기원을 알고, 경전의 뜻을 이해하며, 전통 제작의 과정을 눈으로 확인하는 경험은 수행의 신심을 더욱 굳게 한다. 불자뿐 아니라 불교 문화와 수행의 상징을 깊이 이해하고자 하는 독자에게도 넉넉한 길잡이가 될 것이다. 태경 스님은 "모든 불자들이 바른 염주로 염불관상 수행을 통해 성불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기대했다.

태경 스님은 해인사로 출가해 봉녕사승가대학을 졸업했다. 동국대 대학원 불교학과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미술학과에서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월정사 성보박물관 학예실장, 조계종 교육아사리, 의례실무위원, 세종특별자치시 무형문화재 위원을 역임했다. 여수령 기자

불교 문화잡지, 12월 송년호 발간



〈불교문화〉 '다양성' 특집
월간〈불광〉 '사유수' 조명

불교계 문화교양지들이 다양한 주제의 12월 송년호를 발간했다.

(재)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구상진)은 '다양성'을 주제로 월간 〈불교문화〉 12월호(통권 제304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 특집은 '다양성, 왜 존중돼야 하나-서로 다른 길, 하나의 세상'으로 불교, 자이나교, 간디 철학 등을 통해 '다양성'의 필요성을 조명한다. 양영순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남아시아센터 선임연구원은 '자이나교의 관점주의와 철학적 아힘사'를, 허우성 경희대 명예교수는 '간디의 실재 다면성 가르침을 통해 갈등을 완화하자'를, 허남결 동국대 불교학부 명예교수는 '전쟁과 폭력, 평화, 그리고 불교의 무외시(無畏施)'를, 권선아 공감과자비연구소장은 '타자화 없는 상호존재'를 수록했다.

하반기 캠페인 '기도하는 삶을 살자'에서는 유정 다큐멘터리 작가가 신실한 신심을 보여 준 어머니의 모습을 통해 불교의 기도는 단순히 소원을 비는 행위가 아니라 욕망과 집착을 비우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물음에 답하며 깨달음의 길을 실천하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한다.

불광미디어가 발간하는 월간〈불광〉 12월호(통권 제614호)는 '깨달음의 나무, 사유수'를 특집으로 다뤘다. 부처님이 태어나고, 깨닫고, 입멸한 자리에는 언제나 나무가 있었다. 특집에서는 '나무'를 통해 불교의 역사, 신앙, 삶의 지혜를 되짚는다.

이미령 작가는 '다섯 그루 나무가 들려주는 붓다의 삶'을 통해 부처님의 일대기를 다섯 그루 나무의 시점으로 조명한다. 다섯 나무는 무수·잠부나무·보리수·사리쌍수 등이다. 노승대 민속학자는 한국인의 정신적 원형을 이뤄 온 당산나무 신앙을 심층적으로 해설한다.

한평생 강백으로서 후학을 길러 온 지안 스님은 반야암을 창건한 1999년부터 매년 나무를 심어 왔다. 나무 심기를 '마음을 잘 쓰고 인연을 심는 일'이라고 표현하는 스님의 이야기를 인터뷰로 만날 수 있다.

불교미술과 단군신화 속 '나무'도 조명한다. 정진희 작가는 불교미술 속에서 버드나무가 어떤 상징으로 쓰였는지 분석하며, 조경철 작가는 단군신화를 통해 환웅이 맨 먼저 내려온 곳이자 땅과 하늘을 이어 주는 매개였던 신단수를 살펴본다.

4년 동안 '그림 속에서 찾은 사성제 이야기'를 연재한 보일 스님은마지막 글로 화가 살바도르 달리를 소개한다. 신중일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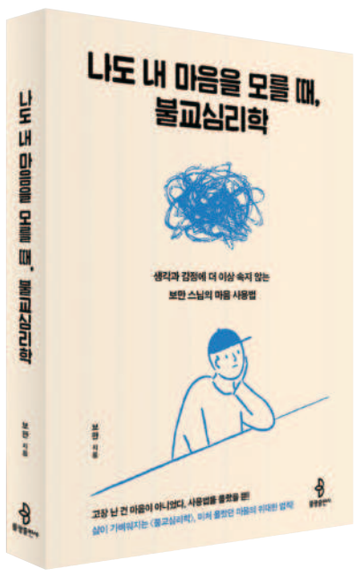
삶이 가벼워지는 〈불교심리학〉,
미처 몰랐던 마음의 위대한 법칙!

자꾸만 뚝딱거리는 내 마음,
고장 난 줄 알았지만 사실은 사용법을 몰랐을 뿐이었다!

유튜브 '명강의'로 입소문이 난
〈불교심리학〉

★★
웃음으로 시작해 깨달음으로 끝나는
마음공부, 그 현장의 후기

"쇼츠 보고 여기까지 왔는데,
보물 발굴한 기분이에요!" _ oo*****
"마음공부가
이렇게 재밌는 것이었군요!" _ gr*****
"늦은 시간 잠을 미루며 듣게 되는
명강의입니다" _ c8*
"보만 스님 강의는 삶의 기술을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_ el*******



★☆★
화제의
베스트셀러!

나도
내 마음을
모를 때,
불교심리학

생각과 감정에 더 이상 속지 않는
보만 스님의 마음 사용법

보만 지음 | 288쪽 | 19,000원

"불교는 지금 나를 깨우는
새로운 언어다!"

'절집의 숨은 고수' 고광 스님이 40년 탐구 끝에 되찾은 진짜 '붓다의 말'
알면 알수록 수수께끼 같은 삶이 이해된다!

새롭게 다가오는 붓다의 말,
더욱 선명해지는 삶의 지혜

고광 스님의
불교
도장
깨기

고광 지음
430쪽 | 24,000원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 www.bulkwang.co.kr | 불광미디어

승무가 이철진, 대학로서 전통춤 미래 일으키다



이철진 대표는…한성준–한영숙–이애주–이철진으로 이어지는 한영숙류 3세대 춤꾼이다. 2006년부터 대학로 성균소극장을 통해 전통춤 소극장 운동을 주도하고 있으며 825회 이상의 승무 개인발표회를 가졌다. (사)한국춤예술센터, (주)구슬주머니를 설립했으며 아시아무용대전(ADF), 국제 2인무 페스티벌(DDF), 국제불교무용대전(BDF), 전통춤 류파전(RYU)과 국제 무용네트워크를 위한 IDANS(International Dance Networks in Seoul) 등을 기획 제작하며 한국무용의 국제적 확장에 힘쓰고 있다.



매년 봄 서울 대학로에서 진행되는 불교무용대전. 무용가뿐 아니라 신심있는 일반 대중에게도 공연의 기회를 제공해 비전공자들의 등용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철진 대표의 공연 모습. 후학들이 승무의 깊은 예술의 맛을 깨닫길 기대한다.

이철진 성균소극장 대표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서울 대학로 한복판 번잡한 거리 끝자락에 자리잡은 작은 극장 '성균소극장'. 조용한 무대 한가운데, 흰 장삼을 차려입은 사내가 눈을 감은 채 호흡을 가다듬는다.

한국 전통춤의 맥을 좇아 승무에 평생을 바친 춤꾼, 성균소극장을 이끄는 이철진 대표다. 1969년 국가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한국 대표 전통예술 승무는 최초 보유자 한영숙에 이어 2세대 이애주에서 3세대 전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철진 대표는 한영숙류 3세대 춤꾼으로 30여 년간 승무 전판 공연과 연구를 이어오고 있다. 승무의 곡선을 따라 살아온 그를 만나 삶과 철학, 그리고 불자로서의 고백을 들었다.

출가 꿈꾸던 시절, 스승 만나 승무 길로

독실한 불자 집안에서 자란 이철진 대표는 막연히 '언젠가는 머리 깎고 출가할 것'이란 생각으로 청소년 시절을 보냈다. 출가를 진지하게 고민하며 고등학교 졸업 후 한동안 합천 해인사 금선암에 머물기도 했다.

비록 스님은 되지 못했지만 수행자가 되겠다는 생각이 끊이지 않던 1990년 1월, 인생을 바꾸는 중요한 계기가 찾아왔다. 무용학원을 알아보다 우연한 기회에 이한열 열사 노제에서 '한풀이 춤'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낸 이애주(1947~2021, 중요무형문화유산 승무 보유자) 선생을 만났다. 이애주 선생의 첫 마디는 "한국춤에 숨어 있는 외색을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을 불교에서는 화두를 든다고 한다"는 것. 이미 불교에 심취해 있던 이 대표에게 그 한 마디는 춤꾼이 되라는 말로 느껴졌고, 본격적으로 승무를 추게 됐다. 7개월 동안 살풀이 춤 전판을 사사했고 북놀음을 포함한 승무 전판을 배우며 1994년, 이애주 선생의 제자들과 함께 첫 승무 공연에 올랐다.

이후 이 대표는 여느 예술학도와 마찬가지로 연습을 쉬지 않았다. 늦게 시작한 만큼 알고 싶은 것도 많았고 부족한 것도 많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연습과 공부를 게을리할 수 없었다. 춤에 대한 대단한 식견이나 비전보다는 오직 스승에 대한 믿음과 존경을 바탕으로 춤을 연습했다. 이애주 선생은 오직 승무만 추라고 늘 말했다. 승무만 되면 모든 춤은 따라온다는 것이다. 대관령 한 폐교에 머물며 100일간 새벽기도와 연습을 이어갔고 이후 대학원에 입학, 학업에 정진해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최근 출판된 이철진 대표의 저서 <나의 승무 나의 춤>.

출가 꿈꾸다 이애주 선생 만나 화두
"오직 승무만…모든 춤 따라온다"
20년 간 소극장서 장기공연 돌입
중요한 건 숫자 아닌 숨 쉬는 자리
"세월 갈수록 승무 믿음 깊어져"

대학로 소극장 운동, 승무의 새로운 무대

학위를 마칠 무렵, 개인발표회에 점차 회의가 생기기 시작했다. 학업 중 10여 년간 공연을 이어왔으나 누구를 위해, 왜 하는 공연인지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다.

"춤은 점차 고착되고 긴장감이 사라지며 매너리즘에 빠지기 시작했죠. 무엇보다 하루 공연을 위해 364일 연습하는 것이 너무도 못마땅했어요."

전통춤, 특히 승무는 보통 중대형 무대에서 일회성 공연으로 존재해 왔다. 364일을 연습하고 단 하루만 관객을 만나는 것이 아쉬웠던 그는 관습을 깨기로 했다. 2006년, 침수돼 버려져 있던 대학로 지하 공간을 빌려 성균소극장이라고 이름 붙였다. '전통춤 소극장 운동'이 시작된 것이다.

첫걸음은 쉽지 않았다. 무용계는 물론이고 관객을 모으는 일도 녹록치 않았다. 그는 '100일간의 승무 이야기' '49일간의 승무 이야기' 등을 기획했고 지속적으로 승무 하나로 장기공연을 올렸다. 대학로에서의 공연들이 대부분 힘겨운 현재를 잊게 해주는 뮤지컬이나 코미디 같은 것인데 반해 승무는 색다른 시도였다. 하루 관객이 스무 명에 불과한 날도 있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관객 숫자가 아니라 춤이 살아 숨 쉬는 '자리'를 만드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간절함이 통한 것일까. 어느 순간 만석을 유지하기 시작했다.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 관객들도 점차 승무 전판의 매력에 깊이 빠져들어간 것이다.

"춤을 추고 싶어 극장을 만들었고 2024년까지 한영숙 승무 전판을 춘 것이 825회입니다. 제 가장 찬란한 시기를 작은 극장에서 버선을 신으며 보낸 것 같아요. 그동안 저도 성장했고, 승무 무대도 그렇게 바뀌어왔죠."

뿐만 아니라 단체를 만들고 조직을 세웠다. 사단법인 한국춤예술센터와 예술단체 구슬주머니를 설립, 전통춤 보존과 창작 그리고 전승을 위한 구조를 구축했다. 이런 시도는 단지 무대의 확대가 아니라 전통춤이 '살아 있는 예술'로 일상 속으로 스며드는 통로를 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 이상 전통춤은 고요한 박물관 속 기록이 아니라, 숨 쉬고 울고 웃는 오늘의 몸이 된 것이다.

정식 개관 20년. 지나간 시간만큼 성균소극장은 많은 변화와 발전을 이뤄냈다.

먼저 승무 장기 공연에 대한 의심을 사그라지게 했다. '천년승무이야기' '108일간의 승무 이야기' '화요승무이야기' '다시 100일 승무이야기'가 이어졌고 이애주 선생이 작고한 2021년에는 '49일간의 승무이야기'가 무대를 채웠다. 또 '국제불교무용대전' '맞장' '남선춤 6인전' 등의 장기공연 실험과 '레지던시 in성균' '소극장 상주단체' 시스템 등이 계획되고 또 진행되고 있다.

춤에서 시작된 열정으로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철진 대표는 초심을 잃지 않으려 한다. 이 대표는 "세월이 갈수록 한영숙류 전통춤과 승무에 대한 신앙과 같은 믿음도 깊어진다"고 했다.

이철진 대표의 다음 목표는 승무 최초 보유자 한영숙의 '지숫기(공굴리기)'를 되살려 한국인만이 가지는 특유의 전일적 몸관을 되살리는 것이다. 그는 "전통은 예전부터 내려오던 고유의 형식과 그들 특유의 세계관에서 나온 몸관이 그 안에 살아 있기 때문"이라며 "한국인 특유의 독특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한영숙의 몸관을 보존하고 널리 알리고 싶은 마음"이라고 말했다.

불교무용 보존·계승을 위해 스스로 갈고닦음을 주저하지 않는 이철진 대표. 그의 장삼이 그리는 흰 곡선에는 스승들에게서 이어받은 정신이자 미래에게 건네는 약속이 담겼다.

불기 2570(2026)년 병오년(丙午年)

신년 축하광고 접수안내

귀의삼보 하옵니다.
다사다난했던 을사년의 해가 저물어가고 희망찬 새해가 밝아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을사년 한 해 현대불교신문에 베풀어주신 관심과 은혜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행복과 소망이 성취되는 새해 새 마음을 담아
불기 2570(2026)년 병오년 신년 특집호를 아래와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루 동참해 주시어 부처님의 법음이 세상 곳곳에 전해지도록 함께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사	T. 02)2004-8204	F. 02)737-0698
경기남부지사	010-8825-4367	
경기북부지사	010-5323-0834	
부산지사	010-5640-8883	이도경
경남지사	010-3860-7008	성낙두

광주전남지사	010-2629-1508	양행선
전북지사	010-8642-7733	조동제
대구경북지사	010-4152-4376	김선행
충청지사	010-8341-0560	유재상
강원지사	010-7339-8688	이동격

광고내용
임원명단, 축하문구, 이미지

접수문의 02)2004-8204
hyunbul1994@naver.com

계좌번호
농협 053-01-269088 (주)현대불교신문사

현대불교신문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Weekly 선명상 46 성공과 실패에 대해서



▶한줄 요약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것은 단순하게 생각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욕심을 부린 만큼 성공하기도 하지만, 성공한 만큼의 실패 또한 언젠가는 반드시 치르게 되니 명심하고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성공이 있어 실패도 있다

"욕심 부리기에 성공과 실패 경험
성공은 실패라는 그림자 함께해
성공한 만큼 실패도 항상 수반돼
매사 연연 말고 욕심 업식 끊길"



해당 삽화는 진우 스님의 한글 게송을 생성형 AI에 입력해 제작했습니다.

[오늘의 명상]
삶이란 허공에 그림을 그리는 것과 같고
물위에 금을 긋는 것과도 같다네.
모든 것 결국 공(空)으로 돌아갈진대
미련을 떼지 못하는 습(習)이 안타깝구나.

욕심을 부리면 욕심을 부린 만큼 성공하거나 또는 실패합니다. 욕심을 부린다는 것은 욕심을 부린 만큼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다는 것인데, 이러한 확신은 과거 또는 전생의 경험 즉, 업식(業識)이 마음에 잠재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조건으로 더욱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때는 성공하고 어느 때는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 요인이 있을 수 있겠으나, 대개의 사람들은 단순히 운이 없다고 치부하거나 남의 탓을 하며 화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이유 없는 무덤이 없고 원인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성공과 실패는 손등과 손바닥의 관계와도 같습니다. 손등이 있기 때문에 손바닥이 있는 것처럼, 성공이 있으므로 실패가 있고, 실패가 있으므로 성공이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욕심이란 어떤 무엇을 이루기 위해 마음을 내는 것입니다. 인간이 욕심을 부려 생각을 하고 마음을 낸 것은 그 어떤 것이라도 이뤄지게 되고 성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공은 실패라는 그림자를 항상 안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인과적(因果的)으로 보면, 한 번 성공하면 한 번 실패하게 되고 열 번 성공하면 열 번의 실패가 기다리고 있으며, 크게 성공하면 크게 실패할 때가 오고 더 크게 성공하면 더 크게 실패할 시간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해가 뜨면 반드시 져야 하고, 낮이 있으면 반드시 밤이 오기 마련이며, 해가 계속 뜰 수도 없지만 해가 계속 질 수도 없고, 밝은 대낮이 계속될 수도 없지만 어두운 밤이 계속 될 수도 없습니다. 이처럼 인과란 때가 되면 반드시 번갈아 나타나는 법칙입니다.

따라서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것은 단순하게 생각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욕심을 부린 만큼 성공하기도 하지만, 성공한 만큼의 실패 또한 언젠가는 반드시 치르게 되니 명심하고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해는 저절로 뜨게 되는데 굳이 해 뜨라고 밤새도록 애쓸 필요가 없고 해는 저절로 지는데 굳이 해 지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하며 화를 낸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매사에 연연(戀戀)하지 않고 불법(佛法)에 대한 지극한 신심(信心)만 있으면, 성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옆에 머무르게 되고, 실패라는 모습은 그림자도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인과의 법칙 따라 생로병사(生老病死), 성주괴공(成住壞空), 생주이멸(生住異滅) 하는데 욕심의 업식(業識) 따라 각자 스스로 마음만 분주할 뿐이니, 마음을 여여(如如)하게 편안히 하려면 기도와 참선, 보시와 정진을 통해 삼독심(三毒心, 탐욕·성냄·망상)의 업(業)을 멸해 나가야 합니다.

[오늘의 명상]
모든 일은 실제가 힘든 것이 아니라
힘들다고 생각하는 내 마음이 힘든 것이다.
인연 따라 움직이는 모습 그대로 믿으면[信心]
결코 끄달림 없는 평화로운 마음이어라.

사람들이 종교를 갖는 것은 자명합니다. 특히 불교를 믿는 불자들의 바람은 단순합니다. 불보살의 가피력(加被力)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게 해 달라는 염원의 기도입니다.

불전을 놓고 기도비를 내고 등을 켜고 천도를 하고 시주를 하는 등은 대부분 염원을 성취하기 위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는 경우, 소위 기도축원대로 성취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보면 특정한 목적을 이루게 해 달라는 경우에는 성취되는 확률이 높고, 반대로 예기치 않게 원하지 않는 것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을 잘 되게 해 달라거나 시험에 합격하게 해 달라, 자식을 낳게 해 달라, 병이 낫게 해 달라는 등의 기도는 이뤄지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도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합니다.

중생의 업이란 바라는 만큼 이뤄지게 되어 있으나 또한 이룬 만큼 바라지 않는 것이 생겨나는 것이 업의 속성입니다. 즉 성공한 만큼 실패하게 되어 있고 기쁜 만큼 슬프게 되어 있으며 즐거운 만큼 괴롭고, 행복한 만큼 불행한 것이 인과의 속성이고 업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태어난 만큼 죽어야 하고 건강한 만큼 병이 들고 젊은 만큼 늙어야 하며 생겨난 것은 사라지게 된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진리입니다. 다만 때를 달리할 뿐입니다. 아무리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켜도 머리로는 알아듣는 듯하지만 결국 마음과 가슴으로 못 받아들이고 마는 안타까운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만큼 업이란 두텁고 단단합니다.

인과(因果)의 도리를 여실히 알아 반야(般若)와 진공(眞空)을 깨닫는다면 욕심은 더 이상 생기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그에 따른 괴로운 과보(果報)도 생겨나지 않게 됩니다. 욕심이 생기면 생길수록, 원하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성취하고 성공할 수는 있으나 그에 따른 혹독한 괴로움의 과보 역시 똑같이 생긴다는 것을 깊이깊이 알아채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부처님의 법은 무엇을 이뤄 성취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무엇을 성취하려는 욕심을 없애기만 하면 이미 성취되어 있고 이미 이뤄져 있다는 것을 여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보시(布施)와 시주(施主)는 내가 바라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 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연 따라 오고 가는 것을 내 것이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으로 뺏기고 잃고 사라지게 되는 아픔의 과보가 생기게 되니, 내 것이라는 상(相)을 없애기 위해 미리 내보내는 보시행(布施行)을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괴로운 과보를 받지 않고 마음을 한없이 편안해질 겁니다.

사찰에 보시하고 시주하는 본래의 목적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기도 역시 똑같습니다. 기도와 보시, 참선과 정진은 나를 편안케 하는 도깨비 방망이가 될 것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불교계 최고 통일 禮敬儀式集
의식법요집



〈불교의식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의하며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기 위한 수행〉

『통용불공법요집』『다비법요집』『천도법요집』은 불교의식들을 한데 모아 책으로 편찬한 불교의식집이다.

그동안 선지식들이 남긴 뛰어난 불교의식집이 많았으나, 시대 변화 속에서 일부가 단순화되거나 형식적으로 흐르는 경향도 있었다.

의식법요집은 사찰의 현실적 어려움과 신도들의 간절한 신심을 바탕으로, 여러 큰스님들이 전해온 기도법과 전통 의식을 재정리해 신도들의 삶에 희망과 용기, 신심을 불어넣을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한 책이다.

다비법요집 (1,445쪽) 150,000원 | **천도법요집**(853쪽) 100,000원 | **통용불공법요집** (885쪽) 100,000원

- 불공신앙, 영혼천도, 사자신앙, 소재신앙, 세시풍습을 종합한 의식법요집
- 출재가를 아우르는 예불, 독경, 기도, 공양 등 의식을 집대성한 의례의식집
- 시대의 획기적인 변화와 정례화된 한국 불교의 뿌리를 공고히 한 편찬서

보급처 | 사단법인 **대한불교교종 출판사** TEL : 031-291-8414 H·P : 010-8653-3216

양산 신흥사 대광전과
벽화의 가치 조명 학술대회

양산 신흥사 대광전은 17세기 조선 불교미술의 흐름을 고스란히 품고 있는 귀중한 문화유산입니다. 특히 불전 내부에 그려진 벽화는 우리 미술사에서 보기 드문 독보적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이러한 대광전과 벽화의 도상적 특징, 제작 배경 그리고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에 대해 다각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자리를 함께하여 학술적 논의와 교류의 장을 빛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양산 신흥사 주지 호법 합장

일 시 | 2025년 12월 19일 (금) 13:00~17:00
장 소 | 양산문화예술회관
주 최 | 대한불교조계종 신흥사
주 관 | 경주대학교
후 원 | 경상남도 양산시 영축총림 통도사



시 간	내 용
	사회 : 조수현 경주대학교 교수
13:00~13:30	개회식 및 기념촬영
13:30~13:55	기조강연 국가유산 확립에 따른 사찰 문화유산의 역할과 중요성 (최응천 전 국가유산청장, 동국대학교 석좌교수)
13:55~14:20	주제 1 양산 신흥사 대광전의 건축사적 의미 (오세덕 경주대학교 교수 / 토론 : 박대성 경상남도 문화유산위원)
14:20~14:45	주제 2 양산 신흥사 대광전 불상의 조각사적 의미 (송은석 동국대학교(WISE) 교수 / 토론 : 심주완 불교중앙박물관 종무관)
14:45~15:00	휴식
15:00~15:25	주제 3 건축적 공간성과 회화적 조형성이 만나는 지점: 신홍사 삼관음보살 벽화 의미 (김미경 국가유산청 문화유산감정위원 / 토론 : 유경희 국립익산박물관 학예연구사)
15:25~15:50	주제 4 건축 속에서 완성되는 벽화: 신홍사 대광전을 중심으로 (이승희 국립순천대학교 하슈연구교수 / 토론 : 이용윤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15:50~17:00	종합토론 발표자, 토론자 전원 (좌장 : 김정희 원광대학교 명예교수)
17:00	폐회식

최선일의 佛母列傳 시즌2 ⑲ 녹원(鹿園, 鹿元, 鹿苑) 스님



▶한줄 요약
녹원 스님은 17세기 중반 영남·호남·경기 지역에서 활약한 조각승으로, 이후 18세기 전반을 대표하는 조각승 진열로 이어지는 중요한 계보를 형성한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조각승이다.

17세기 중반 영호남·경기 불사 이끌어

녹원(鹿園, 鹿元, 鹿苑) 스님은 17세기 중반을 대표하는 조각승 승일(勝一, 勝日) 스님과 관해(寬海) 스님이 주도한 불상 제작에 참여했던 조각승이다.

초기에는 승일 스님을 보조하며 불상 조성에 참여했고, 이후에는 지현(智玄, 知玄)·혜정(慧定, 惠淨) 스님 등 후배 조각승들과 함께 작업하며 자신만의 조형적 특징을 갖춘 불상을 만들어 갔다.

녹원 스님에 대한 가장 이른 기록은 1644년 음력 1월, 하동 쌍계사 목조석가여래삼존상과 16나한상 등 제작에 승일 스님과 참여한 사례에서 확인된다. 당시 열네 명의 조각승 중 여덟 번째로 기록돼 있어, 1640년대 중반에는 중간급 보조 장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1648년 음력 3월부터 6월까지는 관해 스님을 도와 남원 백장암 명부전 지장보살삼존상과 시왕상 제작(현 소재 미상, 조성발원문만 있음)에 참여했는데, 이때 열두 명 중 다섯 번째 기록돼 더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녹원 스님은 1655년 봄부터 약 두 달 동안은 창원 성주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보물)을 수화승으로 제작했다. 이 작업에는 지현·혜정·인종(印宗) 스님 등이 함께했으며, 후배와 제자인 지현 스님과 혜정 스님은 1660~1680년대 남부 지역에서 수화승으로 활발히 활동한 조각승들이기도 하다.

이후 1659년 음력 5월에는 기장 장안사 석조석가여래삼불좌상(보물)을 수화승으로 세 명의 보조화승과 함께 제작했다. 당시 기록에서 녹원 스님이 '대화원(大畵員)'으로 언급된 것을 보면, 당대 불사(佛事)에서 높은 신뢰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1664년에는 고흥 능가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과 시왕상(현 소재 미상, 목조지장보살좌상만 서울 지장암 봉안, 시 유형문화유산)을 후배·제자 16명과 함께 제작했고, 1669년에 안성 청룡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과 시왕상을 도운(道云, 道雲)·성심(性諶, 性沈) 스님 등과 조성한 사실이 최근 복장 조사에서 확인됐다.

1670년 음력 8월에는 양주 청련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도 유형문화유산)을 수화승으로 인종·도윤·성심 스님 등과 제작했다. 이어 1673년 음력 2월부터 7월까지는 수화승 자수 스님을 도와 창원 불모산 성흥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과 시왕상(현재 합천 해인사 봉안)을 부화승으로 제작했다.

현재 확인되는 녹원 스님의 활동 기간은 1644년부터 1673년까지로 약 30년이다. 기록과 현존 작품을 보면, 스님은 1610년 전후에 태어나 1620년대에 수련기를 거쳤으며, 1630~1640년대에는 승일·관해 스님의 불사에서 보조 조각승으로 활동한 것으로 보인다.



창원 성주사 목조석가여래좌상(1655년). ©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



안성 청룡사 목조지장보살좌상(1669년). ©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



양주 청련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1670년). ©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

승일·관해 스님 계보 잇고 30여 년간 활동
1650년대부터 수화승, 지현 스님 등과 협업
창원 성주사·기장 장안사 등에 불상 조성

이후 1650년대부터는 수화승으로 독립적인 조각승 집단을 이끌며 활동했고, 1670년대 전반까지 활약했다.

녹원 스님은 영남과 호남, 경기 지역의 대웅전이나 명부전 등 주요 법당에 불상을 제작했다. 이 가운데 수화승으로 주도한 작업은 창원 성주사, 기장 장안사, 고흥 능가사, 안성 청룡사, 양주 청련사 등 여러 사찰에서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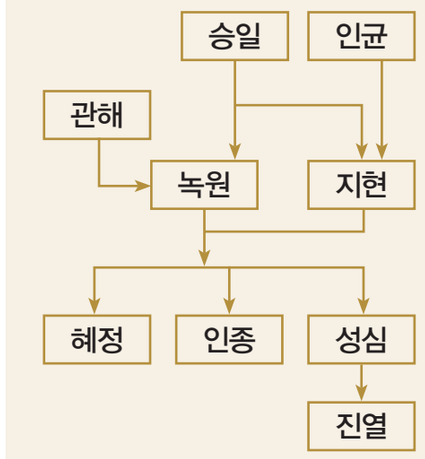
녹원 스님의 조각승 계보는 승일(1622~1670, 이하 활동 연대)→녹원(1644~1673)·지현(1648~1689)→혜정(1650~1674)·인종(1655~1679)·성심(1669~1695)→진열(震悅, 1688~1722)로 이어진다.

양주 청련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 내부에 남아 있는 묵서(墨書) 조성발원문에 따르면, 이 불상은 1670년 음력 8월에 녹원·인종·도운·유경·사운·성심 스님 등이 함께 조성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목조아미타여래좌상은 높이 78㎝의 중형 불상으로, 머리 크기가 신체에 비해 큰 1:0.36의 비례를 보인다. 머리에 뾰족한 나발(螺髮)과 경계가 불분명한 육계(肉髻)가 표현됐으며, 육계 아래에는 반원형 중간계주(中間髻珠), 정수리에는 낮은 원통형 정상계주(頂上髻珠)가 있다.

여래상은 두꺼운 대의 안쪽에 부견의를 입고, 오른쪽 어깨에 걸친 대의 안쪽 자락이 짧게 늘어져 V자형의 끝단으로 처리되고, 나머지 대의자락이 세 가닥으로 접혀 늘어진 후, 팔꿈치와 배를 지나 왼쪽 어깨로 넘어갔다. 반대쪽 대의자락은 왼쪽 어깨를 완전히 덮고 내려와 결가부좌한 다리 위에 펼쳐져 있다. 하반신을 덮은 대의자락이 복부 중앙에서 바닥까지 넓게 펼쳐져 있다.

녹원 스님의 조각승 계보 (필자 작성)



이와 같은 하반신 중앙에 늘어진 대의자락의 처리는 17세기 후반 조각승 희장 스님이 만든 기년명 불상에서 나타나는 옷 주름보다 폭이 약간 좁은 편이다. 왼쪽 무릎에는 소맷자락이 나뭇잎 형태로 크게 늘어져 있다. 왼쪽 측면 대의자락은 동일한 너비로 늘어져 앞뒤로 'ㅅ'자를 그리며 펼쳐져 있다. 대의 안쪽에 입은 승각기(僧脚崎)는 가슴까지 올리고 대각선으로 접혀 있다.

녹원 스님이 주도해 제작한 불상은 조선 후기의 전형적인 불상 양식을 잘 보여 준다. 현재 녹원이 제작하고 연대를 밝힌 불상은 모두 5건 30점이 현존하며, 1650년대와 1670년대 작품 사이에는 형태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먼저 1650년대 불상은 얼굴이 가늘고 길어, 폭에 비해 높이가 더 큰 직사각형 형태다. 반면 1670년대 불상은 얼굴의 폭과 높이가 거의 비슷해 정사각형에 가까운 얼굴형을 하고 있다. 또한 오른쪽에 어깨에 걸친 대의 끝부분이 1650년대 불상에서는 아래로 길게 내려오지만, 1670년대 불상에서는 쇄골 정도까지만 짧게 내려와 차이를 보인다.

하반신의 대의 표현에서도 차이가 난다. 1650년대 불상에서는 중앙의 대의자락이 한 가닥의 주름이 좌우로 퍼지듯 표현되지만, 1670년대 불상에서는 주름이 거의 수직으로 떨어지는 형태다. 승각기는 1650년대에는 대각선으로 접힌 형태와 연판형(연꽃무늬처럼 펼쳐진 형태)이 함께 나타나지만, 1660~1670년대 불상에서는 대각선으로 접힌 형태만 제작됐다. 또한 제작 시기가 후대로 갈수록 하반신 무릎의 높이가 점차 높아지고, 무릎 양끝의 형태도 더욱 각져 보이는 경향이 나타난다.

〈(사)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장 · csi34@hanmail.net〉



2025년 12월 10일 수요일 | 불기 2569년

접 수 문자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10-4648-8200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정보

1558호 | 15 | 전면광고

흰 천에 묻은 얼룩은 눈에 띄지만
악인은 검은 옷에 먹물을 칠한 것처럼
남의 눈에 띄지 않는다.



부처님 말씀 읽기 - 《대지도론》에서

광 진 불 사

- 위치 : 경기도
- 대지 : 1000평
- 법당 : 30평 목조포집
- 요사 : 30평, 산 밑
- 매가 : 8억, 차량진입
- 위치 : 서울
- 면적 : 200평, 사찰
- 법당 : 50평
- 요사 : 60평, 산 밑 차량진입
- 매가 : 25억

※5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상담 받습니다.
※전국 전통, 사찰, 암자, 땅, 다량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사찰관련 컨설팅, 양도, 양수, 전통사찰지정, 신행, 출가, 사찰순례, 채권상담, 종교법인, 스님유품정리. 골동품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포항시 북구 청하
- 대지 : 1000평, 건물 : 60평(건축6년)
- 대웅전 공양간 요사채 베란다 40평
- 도량에 진신사리 10층석탑
- 약사불, 포대화상, 12지신
- 조경, CCTV 완비
- 주차장 500평(하천부지), 저온창고 6평
- 건강 악화 부득이 정리, 집기류 인계
- 가액 : 12억원(절충가능)

010-2857-2811

토 지 안 내

- 위치 : 경북 성주군 용암면 계산리 96-2
- 약 1000평부터 5000평까지 분할 매매 가능
- 탁트인 전망, 토목공사 전기 수도 완료 / 가람장소로 적합
- 가액 : 평당 60만원(절충가능)

010-8857-9889

사찰(급)안내

- 땅(종교부지) 값만 받고 양도합니다.
- 위치 : 강원도 삼척시
- 대지 : 약 500 평
- 법당, 산신각, 미륵불, 탑 종각 및 범종, 요사채 2동
- 시내와 인접하여 교통 편리
- 집기류 전부 다 줌 ●법회 즉시 가능

좋은 인연 기다리겠습니다.

010-2366-2821

사찰(급)안내

- 신축 빌라식 3층 건물
- 각층 임대 및 매매 가능
- 위치 : 부산시 구포시장 농협 옆
- 1층 근린법당 약 50여 평 5000만 월 70만
- 2층 주택 법당 5000 월60만
- 3층 주택 방3칸 5000 월50만

※3층 복층 사용 가능

010-5511-7000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고성군 사찰
- 대지 : 120평
- 건물 : 건물외 부속건물 약 30평
- 난방 : 태양열 시설이 되어있음
- 가격 : 1억원 (절충가능)

010-5436-5801

사찰(급)안내

- 위치 : 원주 미륵산 명당터, 경관좋음
- 대지 : 1239평, 주차 약 30대, 앞에 큰 도로, 버스정류장 약 300m, 우체국/농협/면사무소 약 도보15분거리 입니다.
- 1층 요사채, 2층 법당, 삼성각, 원주시청, 충주시청, 문막읍 약 20km
- 가액 : 6억5천만원
- 답사하실 분만 전화 요망

010-5371-556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진주시내
- 대지 : 230평/건물 : 연면적 150㎡
- 대웅전(목조) 산신각(목조신축) 주지스님 처소(신축)
- 요사채 및 종무소
- 진주시내가 한눈에 보이는 전망 좋은 곳
- 가액 : 6억원

010-3808-3852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서천군 서면 춘장대 IC 15분거리
- 대지 : 367평 건물 연면적 : 160.36㎡ 법당, 주지 스님 처소
- 바다가 보이는 전망 좋은 곳
- 가액 : 3억5천만원(협의가능)

010-5046-5788

토 굴 안 내

- 위치 : 서울 성북구 정릉 배밭골
- 재개발지, 토굴 10평
- 법당 및 화장실, 올수리
- 세탁기 냉장고 등 집기일체 양도
- 금액 문의 (성북구청 보증금 5000만원 있음)

*꼭 필요하신분만 연락 당부

010-5371-1320

사찰(급)안내

- 위치 : 서울시 세검정 (광화문까지 자동차 10분)
- 대지 84평/국유지 50평(사용가) 법당/요사채 76평
- 양도시 모든 기물포함 (불상, 불화 등)
- 가액 : 9억5천만원

010-6325-5112

부동산 모든문제(사찰)를 해결해 드립니다

못파는 부동산(사찰)을 팔아드립니다. (무료상담)
못사는 부동산(사찰)을 사드립니다. (무료상담)
(사찰 : 5천만, 9천만, 2억, 5억, 9억, 12억, 15억, 30억, 75억 매물보유)
정성 부동산문제해결연구원 원장 행정학박사 정 용

정용 원장 약력

부동산평론가 (전국최초), 부동산 중개경력 40년 / 영남대학교 부설 글로벌평생교육원 부동산경영최고위과정 책임교수 / 대구과학대학교 부동산금융학과 겸임교수(역임), 방송인 / 경일대학교 부동산지적학과 겸임교수 (역임), 영남일보객원기자(역임)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구광역시 9대 지부장, 대구광역시 7대 시의원

대구 동구 제27140-2021-00097호

정용 공인중개사무소 대표 010-2512-7777

도심 최고 중심사찰부지 안내

지금의 사찰은 도심의 최고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 대구시민 240만 인구의 최고 중심
- 지하철 1호선, 3호선 더블역세권
- 불교5대종단 內 소유 종교용지(나대지)
- 다시는 찾을 수 없는 도심속의 명당
- 종교용지 490㎡, 추가 130㎡ 매입가능
- 매매가격 : ㎡당 350만원(협의가능)

053-745-9999, 010-2512-7777

포교당(급) 안내

- 위치 : 경기 시흥시 정왕동(정왕역 차로5분)
- 주변 : 정왕동아파트 대단지, 대형마트, 대형병원 월곶, 배곧, 아파트 신도시
- 규모 : 4층 전체, 옥상 사용 엘리베이터. (총: 110평) 사용.
- 법당: 삼존불, 신중단, 산신단, 약사여래불, 영단 큰방 3개, 사무실, 창고방, 에어컨법당 2개, 각방마다
- 보증금 : 1000, 월세 110(보증금, 월세조정)
- 권리금 일체시설. (법당, 각방, 일체 집기시설) 4500만원 (바로 법회 가능)

※통화 안될때 문자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010-8599-9468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청에서 차로 10분 거리
- 대지 300평, 대웅전 요사채
- 전세 가액 : 3억원(월세 가능)

010-4561-636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거제시
- 부지 2013㎡
- 법당 약40평, 요사채 약60평, 창고 약20평
- 산세 및 풍광 좋음
- 주차장 넓음
- 매매 : 6억 2천만원

010-3466-9991

사 찰 안 내

- 천안 독립기념관IC 4km 명당터
- 대지 300평, 임야 등 총 1000여 평
- 법당(24평) 전통한옥 삼존불 호신불
- 요사채(45평) 전통한옥 황토방4
- 연못(29평) 백옥관음보살상(분수)
- 이동식 주택(6평) 전기차충전소 창고, 잔디밭, 텃밭, 조경수, 유실수 등 양쪽은 암반수 개울, 등산로 완벽한 시설을 갖춘 힐링 사찰

010-8946-752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용문산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 (양평역세권 5분거리)
- 대지 : 2종근생 300평 (현대식 건물)
- 건물 : 대웅전 30평 - 1동 / 공양간 30평 요사채 23평 2층 - 1동 / 종무소 · 객방 13평 - 1동
- 용도 : 사찰 · 사찰음식 · 명상센터 · 다원 최상입지
- 가액 : 12억원(답사 후 절충)

010-4461-3825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 승학산 등산로 입구
- 1층 공양 생활관, 2층 법당과 연결된 스님방과 화장실 부엌이 있음
- 5불 · 천불불사 · 후불금탱화 · 지장신장탱화 · 십장생조각상단 · 큰법당 종
- 골목 안에 주차장 가까운 관음사 환희요양원과 연결된 융통성있는 주차공간있음
- 토지 140㎡, 건물 146.62㎡ 1층 73.31㎡, 2층 73.31㎡
- 매매 : 2억5천만원

010-9811-4877

좋은인연 대출안내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 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지각 변동 대재앙에도 죽음을 면해 살 수 있는 육경신대법회

견성성불한 분과 도인들이 만법을 다스리는 시대가 오고 있는 것입니다. 지구촌 최대 이슈, 급변하는 천지개벽 인간개벽 종교개벽 질병개벽으로 모든 종교를 초월하는 육경신도통으로 자신도 구하고 만법을 다스리며 중생도 구하는 의통력 신통력 통솔력 자금력을 얻는 수행으로 이제부터는 선망 조상님들이 인도환생되는 시기입니다.경신일 자시와 오시에 천방부호 지부추명으로 천상입천제를 드리면 사업번창 자손창성 가정행복 건강장수 거부장자되는 육경신 대법회에 눈과 귀와 지혜 있는 분들은 따라올 겁니다.특히 금년 겨울부터는 천심신장과 십라찰녀와 저승사자들의 소두무족균과 바이러스균으로 각종 질병과 병겁으로, 귀신 잡신 빙의신 수마장 병마장으로, 육신의병은 정신의병 잡신의병 각종 고질병, 잠못자는 병 등 일체의 모든 병을 다스리는 의통력 신통력 통솔력 자금력을 얻어 만법을 다스리는 초인류 스승되소서.

태일대사의 빛으로 모신 달마도의 기적은 씨네트리 TV 방영과 유튜브 인천태일스님에 자세히 나오며, 본 달마도를 모시는 곳에는 상서로운 일들이 이루어 지는 달마도입니다.



빛으로 모신 달마도에 기가 나오므로 만사형통하는 달마도

- 입 제 일 : 2025년 12월 16일 오후 10시
- 회 향 일 : 2025년 12월 17일 오후 15시
- 전 화 : 010-9292-3110, 총무 010-9718-4449
- 입금계좌 : 곽한영 농협 029-01-167866
- 준 비 물 : 간편한 옷, 세면도구, 필기도구

인천시 부평구 대정로 34-1(3층) 용천사

천지공사 유불선 육경신 천문도통회 총본산

현대불교신문 지면광고시 무료영상 게재

NO.1 사찰 매매 정보 채널

좋은 인연 사찰 안내

사찰복덕방

www.youtube.com/@사찰복덕방

사찰복덕방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2025년 12월 10일 수요일 | 불기 2569년

접 수 문자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10-4648-8200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활 안내

1558호 | 16 | 전면광고

부드럽고 진실한 말로 남을 대하고
늘 베푸는 마음으로 살아라.



부처님 말씀 읽기 -《법구경》에서

부산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영산재 바라·작법 전승학인 모집

1. 의식 염불, 사물
(49재·천도재·점안 각행사)
2. 천수바라·오공양작법
3. 다게작법·운심게작법

• 특별반 3개월과정모집
• 사) 대한불교문화 전통불교조계종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부산영산재 (전수장학생 한시적 등록추천)
만득동 447-4 총무원 영축사 010-5511-7000

미륵암 '지평대사' (12불 수기)
99% 완치, 말기암 환자 1개월 내 치유
320년간 수기받음 / 교도소, 오지 등 전국방문 가능
즉시 영가 천도 / 불교-무교인 상담환영
집이나 땅 매매 안되는 분 성불 시켜드립니다
공항장애, 간질 등 몸이 안좋으신분 치유해드립니다
지평대사는 법문 대신 설법을 합니다
친견상담비 30분 330만원 / 완치 3000만원부터 시작
010-4804-2309

지리산 암힐링센터
동업 하실 분
관심있으신 분 연락주세요
자연치유대체요법
010-4474-8418

손도사성공론 책
꼭 읽어봐주세요



책이름 검색해보세요
010-5105-5000

해썹(HACCP) 인증업체
식품안전관리인증 HACCP 식품의약품안전처
현대해상 식품배상책임보험 3억원
국내산 암컷흑염소와 30가지의 전통원료로 소화잘되는 진액
국내산 진짜 흑염소 진액 100%
(흑염소 높은 함량38%, 정제수 49%, 전통약재 13%)





2박스 (60포)
240,000원
농업회사 (주)미성팜 택배가능
충주시 주덕읍 충청대로 2236-1 나동
043)845-5596 / 010-2136-9889

국제결혼 인연맺어 드립니다
010-9260-1672

공양주 구합니다
65세이상
한달 시주금 문의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대산로 26번지4
010-6333-1488

무료공개강좌
명리. 육효☞12.11(목) 14:00
영가 찾는 법☞12.11(목)16:00
•내 용:기초부터 실전완성(4개월)
•수강료:1개월 무료, 월 15만
•장 소:서울시 관악구 중앙길7
(서울대입구역 6번출구)
백암역리원 010-9150-2284

수맥 상담
*아파트, 전원주택, 공장, 사업장, 부모묘소(길흉감정)
*집안에 잦은 우환, 부부불화
*전화 상담 만으로도 감정 해드립니다.
*행복을 드리는 달마도(주문)
전화 부재시 상담 중이니 문자 남겨 주셔요(수맥 연구소 적광전)
010-3001-7647

광고 접수 번호 안내
국내 최대 사찰 생활 정보 안내지로 2000만 불자들에게 전달됩니다. 인터넷 뉴스사이트 '현불뉴스'에서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02-2004-8204
010-4648-8200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 점안, 살풀이, 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이조불교 재활용센터
• 대불, 소불, 동불, 탱화, 법당 제작 (수미단, 닷집, 운각)
• 법당 철거, 오래된 불서 고가 매입
*사찰 사고팝니다.
010-9177-7842

육임의 '지피지기(知彼知己)'그 놀라운 효과 – 익명성해체 – 만난(전화포함) 시간만으로 – 동일시간 여러人도(화면 '다음사람' 버튼만 누르면) – 정확도·속도성·착목도·효과성 – 보장 !
초보자용 'B버전' Aver 과 전문가용 'A버전' Bver 을 버튼 하나로 즉각즉각 동시 사용됨

육임AI 휴대폰(안드로이드·아이폰)·노트북·테블릿·PC 연동 사용·저장 기능 장착·영구 필수적

■ 상대본인 당면사 순조·역조·불성 여부 판단
순조롭게 진행될 것인가, 역조할 것인가, 안될 것인가 명시
■ 상대 본인 당면 핵심사 명시 1·2·3
■ 상대이해 판단
이익 될 人 인가, 손해 날 人 인가, 피해 줄 人 인가, 무력한 人 인가 명시
■ 상대 신분 판단
대통령(될 자) 인가, 장관(급) 인가, 차관(급) 인가 명시
당면우고사가 해소 될 人 인가, 유여한 人 인가 명시
복잡다단한 궁핍 人 인가 명시
■ 상대 사생활 판단
남녀 삼각관계(1녀2남·1남2녀), 부부동시 연정관계 여부 명시
관재 송쟁 여부, 가옥권리양도(讓倒) 여부, 근친상간관계 여부 명시
■ 상대 생업 가정 흥쇠 여부
재기力 위한 이전·이사·길방·택일 명시
■ 상대 본인 질병 판단 명시
지나갈 병인가, 고질병이 되는가 명시
■ 상대 본인 목적사 판단
승진·選擧·매매·合格·주식·求財 등 24항 答 명시
■ 상대 송사·계획·사업·고민 규모의 大·小 여부 명시
■ 귀신 침범·부정 山所탈(좌향·육친·묘지 앞 전경·뱀굴·물구덩이) 여부 명시
–정확도 검증됨 해당 사안 해소 방법 적시함
■ 전화 상담 해답 명시
■ 즉시 판단 항목 수록 명시
■ 시험·선거 합격 당선 등 24항목 성부 판단 명시
■ 출산(出産) 길일 길시 선택, 연월일시 명시
■ 상대 본인 운세(明暗 정도) 명시
■ 상대 본인 사정(전체적·구체적·적확도) 명시



한 화면 한 눈으로 판단, 화면 각 항목별 효능판단보기 ▼ 버튼 붙음

■ 친화자녀 구해(仇害) 자녀 출산 구별(띠) 명시
■ 상대 본인 주요 면담·상담·담판 시 이기는 좌석 명시
■ 상대 본인 다툼·갈등 시 유리해질 처신 방침 명시
■ 남녀 성력(性力) 성태(性態) 명시
■ 남녀 성격 일생 대개 궤적 명시
■ 남녀 출생 일별 부부관계 판단 명시
■ 재판관재 승패
국가·개인 간, 남자·여자 간, 집안 수상·수하 간 승패 명시
■ 상대 본인 운세 비교
현재 장차 – 봄 夏 가을 冬 별 진퇴 조절 명시
■ 진행사 성사 월일시 선택
진행·회피 – 어떤 월일시로 변경해야만 좋은가 명시
■ 상대 충성 배신 판단
충성할 것인가, 좌고우면 할 것인가, 배신할 것인가 명시
■ 상대 심중 판단
나를 신뢰하는가, 자기 고집을 부리겠는가, 설득해야 하는가, 관계가 없게(不成)되는가 명시
■ 상대 말의 진위 판단
진실한가, 위선인가, 거짓이 많이 섞였는가 명시
■ 난사(難事) 교섭 판단
선이후난 선난후이 교섭 불가 여부 명시
■ 가옥·장소 길좌방위 명시 및 길사·발로 연월 명시
■ 상대 본인 복장 上下로 상황 판단 명시
■ 뇌물증여 효과 여부
뇌물효과 있겠는가 안 받겠는가
■ 이전이사·호악
留–去, 좋을까 나쁠까명시 등등등

■ 정가 : 95만원 ■ 주문 : 010-7596-5146 한국육임학회
■ 입금계좌 : 농협 301 0252 7245 11 도서출판 보화천교 서울특별시 강서구 곰달래로 24길4 세림페리체 1301호

❖ 본 지면의 생활안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서정원의
불교미학산책

㉓ 남산 2

〈법화경〉의 숭고함, 이해 말고 감상해야

지난 연재에서 필자가 미학이란 전제로 동국대를 산책하는 이유를 말하기 위해 다소 개인적인 이야기를 풀어내다가 끝맺음을 짓지 못했다. 필자가 〈법화경〉을 연구한다면서 사실은 변죽만 울릴 뿐 경전의 졸가리조차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었음을 털어놨다. 그 과정에서 경전 연구를 '해석'이나 '이해'가 아니라, '감상'과 '스타일'로써 접근해야 함을 느끼게 됐고, 이는 방법론의 전환이었다. '해석'과 '이해'의 방법론과 '감상'과 '스타일'의 방법론의 대비를 보통 '주지주의(主知主義)'와 '주정주의(主情主義)'로 표현한다. 주지주의는 이성을, 주정주의는 감성을 중요시하는데, 당연히 이성의 전당인 학교에서는 주지주의적 연구방법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다만 불교학의 연구 대상인 경전은 이성적이기만 한 작품이 아니라는 점을 누가 모르겠는가. 다른 그 어떤 종교의 교주보다 냉철한 이성의 위치에 서 있는 붓다라도, 그의 논리와 말씀을 듣기 전에 32상 80종호의 시각적 아름다움에 사로잡히는 인물들을 초기경전에서 부지기수로 찾을 수 있다. 다만 이런 점을 학교의 언어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물감을 느끼고 애써 회피할 뿐이었다. 사실 이 이물감을 제거하는 작업은 학교란 제도권 학문만이 아니라 불교 내부의 해석 전통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 경장(經藏)과 율장(律藏)의 일차적 해석체계인 논장(論藏)이야말로 그런 이물감을 제거하고 이성의 이가 씹기 좋게 경장·율장을 요리해 놓은 것일 뿐이었다.

대승논서도 마찬가지다. 초기경전은 그래도 양반이지, 대승경전은 더 기가 막히는 수사와 문학적 해살이 넘치는 작품들이다. 필자가 〈법화경〉에 접근하기 위해 읽어 온 천태의 논서든 그 주변의 논서든, 뉘앙스의 차이일 뿐 논장과 그다지 다르지 않았다. 논서를 들고 경전을 읽어 가니, 당연한 이야기를 심각한 이야기처럼 꾸며 이야기하는 느낌이랄까. 혹은 구마라집이 말한 대로 누군가 번역(해석)한 경전은 이미 다 씹은 밥을 누군가에게 다시 먹이는 것이라 한 점이 와닿는달까.

아무튼 학교에서는 이미 요리가 다 된 논서들을 중심으로 한 연구들이 중심이었고, 경전 그 자체를 연구한다거나 주지주의적 태도에서 경전을 이해 혹은 해석하려는 태도가 만연했다. 이조차도 경전 자체를 연구의 주제로 삼는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았다. 이 중에서 또 하나 눈에 띄는 특징은 종교사회학적 방식이 주류이거나 시험적으로 종교심리학적 방법이 제시된 점이었다. 반면 필자는 종교란 단어가 들어가는 연구방법은 다 거부했다. 불교 외의 다른 종교, 즉 외도를 동일 선상에 두고 보려는 태도 자체를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필자는 불자로서의 정체성이 중요하지, 학자로서 알량한 자기객관적 태도야말로 자기기만에 가까운 것이라고 생각해 왔다.



집에 불이 났는데도 그 안에서 즐겁게 노는 아이들(〈법화경〉 '비유품' 화택삼계유).
사진 출처=〈법화경 서권〉(홍콩 상무인서관, 1999)

〈법화경〉 모두 붓다 될 것 강조
논리 구조·기승전결 구조 안 보여
미학으로 바라볼 때 받아들여져

이처럼 불평불만만 날로 늘어 가는 과정에서 나는 한 가지 단순한 사실을 깨달았다. 여전히 〈법화경〉을 어떻게 요리할지 레시피만 찾고 있을 뿐, 정작 원재료를 제대로 보고 있지 않다는 점이었다. 읽어야 했다. 너무도 당연한 사실이지만, 경전 자체를 읽어야만, 내가 나아갈 수 있을지, 나아갈 수 없을지를 알 수 있었다. 그때부터 다른 책은 보지 않고 〈법화경〉만 계속 읽었다. 영험담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식음을 전폐하고 전독(專讀)을 하지는 못했지만, 최대한 〈법화경〉 한 권만을 반복해서 읽고 또 읽었다. 읽을 때마다 연상되는 내용들을 차분히 생각해 보고 마음속으로 정리하며 읽어 갔다.

다른 불자들이나 연구자들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허심탄회하게 읽는 과정에서 경전이 말을 걸기 시작했다거나 다른 이해의 문이 열렸다, 경전을 보는 눈이 뜨였다 하는 경험담이 많다. 그렇다면 필자는 어땠을까. 옛날이야기 속 주인공들처럼 전독을 하지 않아서였을까. 읽고 또 읽어도 〈법화경〉은 필자에게 닫혀 있었다. 아니 그제야 〈법화경〉을 명확히 인식하게 됐다. 이 경전은 닫힌 경전이라고.

왜냐하면 이 경전이 말하고자 하는 주제는 '모든 이가 붓다가 돼라'는 '일체개성(一切皆成)'이지만, 경전 자체가 이를 논증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저 이는 약속이자 계시고, 사실상 명령이었다. '나는 붓다가 되기 싫어요'라고 해도 붓다가 될 거라고 주입식 교육을 하는 경전이 〈법화경〉이었다. 나는 이 경전의 논리 구조를 분석한다거나 문학적 기승전결의 구조를 대입한다거나, 경전의 설자인 붓다(아마도 이 경전을 써 내려갔을 익명의 비구·비구니)의 의도를 파악한다거나 이런 점을 기대했는데 그런 요소는 보이지 않았다. 그저 밥 먹기 싫다고 투정 부리는 아이를 억지로 붙잡고 끝내 밥을 다 먹이며 '육퇴(육아 퇴근)'한 부모의 모습이랄까. 지금껏 불과(佛果)를 먹기 싫다는 제자들에게 억지로 불지견(佛知見)을 확정 지어 버리고 너무 큰 가르침에 충격을 받아 말문이 막힌 제자들을 영축산에서 영원히 내려다보겠다는 경전은 순순히 밥 먹은 것이 억울하고 분해 새근새근 잠이 든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의 모습과 같았다. 이 내용에 무슨 철학이 있고 분석이 있으며 파악이 있겠는가. 그저 육아의 숭고함만이 있을 뿐이다.

그제야 집에 불이 나도 도망치지 않는 어리석은 자식들, 50년을 방황하고도 자기 자리를 못 찾는 궁자, 술에 절어 자기 옷에 친구가 보물을 달아 줬는지도 모르고 고생하는 탕자, 의사 아버지가 약이라고 지어 줬는데도 먹지 않고 버티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며 유언이라고 '제발 먹어 달라' 해야 먹는 자식들과 같은 〈법화경〉 상의 수많은 비유를 받아들이게 됐다. 이들 비유에 나타나는 터무니 없이 멍청한 인물들, 그게 바로 중생인 나이고 이들을 바라보며 그 멍청함을 홀로 감당하시는 분이 바로 붓다임을 알게 됐다. 스스로 멍청한 줄 알면 그래도 '반 개'는 된다 할까, 〈법화경〉의 한 졸가리는 분명 잡게 된 것이다.

숭고함, 이것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스타일을 감상하는 일이었다. 이 숭고함만이 〈법화경〉에 대해서 내가 사람들에게 알려야 할 사실이었다. 그래서 이런 숭고라는 개념을 다루는 방법을 찾았고 그것이 미학이었다.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그 숭고한 아름다움에 그저 경의를 표할 뿐이지 않은가. 말이 길어졌지만, 이것이 남산의 동국대를 수천 날 거닐며 얻게 된 작은 졸가리다. 남산이 필자에게 〈법화경〉의 설법지인 영축산이 되어 가는 미적 과정, 그 긴 산책의 과정을 짧게나마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었다. 다소 주제에서 많이 벗어난 이야기를 다 들어 주셔서 감사하다. 이제 우리는 다음 연재를 마지막으로 하산을 해야 한다. 다음 호에 마지막 인사를 잘 준비해 돌아오겠다.

〈동국대 박사〉

열반에 빨리 들어가게 이끄는 바퀴



법공 스님의
〈지장십륜경〉 강의

㊻ 십종유의행의 두 범주(二類十種有依行)

"계율을 지키지만 떠들기를 좋아하고 법을 아끼면서 고통과 악을 두려워하면, 지혜로운 사람은 마땅히 알아야 한다. 그가 성문승임을, 보시하기를 즐기고 생멸을 관찰하며 항상 고요히 혼자 있기를 좋아하면, 지혜로운 사람은 마땅히 알아야 한다. 그가 독각승임을. 온갖 선근을 갖추고 자비의 근본을 잘 수호하며 항상 중생을 껴잡아 이롭게 하기 좋아하면, 그를 대승이라 하느니라. … 또 선남자야, 만일 착한 왕과 그 권속 등 남녀들이 십종의 유의행 바퀴(정법에 의하여 악법을 정복함)를 성취하면 현재 몸으로 성문승의 종자를 빨리 심어 잃지 않을 것이며, 성문승의 거룩한 법의 그릇을 이루나 그것은 독각승이나 대승의 그릇은 아니니라."

함께하는 십유의행(共十有依行)

"그 십종이란 어떤 것인가?

①깨끗한 믿음을 완전히 갖춰 선악업의 과보가 있다고 믿는 것 ②부끄러움을 완전히 갖춰 나쁜 견해를 멀리 떠나는 것 ③율의에 머물러 나쁜 벗의 살생과 음주를 멀리 떠나는 것 ④인자한 마음에 편히 머물러 일체의 성냄과 괴롭힘을 멀리 떠나는 것 ⑤슬퍼하는 마음에 편히 머물러 일체 쇠약한 유정을 구제하는 것 ⑥기뻐하는 마음에 머물러 말로 짓는 네 가지 악업을 멀리 떠나는 것 ⑦버리는 마음에 머물러 일체 탐욕과 질투를 멀리 떠나는 것 ⑧바른 귀의를 갖춰 일체 길흉에 대한 망령된 집착을 떠나, 삿된 신과 외도에 귀의하지 않는 것 ⑨정진을 완전히 갖춰 견고하고 용맹하게 선법을 닦는 것 ⑩항상 고요함과 법의 뜻을 탐구하되, 기뻐하며 게으르지 않는 것이니라.

선남자야, 만일 착한 왕과 그 권속 등이 이 십종 유의행의 수행을 성취하면, 현재 몸으로 성문승의 종자를 빨리 심어 잃지 않고, 현재 몸으로 성문승이 소유한 모든 거룩한 법을 증득하여, 성문승의 거룩한 법의 그릇을 성취하느니라.

그것은 독각승이나 대승의 거룩한 법을 증득함이 아니며, 또 그 그릇을 이루는 것도 아니니라. (그러나) 선남자야, 이와 같은 십종의 유의행의 바퀴는 일체의 성문·독각·보살과 모든 부처님이 공동으로 소유한 것이니라."

함께하지 않는 십유의행(不共十有依行)

"선남자야, 또 십종의 유의행의 바퀴가 있는데, 이것은 성문과는 함께 하지 않고 오직 독각과 보살과 여래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다.

만일 착한 왕과 그 권속 등이 이 십종 유의행의 바퀴를 성취하면, 그들은 현재 몸으로 독각승의 종자를 빨리 심어 잃지 않고, 현재 몸으로 독각승이 소유한 거룩한 법을 증득하며, 독각승의 거룩한 온갖 법의 거룩한 그릇을 이루느니라.

그 십종이란 어떠한 것인가?

①청정한 몸·말·뜻의 업을 수행하는 것 ②부끄러움을 갖추어 자신을 싫어하는 것 ③5종의 취온(색·수·상·행·식)을 깊이 두려워하는 것 ④생사의 강을 건너기가 지극히 어렵다고 보는 것 ⑤항상 고요함을 즐겨 시끄러움을 떠나는 것 ⑥아란야(적정처)를 즐기고 남의 과실을 비방하지 않는 것 ⑦모든 기관을 잘 단속하여 언제나 마음이 고요한 것 ⑧연기를 잘 관찰하여 인과를 자세히 살피는 것 ⑨항상 즐겨 부지런히 선정을 닦는 것 ⑩일어나고 모이는 법[집기集起: 본 성품인 공으로 돌아갈 것을 뜻함]을 잘 제거해 없앰[寂靜]이다.

선남자야, 만일 착한 왕과 그 권속 등이 이 십종 유의행의 수행을 성취하면 현재 몸으로 독각승의 종자를 빨리 심어 독각승 소유의 거룩한 법을 증득하며, 그 그릇을 이룰 것이다.

선남자야, 이를 성문·독각의 유의행의 바퀴라 하며 모든 성문·독각은 이 바퀴를 의지하여 삼유(욕계·색계·무색계)의 큰 바다를 건너 열반의 성에 빨리 들어가느니라.

선남자야, '유의행의 바퀴'란 뜻은 어떤 것인가? 유의(有依)란 집착이 있고 내[我]가 의지하는 바가 있으며 받아들임이 있고 얽매임이 있다는 것이다.

'행(行)'이란 이른바 온(蘊)의 행, 계(界)의 행, 처(處)의 행과 얽매이고 소속된 행[유계속행有繫屬行]이다.

바퀴란 가르쳐 주고 가르쳐 경계하는 바퀴이니, 전륜왕이 타는 수레바퀴와 같고, 혹은 맨 먼저 가는 으뜸의 바퀴이니라.

이와 같은 성문과 독각은 이 바퀴를 의지하여 열반의 길을 구하느니라. 그러므로 이들은 대승의 길이 아니니라. 왜냐하면 그들은 하열한 행을 의지하기 때문에 대승의 그릇이 아니요, 자기의 온갖 행을 의지하기 때문에 대승의 그릇이 아니요, 스스로 일체의 걱정과 고통으로부터 해탈하기를 구하면서도 일체 유정의 해탈은 구하지 않고 자신만의 수행을 하기 때문에 대승의 그릇이 아니니라. … 그들은 남들이 온갖 고통 받는 것을 보고도 (자신을) 버려 구제하지 않고, 다만 자신만을 위하여 해탈을 구하기 때문에 대승의 그릇이 아니니라."

〈송림사 주지〉



윤인수 원장 연구개발

겨우살이환

재료명: 겨우살이, 느릅나무뿌리껍질, 도라지, 더덕, 모과, 천문동, 맥문동, 비파잎, 삼백초, 뽕나무뿌리껍질, 둥굴레뿌리, 무화과, 탱자, 대추, 산사나무열매, 맥아
비염이 있습니까? 술이 차십니까? 기침, 가래가 힘드십니까? 천식에 힘드십니까?

여주환

재료명: 여주, 돼지감자, 바나바잎, 민들레, 복분자, 옥수수수염, 오미자, 구기자, 천문동, 창출, 뽕나무뿌리껍질, 음나무줄기, 독활, 작약, 칡뿌리, 감초, 산사나무열매, 맥아
당뇨 있으신 분 혈당수치관리에 좋습니다. 다이어트가 필요하신 분은 꼭 드세요.

전복껍데기환[석결명 스틱]

재료명: 전복껍데기, 마리골드, 국화, 민들레, 엉겅퀴, 백작약, 다시마, 톳, 산사나무열매, 맥아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당뇨망막병증 등 눈에 문제가 생기면 석결명환으로 해결하세요.
세종대왕께서도 드셨다고 세종실록에 나와 있습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도 애주도 유독시 석결명죽을 드셨다고 방송되었습니다.

폐청소법, 치매·중풍 예방법 등 성인병에는
윤인수 원장의 경혈자극요법을 활용하세요.
기침, 가래, 기관지염, 비염, 폐렴, 기관지폐렴, 폐 화농증, 편도선염, 축농증, 천식, 불면증, 수면장애, 어지럼증, 두통, 이명(귀울림), 구안와사, 조현병, 협심증, 위염, 위경련, 변비, 어깨·관절통증, 발목관절통증, 오십견, 목이 쉬었을때, 전립선 질환, 요실금, 콩팥 위축, 방광염, 신장염, 황달, 간경화, 피부가려움증, 다이어트, 생리불순, 백내장, 각막염, 결막염, 녹내장, 황반변성, 야맹증, 원형탈모증, 삼차신경통(상지, 중지, 하지) 등

전화주시면 간략하게 설명드립니다

골담초환

재료명: 골담초분말, 쇠무릎뿌리, 황칠나무, 두충, 가시오가피, 참당귀, 울금, 덩이뿌리, 쇠비름, 독활뿌리, 개다래열매, 천마뿌리, 율무, 질경이, 음나무줄기, 왕느릅나무껍질, 엉겅퀴, 산사나무열매, 맥아
허리, 다리가 불편하십니까? 오래 걷기 힘드십니까? 계단 오르기 힘드십니까?

산수유환

재료명: 산수유, 호박씨앗, 옥수수수염, 복분자, 사상자, 토사자, 구기자, 오미자, 천궁, 우슬, 복령, 산청목, 질경이, 뽕나무뿌리껍질, 두충, 산사열매, 맥아
소변때문에 밤에 몇번씩 일어나십니까?

어성초환

재료명: 어성초, 적하수오, 자소엽, 측백나무잎, 서목태, 원지, 우슬, 천문동, 마가목열매, 복분자, 솔잎, 뽕나무뿌리껍질, 녹차잎, 창출, 구기자, 산사나무열매, 맥아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십니까?

하지·아이케어센터 | 구입문의 : 02-969-9007 / HP.010-3245-0118
농협 : 301-0234-9633-61 / 예금주 : 윤제하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 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민속죽염 ◈
가루자죽염 125g 45,000원
가루자죽염 230g 82,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50,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90,0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9,000원

◈ 2번 구운 민속죽염 ◈
◆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20,000원
250g 10,000원

※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길381-4 www.msjy.co.kr

장보배의 24번의 계절 ㉓ 대설_인제 길을 걷다



▶한줄 요약
한겨울을 상징하는 소설과 동지 사이의 대설은 농가가 일 년을 마무리하고 농한기에 들어가는 절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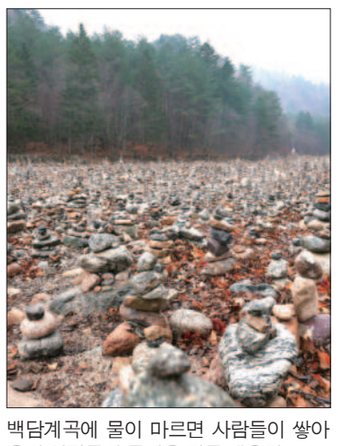
땅이 숨을 고르며 겨울이 머무는 때

눈은 하늘에서만 내리는 것이라고 누가 이야기했을까. 아니, 그럴 리 없다.

하늘을 따라 오르는 내설악 저 깊은 곳. 여름이면 흐르는 물에 안겨 보이지 않지만 겨울이면 백골 같은 진심이 드러나는 골짜기가 있다.

수천수만의 돌로 된 눈송이가 하늘을 향해 손을 뻗는 세상. 어느 겨울 하늘에서 떨어지는 눈들이 그 손을 맞잡아 주는 날, 세상은 하얀 침묵으로 고요해질 것이다. 지절대는 온갖 마음도 마침내 잠이 들고 말 터다.


강원도 인제군 북면 용대리에 자리한 천년고찰 설악산. 수심교에서 바라본 백담사 풍경이다. 대설 예보가 내린 날, 내설악의 운무가 가득하다.


백담계곡에 물이 마르면 사람들이 쌓아 올린 석탑들이 물길을 가득 채운다.


백담사 안에서 바라본 금강문과 곧게 뻗은 수심교.


만해기념관 앞에 있는 만해 한용운 스님(1879~1944)의 흉상.


봉정암과 오세암 등 암자를 지닌 내설악 대표 사찰 백담사.

백담사를 향해

강원도 인제군 북면. 내설악 깊은 곳을 지키고 선 천년고찰 백담사. 강원도를 대표하는 사찰로 명성이 높은 이곳은 그 지리적 이유로 인해 여전히 신비의 산성(山城) 같은 모습을 지닌다.

비와 눈이 많은 계절마다 한 해의 얼마간은 가차 없이 산문이 막히는 곳. 그와 함께 인적도 끊기고 마는 산중 고찰. 지금도 험난한 산길에 일반 차량은 출입이 금지되고 지정된 셔틀버스를 타야만 백담사에 다다를 수 있다.

요즘 세상에 못 갈 길이 어디 있느냐 할 수도 있지만, 막상 그 길에 오르면 생각은 달라지고 말 터다. 구불구불 똬리를 트는 설악의 가파른 산길, 깊이 들어서는 만큼 아찔해지는 고도의 낭떠러지는 버스를 가득 메운 관광객들의 우렁찬 목소리마저 긴장된 적막으로 바꾸고 마는 위력이 있다.

오직 노련한 버스 기사의 운전대만이 춤을 추듯 회전하고, 그렇게 달리다 보면 어느새 백담사 입구에 도착한 버스. 이제 몇 걸음만 옮기면 마치 다른 별의 성처럼 설악을 지키는 백담사와 마주하게 될 것이다.

세속의 땅에서 심산유곡 안에 숨겨져 있던 불도의 성지로 들어서는 길, 그 길은 하나의 다리로 이어진다. 백담사 수심교(修心橋)다.

마침내 길고 긴 다리 위에 올라선 순간, 눈앞에 펼쳐지는 것은 웅장한 회색의 소용돌이. 하지만 그것은 계곡의 물이 아니다. 끝없이 높고 낮게 이어지는 석탑의 물결. 크고 작은 돌들이 하늘을 향해 오르는 수천수만 석탑의 군무다.

대설 예고

백담사의 겨울을 본 적이 있는 이라면 누구나 쉬이 잊지 못할 풍경이 있다. 바로 백담사 앞을 가로지르는 백담 계곡, 그 물길을 가득 메운 석탑의 향연이다.

그 누가 첫 돌을 올렸는지 알 수 없지만, 이 산 깊은 골짜기를 가득 메운 숱한 석탑들은 모두 백담사를 찾았던 이들이 남긴 발자취인 셈이다.

계곡의 돌멩이를 하나둘 정성껏 쌓아 올린 무채색의 돌탑. 이는 간절한 소망의 등대 같기도 하고, 어쩌면 묘비, 또 그 자체로 유령처럼 보이기도 한다.

마침 이날은 눈이 예고됐던 날. 습기 머금은 산이 뿜어내는 운무와 땅까지 내려앉은 회색빛 하늘의 기운은 돌탑과 어우러져 비현실적인 장관을 이루었다.

언제던가. 오래전 이곳을 찾았던 어느 날, 계곡을 말 없이 바라보던 백담사의 스님이 전해주신 이야기다.

"참 신기합니다. 똑같은 저 돌탑을 보면서도 보통 사람들은 '아, 나도 얼른 가서 하나 쌓고 소원을 빌어야지!' 합니다. 그런데 스님들께서는 '아, 전부 시원하게 물에 씻겨가면 좋겠다!' 하시더라고요(웃음)."

무욕과 해탈을 기원하는 수행처. 그 앞에 무한증식하듯 솟아나는 소원의 탑은 어울릴 듯 어울리지 않는 풍경임이 틀림없었다.

"간절한 소원을 떠올리며 탑을 쌓아 보세요. 하지만 여름이면 다 쓸려 갈 겁니다."

스러질 것을 알면서도 탑을 쌓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잠시 생각에 잠긴 사이 뒤이은 스님의 말씀이 작은 위로가 되어 남는다.

"그때까지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눈은 모든 소리를 삼킨다. 하얗게. 숱한 마음들이 저마다 외쳐 대는 돌탑의 무리. 여름에는 요동치며 흐르는 계곡물이, 겨울이면 대설이 이 산을 덮는 날만이 저 소리를 잠재울 것이다.

그리고 이제 곧 그날은 다가올 터다. 12월, 21번째 절기인 대설(大雪)이 시작되었으니까.

눈이 내리면

소설과 동지 사이의 '대설'은 일 년 중 가장 눈이 많이 내린다는 절기다. 게다가 이곳은 강원도. 이미 11월 중순부터 진눈깨비가 흩날렸으니 곧이어 백색의 세상으로 바뀔 것이다.

설악산은 눈과 잘 어울리는 산이다. 극과 극은 이어진다고 했던가. '악' 소리가 날 만큼 험준해 설악산이라는 산사람들의 농담처럼, 이곳의 강한 산세와 순백의 풍경은 되려 극강의 조화를 이룬다.

대설은 다가올 동지와 함께 한겨울을 상징하는 절기. 농가에서는 일 년을 마무리하고, 완전한 농한기에 들어선 때다. 옛사람들이 전하는 대설의 모습은 '초후(初候)에는 산박쥐가 울지 않고, 중후(中候)에는 범이 새끼를 치며, 말후에는 여주가 돋아나는' 시절.

예로부터 이 무렵 내리는 눈은 '보리 이불'이라 하여 다음 해에 풍년이 들고 겨우내 따뜻할 것을 예고하는 소식으로 전해진다. 폭신한 눈에 덮인 땅이 동해(凍害)를 적게 입어 도리어 풍년을 이루는 것이다. 어디 그것이 보리농사 짓는 것만의 일일까. 모든 것이 웅크리고 기운을 아낀다는 겨울이라지만, 뭇 생명 살아 숨쉬는 산천은 그리 쉽게 잠들지만 않는다.

얼음이 송곳처럼 배기는 한겨울의 땅속에서도 끊임없이 제 심장을 두드리며 생명을 움트는 것. 새날을 부르는 목소리는 따뜻한 봄이 아닌 그때 더욱 강해지는 법이니까.

설산의 오도송

1917년 12월 3일. 대설을 며칠 앞에 두었던 그 밤. 백담사 오세암에서 좌선에 들었던 만해 한용운 스님은 자신의 오도송을 노래했다.

사나이 가는 곳이 바로 고향인 것을(男兒到處是故鄕)
나그네 인생 시름 속에 길게 헤매이네(幾人長在客愁中)
깨달음의 고함 악! 하고 외치니 삼천세계 깨지고(一聲喝破三千界)
눈 속에 붉은 복사꽃은 조각조각 흩날리네(雪裡桃花片片紅)

영하 20도를 내리꽂는 내설악이다. 살을 에는 바람이 몰아치던 그날, 39살의 청년 스님은 바람에 쓸려 물건이 툭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깨달음을 얻었다 했다. 비수처럼 박힌 깨침의 소리. 그것은 겨울바람을 타고 온 피안(彼岸)의 전령이었을까.

백담사는 그 누구보다 만해 한용운 스님으로 대표되는 사찰이다. 27살의 나이로 백담사에서 출가한 이후 〈조선불교유신론〉과 팔만대장경을 풀어 해석한 명저로 평가되는 〈불교대전〉 간행. 월간 잡지 〈유심〉을 창간하고, 백담사 오세암에서 불후의 명작 〈님의 침묵〉을 탈고해 발행한 것. 무엇보다 3·1 운동의 주체가 돼 우리 민족과 이 땅에 해방의 물꼬를 틔우기까지. 그의 삶은 늘 이 내설악 산중 고찰의 품에서 꿈틀거렸다.

일제강점기, 단 하루도 쉽지 않았을 스님의 어느 날에도 숱한 꿈과 희망은 저 석탑들처럼 피어올랐을 것이다. 스러질 것을 알면서도 끊임없이 쌓아 올린 석탑은 그 자체로 위대하다. 그리고 마침내 그 모든 것을 쓰다듬는 눈송이 내리는 날, 저 계곡도 편안히 잠이 들겠지.

그리고 내년 여름이 오기 전까지, 그 모든 소원 다 이루어지기를. 〈작가〉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의 법문 중에서 발췌하여 답변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월드오피스텔 606호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선원 ●FAX (031)470-3116



대행 스님

제 1558 호 현대불교
2025년 12월 10일(음 10월 21일) 수요일 / 불기 2569년

세세생생에 끄달리지 않는 자유인이 되십시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께서는 종교를 믿는다고 해서 그저 절에 나가서 기도나 하고, 그저 다녀가면 되려니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세세생생에 끄달리지 않는 자유인이 되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그리고 여기 스님들이 여러분을 보지 못했다고 해서 스님들 마음이 여러분 마음하고 결부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마음먹기에 달린 겁니다. 나는 여기 왔다만 가도 되고 또 왔다만 가도 스님들은 다 아실 거다. 또 일체제불께서 다 통신이 되시니까, 자기의 마음속에 통신처가 돼 있기 때문에, 자기의 마음이 왔다 갔다는 걸 아는 까닭에 일체가 다 아는 것입니다. 아셨죠? 우리가 스님들 고깃덩어리만 보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몸도 자기의 몸이 아닌 까닭에 소중히 생각해야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하구요.

오늘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될 수 있으면 여러분께서 앞으로 물리가 터지는데도 그렇고 또 공부하는 데 길을 어떻게 가야만 옳으냐 하는 것도 우리가 방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깐 때에 따라서 오늘 같은 날은 질문으로 우리 서로 토론을 합시다. 어떻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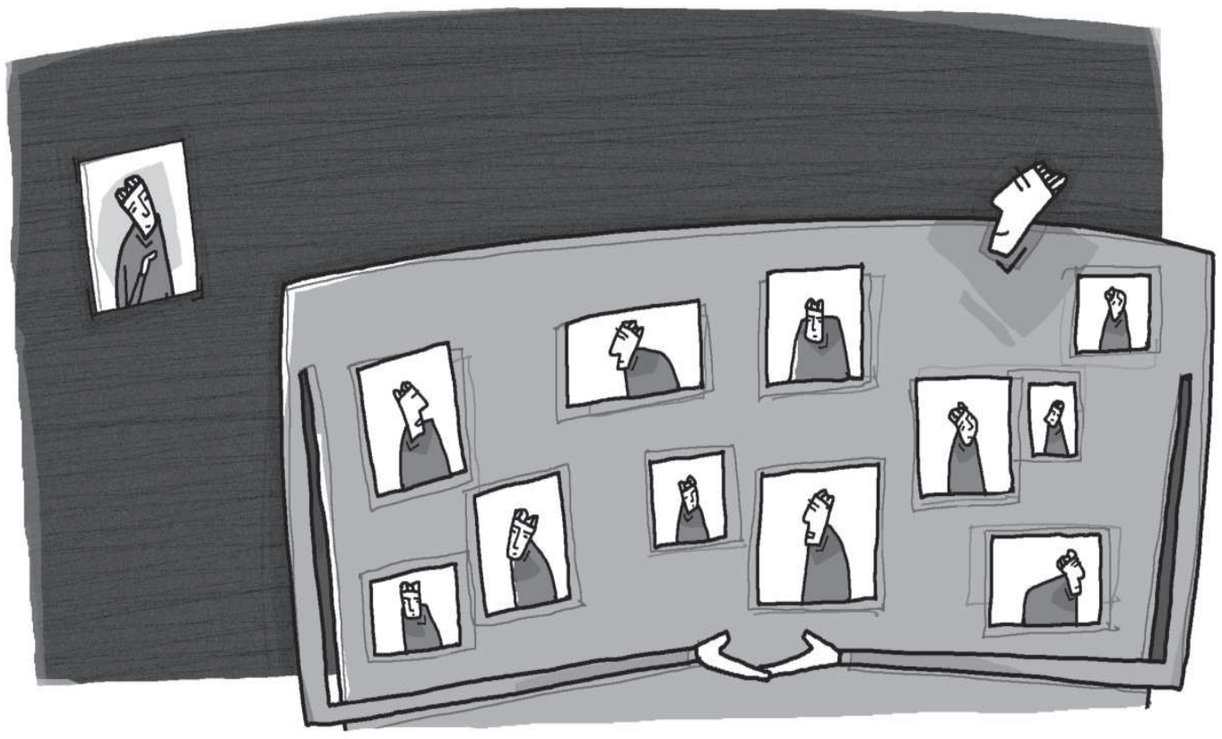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질문자1(남) 제가 얼마 전에 육만 원짜리 벌금을 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억울하고 그래서 돌려놓으려고 그래도 안 되고 그래서 막 화를 내고 그랬는데 그 건이 있은 후에 또 그보다 더 크게 십만 원짜리가 생겼어요. 그런데 또 그렇게 안 돌려놔지고 그래서 또 화를 내고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삼십만 원짜리 건이 또 터졌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렇게 억울하고 그래서 싸우고 그랬는데 그다음에는 사십오만 원짜리가 터지면서 화재가 나는 건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다시 생각을 해 보니까 '내가 왜 이렇게 번연히 알면서 이렇게 안 돌려놔지고 화를 내고 그랬을까?' 하면서 다시 반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을 다 정리하고 또 그렇게 한 사람들까지도 '아, 나를 이렇게 다시 돌아보게 돼서 참 고맙다.' 하고 다 돌려놓으니까 돈은 내게 되었는데도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졌습니다.

질문 내용은 안팎의 경계에 대해서 매일매일을 무심하고 또 상황에 따라서 그냥 응하고 그냥 먹고 마시고 그렇게 그냥 그냥 산다면 그거보다 더 큰 향상의 도리가 있는지 그것 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큰스님 우리가 못났든 잘났든 자기가 이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자기로부터 상대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내면세계에서 당신을 이끌어 가는 데는 바로 그런 점에서 그것이 채찍질을 하는 겁니다. 그러한 돈이 걸렸더라도 그냥 무심으로 돌리라는 게 아닙니다. 진짜로 믿으니까, '이것도 주인공 네가 한 거지.' 하면서 상대방을 고맙게 생각하는 거는 그 사람들이 주인공으로 인해서 댁의 심부름을 하게 됐으니까 오히려 고맙죠. 예.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오히려 고마운 겁니다. 사실이 그렇구요, 또.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삼십만 원이고 사십오만 원이고 거기까지 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꾸 그렇게 상대방을 원망하면서 대립이 되니까 알라고 거기까지 간 거죠. 그러니까 한 번에 끝날 거를 두 번 세 번까지 가게끔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이 무너질 이치가 내 앞에 닥쳤다 하더라도 진짜로 믿고 주장자가 있는 사람은 그냥 허허 웃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웃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건 왜냐?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다면, 아니 믿지 않는 거는 아닌데 믿지 않는 걸로 돼 있는 분들이 많죠. 주인공을 부르면서도 입으로만 불렀지, 진짜 자기 뿌리를 믿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도 주인공을 찾았는데 왜 그렇게 나는 안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죠. 그것은 벌써 바깥으로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뭐, 누구한테 물어보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자기 양심을 보고 그 일이 안되는 걸 생각한다면 틀림없는 걸요, 뭐.

그러니까 오래 다니고 오래 안 다니고 간에 처음 왔어도 한번 일러 준 거를 명심하고 오직 그렇게 쥐고 가는 사람, 즉, 급박한 사람, 이런 분들은 좀 쉬운 거 같아요. 우리가 병만 낫자고 이거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잘되자고만 또 이렇게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나왔다 하면 종자가 뿌리가 되고 뿌리가 바로 자기 싹을 현실로 내놓는 겁니다. 그래서 싹은 보호받는 데가 어디냐 하면 뿌리로써 보호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의 형상, 이름을 믿지 마라. 그것은 도깨비장난과 같으니라. 그러니 너의 내면의, 너의 선장을 진짜로 믿어라. 너를 이끌어 가는 선장말이야."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이 내면 공부 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공이 색이고 색이 공이라 한 뜻도 가만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형편을 보면 그게 다 나와요. 보는 것도 바람과 같이 사라지고, 듣는 것도 바람과 같이 사라지고, 걸어도 뒷발자국이 바람과 같이 사라지고, 그냥 모두 일거수일투족이 다 바람같이 사라지고, 내가 그냥 볼 뿐이고 들을 뿐이고, 갈 뿐이고 디딜 뿐이고 움죽거릴 뿐이지 앞뒤가 없어요. 떼어 놓는 대로 바람같이 사라지니깐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 가운데 어떤 놈이 걷고 있느냐는 얘깁니다. 그 가운데, 바람같이 사라지는 공한 그 가운데 어떤 놈이 지금 현실에 걷고 있느냐는 얘깁니다. 움죽거리고 있느냐, 보고 있느냐, 듣고 있느냐, 어떤 놈이 그렇게 하고 있느냐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그놈 속에, 또 외부적으로는 그렇지만 그놈 속에 선장이 있기 때문에 지금 몸이 움죽거리고 보게 되고 듣게 되고, 상대를 알게 하고 이렇게 한다. 그것을 잘 알아서 좀 실천으로 나가게끔 하십시오.

질문자1(남) 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원에 나오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처음에는 뭐, 몸이 아픈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나오게 되는데 좀 오래 다니신 분들도 물어보니까 법회에 안 나오면 좀 어딘가 서운하고 그래서 나오는 분도 있고, 또 나오면 좋으니까 또 이익이 되니깐 나온다는 분도 계시고 또 아주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어느 만큼 공부가 돼서, 또 뭐, 귀신도 보고 여러 가지를 보고 이렇게 다니는 분도 있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땐 법회에 나오는 것은 자기를 더 되돌아보고 근본을 믿도록 자기를 다지기 위해서 나오는 걸로 생각이

☞ 20면으로 계속



정가 ~~14,000~~원 → 특판가 12,600원 / 신국판 / 314쪽 (배송비 별도)

삶의 고해(苦海)를 건너가는 지혜의 가르침

세상 모든 생명들에게
바치는 대행스님의
생활속 불법이야기

삶은 苦고가 아니다(개정판)

"살아있는 탑에는
개개인의 살림살이와
보이지 않는 곳의 마음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탑은, 거꾸로 세워놓아도 바로 세워놓아도
모로 세워놓아도 뒤집어서 세워놓아도
세상을 모두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9일, 책 표지에 탑을 형상화하여 넣으라시며
탑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행 스님의 법문입니다.

대행스님 법어집 '삶은 苦가 아니다' 오디오북 출시

대행스님의 법어집인 '삶은 고가 아니다'를 오디오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전문 성우의 목소리가 아니라 대행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공부 하는
이들이 수개월간의 정성과 노력을 담아 완성한 이 오디오북을 통해
불교를 더욱 편안한 마음으로 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오디오북 소개 |

제1장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 내가 누구인지 모른대서야 00:03:13
• 누구나 부처 될 자격이 있으니 00:33:47
• 통하는 길은 오직 마음뿐 00:51:17
• 마음의 안테나를 세워라 1:26:20

제2장 누구에게나 똑같이 부여된 능력
• 생명의 에너지와 주인공 01:37:30
• 자신의 뿌리를 굳게 믿고 01:54:07

제3장 다 놓고 얻는 도리
• 놓고 가는 생활선 02:11:58
• 고정관념부터 깨라 03:03:44
• 삶은 고가 아니다 03:36:59

제4장 서로 돕고 사는 세계
• 공생 공용의 이치 04:23:15
• 생활 속의 마음 도리 05:00:41

제5장 가르침의 바른 이해
• 마음 밖에는 부처가 없다 05:43:54
• 불법의 바른 이해 06:05:10
• 실참 수행 06:49:56

제6장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07:23:00

『삶은 고苦가 아니다』는 1996년 9월에 처음 발행되어 초판 22쇄라는 기록을 남기고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한 대행스님 법어집 입니다.
2015년의 3판 개정판에 이어 2022년 4월에 개정 제4판을 내놓으며 읽기에 좀 더 편하도록 글자 크기를 키우고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여 페이지 수를 추가하였습니다.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여여하게 그냥 갈 뿐이고 볼 뿐이고 들을 뿐이다

☞ 19면에서 계속

되는데 그렇게 그냥 나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큰스님 여러분이 어떠한 생각을 하고 나오시든지 나오시는 건 다 나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있어도 천차만별의 차원의 마음이 있으니깐요. 앞서 오는 사람이 있고 뒤에 오는 사람이 있고 또 그 뒤에 오는 사람이 있듯이. 지금 그렇게 처사가 말한 거와 같이 나를 다지기 위해서, 나를 알기 위해서, 세상을 알기 위해서 저 사람을 따라야 되겠다 하는 걸로 나오는 겁니다. 나오면 우리가 믿는 거는 자기 선장을 믿으면서 헤아릴 때, 귀신이 보인다 이런 것도 '나를 알게 하기 위해서니 감사하구나.' 그러고 놔야지, 그걸 귀신 보이는 걸로 즐거워서 그리로 쫓아간다면 아니 되는 겁니다.

이 모두가, 일거수일투족이 이 마음 안에 안 든 게 없습니다. 그래서 보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보배라고 하죠. 그 속에는 젖은 거 마른 거, 더러운 거 깨끗한 거, 또는 좋은 거 나쁜 거, 높은 거 얕은 거,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다 그 안에 들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그 자체를 내가 잘 생각해서 컴퓨터에 입력이 되게 해야지요. 그냥 그렇다고 근심 걱정을 해 가면서 생각하라는 게 아닙니다. 살아나가다 보면 인의롭고 여유 있고 지혜롭고 자비한 그 마음으로써 남을 해롭게 안 하고 또는 가정에서도 부드럽고 남의 탓을 안 하고 이렇게 해 나간다면 저절로 컴퓨터에 입력이 돼서 위로는 상세계에 통신이 되고 아래로는 중생들과 같이 또 첨보해서 통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걸 이 세상에 어느 누구든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없다, 듣지 않는 사람이 없다, 새도 듣고 하다못해 개구리도 듣고 있다' 이 소립니다. 내가 마음먹은 거를 그렇게 듣고 있는 이가, 듣고 있는 자들이 이 허공에 꽉 차 있기 때문에 바로 남이 모른다고 하는 그 생각이 어리석다 이겁니다. 그러니만큼 그 어리석은 마음으로 하면 모두가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체 만물이 다 듣는다고 생각을 하고 모두 이롭게 생각을 내준다면, 모든 거를 다 말입니다. 이롭게 생각을 내 준다면 처사가 어떠한 문제로 인해서 죽어갈 때도 다 이롭게 살려 준다 이거야. 그게 '한 손'입니다. 한마음, 한 손, 한 발로 딛는다 이런 소리가 나옵니다.

그러니깐 정신세계의 모든 거를 모른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듣지 않고 보지 못하고 이런다고 해서 내 마음을 가둬 두고 이렇게 어리석은 마음을 갖는다면 세세생생을 깨어나지 못할 겁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이런 말을 하는지 나도 모르고 하고 있네요. 허허허. 그러니까 묻는 본인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물으셨으니까 또 나도 여러분을 위해서 대답한 겁니다.

질문자1(남) 감사합니다.

큰스님 이제는 경계가 그렇게 오면 절대적으로 속지 마시고 그 안에 다시 그렇게 편안하게 놓으신다면 그 곱이 되돌아올 겁니다.

질문자2(남) 이렇게 질문을 드리게 돼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큰스님 가르침 중에 보면, 알고 몰라야지 모르고 모른다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기에 거기에 비추어서 문득 생각이 난 게 있어서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살생의 인연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이 공부를 만나기 전에는 여러 생물들을 제가 살생을 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려서부터 물가에 살았기 때문에 수많은 고기를 잡았고 재미로도 잡았습니다. 그리고 뱀을 한 마리 죽이면 죄를 하나 없앨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들로 산으로 쫓아다니면서 수많은 뱀을 때려잡아 죽이기도 했는데 그 아픈 몸을 이끌고 굴에 들어가는 모습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됩니다. 또한 수많은 개구리를 잡았고 그걸 팔기도 했고 밟아서 죽는 소리가 좋아서 죽이기도 했고 수많은 개구리를 잡아다가 큰 통에다 끓여서 닭에게 던져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을 만나고서 생각을 해 보니 많이 미안하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주인공, 그 인연들이 다 좋은 인연으로 되게 하는 것도 주인공 너밖에 없다.' 하고 물러서지 않는 믿음으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또한 큰스님 가르침 중에는 여러 인연에 따라서 이야기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뱀과 두꺼비 이야기 또는 두더지 또 여러 가지 비유로다 말씀해 주신 이야기를 생각하면 지금도 길에 다니다가 들짐승이 길바닥에 죽어 있으면 '주인공, 둘이 아니잖아. 저 인연도 좋은 인연으로 만들 수 있는 건 주인공 너밖에 없어.' 이렇게 관을 하다 보니까 작은 생물들도 이제는 옛날같이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물러서지 않는 믿음으로 가고 있다는. 확신이 서는데 삼세가 일심이고 일심조차 없는 까닭이라면 그런 인연들에 대한 그 생각이 일어났을 적에 어떻게 생각을 바꿔 놔야 되는지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고자 합니다.

큰스님 죄가 안 되고 되고는 그 생각 차원에 따라서 죄가 되고 죄가 안 되고, 갈림길에 있습니다. 그 공한 도리를 스스로서 알면서 우리가 둘 아닌 도리를 행한다면 첫째, 아무렇게나 남의 생명을 죽이지 않고…. 죽이지 않으면 안 되게끔 앞에 닥친 거, 부모를 보양을 한다든가 윗사람을 보양을 한다든가 뭐를 위해서 산 목숨을 죽이게 됐을 때, 이 공부 하는 사람들은 거기에다가 모든 거를 일임하고 그 생각을 깊이 측은하게 생각하면서 자기 몸과 그 모습과, 즉 죽이는 모습 그것과 그 마음과 내 마음이 둘 아니게 자기한테로 하나로 돌려놓으면 그냥 이거는 인간으로서 천도가 될 것이며 또 그 생명은, 모습은 약이 될 것입니다. 그래 양면으로 쓰게 되죠.

그런데 그거를 영 모르고 잡아 죽이거나 그런다면 하나하나가 더 부풀어 올라서 크게 죄업을 짓게 되는 거죠. 아무것도 모르고 남의 생명을 마구 죽였으니까. 그런데 백정이 수십 년을 백정 노릇을 하다가 이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서 깨달아서 백정 노릇을 그대로 하면서도 그 많은 생명을 죽였는데, 몇십 년 전부터 죽였는데 지금 현실에 그냥 하나로 돼서 모두가 천도가 됐답니다. 그러니까 죄가 싹 없어진 거죠. 한생각에, 한 깨달음에 그냥 멀고 가까운 게 없이 그냥 다 한순간에 해치워 버린 거죠.

그렇게 해치워 버린 것과 같이 댁도 그렇게 했어도 지금 둘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남의 생명도 귀중한 걸 알고, 내 생명이 귀중하면 남의 생명도 귀중하다는 걸 아시고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가신다면 그거는 다 무효가 됩니다. 왜 무효가 되느냐? 지금 알았으니깐 말입니다. 지금 알았으니까 그 영령은 댁의 마음속에 전부 하나로 들어가도 두드러지지 않고 꺼내도 줄지 않으니까 연방 들어갔다가 천도가 되고 연방 들어가서 천도가 되고 이러는 까닭에 그것이 모두가 없어진다는 얘깁니다.

난리가 나서 싸우는데 군사가 이쪽은 백 명밖에는 안 되고 저쪽에는 천 명이 되더랍니다. 그런데 이쪽의 군사가 적으니까 그 군사를 이끄는 대장이 간곡히 청했습니다. '주인공, 당신만이 꼭 이기게 할 수 있고 이 군사들을 용기 있고 의욕 있게 살게 해 주고 우리나라의 국민들을 모두 구해 줄 수 있습니다. 내 형제요, 바로 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고 그냥 아주 간절하게 청했습니다. 청했더니 저쪽 군사의 마음들이 전부 해이해져서 자기네들끼리 싸우게 됐더랍니다. 왜냐하면 자기 군사가 적군인 줄 알고, 그렇게 잘못 보여 가지곤 자기 군사들을 자기네들이 다 죽여 버리더랍니다. 이러한 이치도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묘법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히 급할 때 그것도 응용하는 거지 급하지 않으면 그런 거를 부처님께서는 쓰지 않습니다. 누구를 이기고 죽이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쪽에 천 명을 자기네들끼리 다 죽이고 한 다섯 명 남았는데 그때서야 눈이 떠지고 귀가 뜨이고 아, 우리 국민들도 잘 살아야 되고 저걸 보니깐 아주,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신이라고 했습니다. '신이 없는 게 아니구나. 이거는 바로 사람들이 됨됨이에 의해서 나라도 섬기게 되는구나.' 하면서 뉘우쳐서 그 나라를 잘 섬겼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체들이 지금 생명 하나를 봐도 그게 내 생명과 같아서 애절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그런 됨됨이를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내가 죽여도 천도가 된다 이러고 무조건 죽이는 게 아닙니다. 나한테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리만큼 왔을 때에 마다하지 말아라 한 거지, 강제로 일부러 때려죽이러 다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온 거, 내가 꼭 해야 될 거를 마다하지 말라 이런 겁니다. 그건 왜? 벌써 천도가 되기 위해서 자기는 뛰어든 건데, 벌써 알고 뛰어든 건데 그거를 마다하면, 오히려 마다한다면 알고 뛰어들었던 그 영령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간혹 이런 수가 있죠. 이웃집에 죽은 분이 말 좀 해 달라고, 스님한테 가서 내 말만 해 달라고 꿈에 나타나서 간청을 하더랍니다. 그런 예도 있듯이. 그래서 그 소리를 말만 들어도 자기는 되겠으니까 한 거거든요. 여러분이 와서 간청해서만이 우리가 그걸 알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신계의 모든 이치를 모르시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이러고 가시니깐 답답한 게 많으시겠지만 그렇게 안 해 놓으면 무질서하게, 이 도리를 모르는 사람은 도끼 들고 갈 겁니다, 아마. '전자에, 과거에 너 이랬지?' 하고…. 하하, 그냥 무조건 알게만 해놓으면. 이 수행을 거쳐서 그거를 알아야 오히려 더 불쌍하게 생각하고 더 어루만져 줄 겁니다, 원수라도. 그러나 그걸 알지 못하는데 그거를 알게 하고, 보게 하고, 듣게 하고 이렇게 한다면 그냥 도끼 들고 가고, 저놈 내가 죽여야 한다고 하고, 하하하, 아마도 복수를 하려고 애쓸 겁니다.

그러니깐 그런 사람한테 열쇠를 맡기는 게 아니라 높고 낮음을 다 둘로 보지 않는 그러한 사람, 모두 일체를 다 놓고 사는 사람, 여여하게 그냥 놓고 그냥 갈 뿐이고 들을 뿐이고 볼 뿐이다 하는 그런 사람 앞에 바로 열쇠를 맡기게 되고, 바로 그런 걸 알게 하고 보게 하고 듣게 하고 하게 하고, 이런 겁니다. (다음 호에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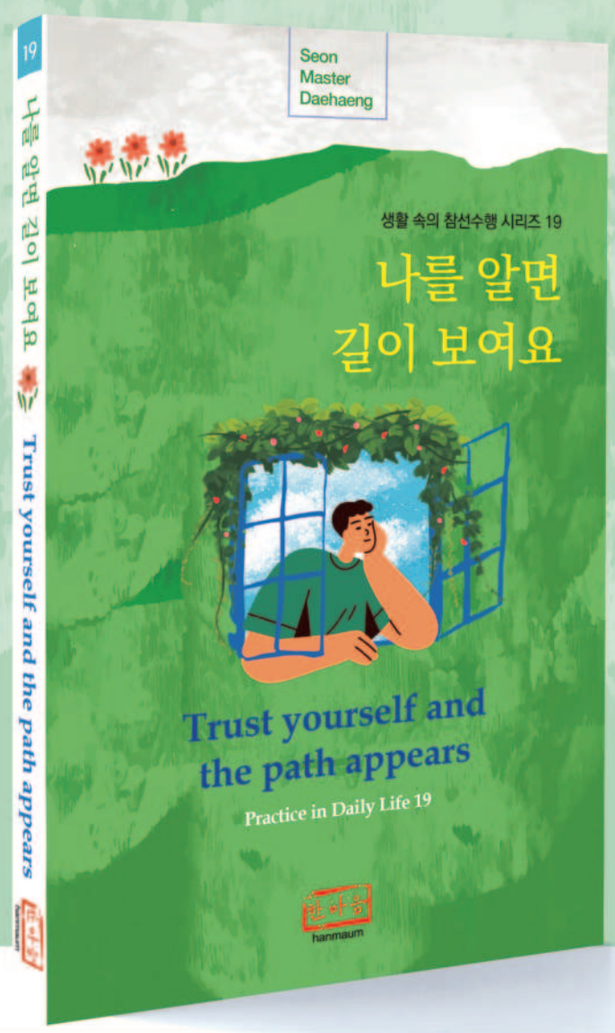
> 어떤 경계가 오더라도 절대적으로 속지 마시고
> 내 안에 다시 편안하게 놓으신다면
> 그 곱이 되돌아올 것입니다.

※위 법문은 대행 선사 법문집 《허공을 걷는 길》 중 1996년 12월 15일 정기법회 법문의 일부를 정리한 것입니다.

생활 속의 참선수행 시리즈 19 (한영합본)

나를 알면 길이 보여요

대행큰스님 법문



자기 삶을
당당하고 패기있게
이끌고 싶다면

답은 언제나 한 곳에
'내 마음 속'

인터넷 유명 서점과 대형 서점에서 절찬리 판매중! 값 9,000원



강소연의
수행 다이어리
㉓ 붓다 수행법의 요체

정+혜, 그리고 불방일
〈定〉 〈慧〉

이 여정의 시작은 '고통스러워서'였다. 처음에는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서였고 나중에는 고통을 초래하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의문 때문이었다. 고통은 저절로 '나는 무엇인가?'라는 화두에 걸리게 했고, 그렇게 수행의 여정은 시작됐다. 내가 없으면 고통도 없다. 나로부터의 '분리'를 가르쳐 준 것이 사마타 수행이고 나를 '해체'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것이 위빠사나 수행이다.

'나'를 사라지게 하는 붓다의 수행법

일견 '몸과 의식, 그리고 무의식'으로 구성되는 듯 보이는 나를 들여다보면, 그것은 '오온의 끊임없는 파도'다. 있는 데 없고 없는 데 있다. 끊임없는 변화[무상無常]만이 현존한다. 사마타[①정定]의 핵심은 '집중의 유지'이고 위빠사나[②혜慧]의 핵심은 '알아차림의 유지'이다. 그 효과의 요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정定]: (하나의 대상에 대한) 집중을 통해 마음의 절대적 고요함을 획득한다. 집중의 순도와 길이에 따라 고요함의 안정성과 깊이도 달라진다. 계속적인 집중은 나로부터의 궁극의 분리를 일으키고 청정한 바탕의식과 하나가 되게 한다. → [②혜慧]: 그러면 그 청정한 자리에서 반야가 발사되어 오온(현상의 조건적 생멸)을 꿰뚫는다. 그래서 '현존에서 무상을 보고 무아를 깨닫는다'라는 것이 불교 수행의 요체다. 그 결과는 오온, 즉 '나'라는 착각을 만드는 고질적인 구조로부터의 자유고 지극한 평화다.

무명 업식의 끈질긴 파도

하지만 우리가 만들어 놓은 무명의 업식과 업력은 참으로 끈질겨서 갈애와 집착은 계속해서 덩어리를 만들고 또 나를 만든다. 모든 것은 인과(因果)의 소용돌이라고 붓다께서 말씀하셨다. 이에 착안해 '인'을 만들지 않으면 '과'는 없다. '무명'의 인은 결국 '생(生)'이란 과를 낳고 '생'은 '노병사(老病死)'를 낳는다. 서로 만나서 활성화되는 '몸과 의식(물질과 마음)'이 연(緣)이 다해 헤어져 사라져 버리는 것을 우리는 죽음이라 한다.

하지만 죽는다고 해서 무명의 업식은 사라지지 않는다. "참된 성품 등지옵고 무명 속에 뛰어들어/ 나고 죽는 물결 따라 빛과 소리 물


무명 업을 더 이상 만들지 않는 방법! 지금의 마음에 알아차림을 둔다[정념正念]. ©강소연

들이고/ 심술궂고 욕심내어 온갖 번뇌 쌓았으며/ 보고 듣고 맛봄으로 한량없는 죄를 지어/ 잘못된 길 갈팡질팡 생사고해 헤매면서/ 나와 남을 집착하고 그른 길만 찾아다녀/ 여러 생에 지은 업장 크고 작은 많은 허물 … 사대육신(四大六身) 흩어지고 업식(業識)만을 가져가니/ 돌고 도는 생사윤회 자기 업을 따르오니/ 무명 업장 밝히시면 무거운 짐 모두 벗고, 삼악도를 뛰어넘어 극락세계 가오리다(발원문 중 발췌)" 발원문에서도 언급하듯, 사대육신이 흩어진다 해도 업식만이 남고 이를 근저로 다시 윤회가 시작된다.

무명 업식이라는 존재의 근저까지 청정업으로 맑혀 버리지 않는 한 윤회는 계속된다. (육신이) 죽어도 죽지 않는 업식은 '탐진치의 갈애와 집착[집성제]'이라는 점화가 가해지면서, 가히 압도적으로 거머쥐려는 에너지를 생성한다. 결국 사대(四大: 지수화풍地水火風)를 만드는 물질기반(정자+난자)을 거머쥐어 다시 꿈틀거리는 삶[생生]으로 연결된다.

정념(正念), 알아차림 계속하기

존재의 근저가 되는 무명 업장을 밝히면 윤회를 벗어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무명 업장을 밝힐 수가 있을까? 이미 조건 지어져서 만들어진 이 생명체가 활동하는 한, 그 조건 지어짐에 따라 업장은 계속해서 만들어질 뿐이다.

업행은 일상생활 속에서 부지불식간에 돌아가고, 다시 그림자를 업식으로 남긴다. 더 이상 업이 안 쌓이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 붓다께서 말씀하신 정념, 즉 알아차림밖에는 답이 없다. 팔정도 중의 하나인 정념은 '바를 정(正)' 자에 '생각할 염(念)' 자를 쓴다. 여기서 '염' 자를 보면, '지금 금(今)' 자에 '마음 심(心)' 자가 결합된 형태다. 즉, 지금의 마음에 불성(佛性)을 밝히는 것을 말한다.

염불(念佛)도 같은 의미이다. 지금의 마음[염念]에 부처의 마음인 불성(또는 각성: 스스로가 스스로를 알아차리는 마음)을 밝힌다는 뜻이다. 입으로 독송하는 염불의 뜻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지금 '각성(부처의 마음)을 둔다', 즉 '알아차림을 한다'라는 뜻이다.

〈중앙승가대 교수〉

동네약국 사용설명서
㉓ 상처 에탄올로 소독하지 마세요

정상 피부세포·재생 세포까지 손상

"그, 뭐지? 소독하는 거, 에탄올 좀 주이소."

"에탄올이요? 큰 것도 작은 것도 있고, 거즈에 묻어 있는 낱개 포장된 제품도 있어요. 어떤 용도예요? 알맞은 제품 알려 드릴게요."

"아, 다쳐서 소독 좀 하려고."

"에탄올은 상처 소독하면 안 돼요!"

"영화에선 전쟁 때 위스키로 소독하던데?"

"지금 전쟁 났어요? 그땐 그 외에 소독할 게 없으니까 그랬죠. 화장실에서 휴지 없을 때 양말로 똥 닦는 거랑 똑같은 거라니까요."

예전 전쟁터에서는 의료용 소독약 같은 의료장비가 부족했기에 급한 대로 상처에 위스키를 부어 나쁜 세균의 감염을 막았다. 죽지 않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해보는 마지막 수단이랄까? 위스키는 약 40%의 알코올로 살균력이 그리 높지 않을뿐더러 상처 부위에 부었을 때 극심한 통증과 함께 정상 조직의 손상을 가져올 수 있어 오히려 상처의 회복을 늦출 수도 있다.

흔히 소독용으로 사용하는 에탄올도 마찬가지다. 코로나19 팬데믹 때 손 소독제로 알려져 품귀현상까지 빚었던 소독용 에탄올은 70~85% 순도로 병원균을 대부분 소독할 수 있다.

하지만 에탄올은 개봉된 상처에 직접 바르면 안 된다. 에탄올은 세포의 단백질을 변성시키고 지질을 녹여 세균을 죽이는 강한 소독제다. 상처 부위에 바르면 정상적인 피부세포와 상처의 재생을 돕는 세포까지 손상을 일으켜 오히려 치료가 늦어진다. 특히 소독용으로 사용하는 고농도의 알코올 제품은 세포막을 파괴하기 때문에 상처 회복을 방해한다.

그리고 알코올은 아프다. 에탄올은 상처 부위의 신경을 자극해 따가운 통증을 유발한다. 에탄올은 피부 표면이나 기구를 소독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지, 개봉된 상처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상처가 생겼을 때는 세척·소독·보호·관리 등 네 단계를 기억하고 실천하자.

1. 세척

넘어지거나 베여서 다쳤을 때는 상처를 깨끗하게 세척하는 것이 우선이다. 먼저 손부터 깨끗이 씻고 멸균 생리식염수로 상처에 묻은 이물질을 제거해야 한다. 멸균 생리식염수를 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흐르는 깨끗한 물로 상처를 씻어 내도 좋다. 상처 내부 오염이 심해 세척이 잘 안 된다면 다소 고통스럽겠지만 멸균 거즈로 이물질을 깨끗이 닦아 내야 한다. 세균을 제대로 제거하지 못한 채 드레싱을 꼼꼼히 해 버리면 세균에게 따뜻하고 안락한 보금자리를 제공해 주는 꼴이 돼 버린다.

2. 소독

이제 상처를 소독할 차례다. 무난하게 사용

상처는 식염수 · 물로 깨끗이 씻어야
상처 종류 따라 전용 소독약 사용
크기 · 진물 여부로 거즈 · 밴드 등 추천

할 소독약으로는 흔히 '빨간약'으로 알고 있는 포비돈 요오드와 투명한 클로르헥시딘액을 추천한다. 포비돈은 살균 범위가 가장 넓지만, 피부 자극이 강한 편이기에 상처 부위에 통증이 있을 수 있고 반복 사용 시 갈색으로 상처가 착색될 우려가 있다. 요오드 성분으로 인해 갑상선 기능 이상이 생길 수 있으므로 이를 장기간 사용하는 것은 그다지 추천하지 않는다. 반면 클로르헥시딘액은 살균 범위가 넓고 자극이 약한 편이며 장기간 사용했을 때 가장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다. 수술 부위 소독을 한동안 해야 하거나 유·소아가 안전하게 사용하려는 경우에 추천한다. 정리하면 상처 초기에 강한 소독 효과를 원한다면 포비돈 요오드를 사용하고, 이후 장기간 상처를 관리할 경우는 클로르헥시딘액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이외에도 여러 상처 전용 소독약도 있으니 상처 종류에 맞는 소독약을 약국에서 추천받으면 된다.

참고로 과산화수소도 상처 소독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흰 거품은 세균이 죽는 몸부림이 아닌, 과산화수소가 산소와 만나 반응하는 것뿐이며 이 역시 정상적인 조직 세포까지 파괴해 상처 회복을 늦춰 흉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3. 보호 및 관리

소독 이후에는 상처가 덧나지 않도록 외부자극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멸균 거즈나 밴드, 혹은 습윤밴드로 상처를 덮어 줘야 한다. 상처의 크기와 진물의 유무에 따라 적합한 제품을 선택해 드레싱을 해 주면 되는데, 상처 발생 초기에는 하루 1~2회 정도 드레싱을 교체해 주는 것이 좋다. 상처가 물에 젖거나 진물 같은 이물질이 드레싱 밖으로 새어 나올 때는 드레싱을 즉시 교체해 줘야 한다. 상처가 부어오르고 통증이 더 심해지거나 고름이 생기고 열이 난다면 세균 감염이 생겼을 수 있으므로 즉시 병원을 방문해 의료진의 처치를 받아야 한다.

〈삼국지연의〉를 보면 화타가 독화살에 맞은 관우의 팔을 수술하는 장면이 있다. 화타가 관우 팔의 살을 가르고 뼈를 깎아 독을 씻어 내야 한다고 하자, 관우는 웃으며 손님을 불러 술을 대접하며 바둑판을 펴고 그에게 수술을 맡긴다. 에탄올이 소독 효과가 있었다면 화타 정도 되는 인물은 술을 상처에 부어가며 수술을 하지 않았을까? 그러지 않고 술을 마시기만 했다는 것은 술로 소독을 하는 것보다는 심리적으로 고통을 덜어 주기만을 기대했기 때문일 것이다. 술은 상처에 붓는 것이 아니다. 그저 한 잔 마시며 마음을 달래는 데 쓰는 것이다.



임종섭
울산희망약국 대표약사

"세상에 단 하나뿐인 특별한 이야기, 바로 당신의 삶입니다"

삶은 스쳐 가는 순간들의 연속이지만, 그 안에는 잊혀서는 안 될 소중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법보신문은 스님과 불자들의 수행 여정, 지혜의 말씀, 사찰의 역사와 전통을 한 권의 책으로 담아냅니다.
당신의 삶은 누군가에게 울림이 되고, 또 다른 이에게 길이 됩니다. 기록되지 않은 기억은 사라지지만, 글로 남긴 이야기는 세대를 넘어 살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스님과 불자들의 삶은 현대 불교사의 소중하고 생생한 기록입니다.
법보신문은 깊은 존경과 정성으로 당신의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그것이 잊히지 않고, 누군가의 마음에 깊이 머물도록. 지금, 당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세요. 당신의 삶이 곧 가장 빛나는 가르침입니다.

법보신문 다르마기록문화연구소

- 스님과 불자를 잘 아는 전문 기획사
- 불교 이해가 깊은 전문 필진 확보
- 기획부터 책자 제작까지 원스톱 시스템
- 종이·전자출판 올인원(all in one) 서비스
- 고객 수요와 주문에 맞춘 제작 시스템



법보신문 다르마기록문화연구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 1501호 | 문의 ☎ 070-4707-4965

전법 일기

병원에서 배운 부모님의 사랑

불교에서는 태어나고 늙고 병들며 죽는 일을 인생의 네 가지 괴로움, 즉 '사고(四苦)'라고 표현한다. 이 네 가지 고통은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 이 중 병(病)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예고 없이 찾아오는 불청객처럼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한다. 아무리 큰 권력과 재산, 명예를 지녔다 해도 병의 고통은 피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병은 아픈 사람 당사자뿐만 아니라 부모, 형제, 그리고 주위에 인연을 맺고 있는 모든 이들을 고통스럽게 한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면서 노환으로 고통받는 어르신들과 중병으로 병원에 입원해 자비의 손길을 기다리는 환자들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연화원은 20여 년 전부터 불교 전문 자원봉사자 양성을 목적으로 호스피스와 간병인 교육을 실시해 왔으며, 서울대병원 호스피스 병동에서 봉사하고 서울시 북부병원에 불교 법당을 설립해 활동하고 있다.

나는 북부병원 법당에서 환자들과 함께 법회를 하며 '어머니의 마음' 노래를 먼저 부른 후에 사홍서원과 산회가를 합송한다. 이 시간은 환자뿐 아니라 간병인과 봉사자들에게도, 부모님 은혜를 되새기는 소중한 순간이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나이나 상황을 초월해 언제나 지극하며 그 은혜는 몸을 바쳐도 다 갚을 수 없는 깊은 사랑이다. 나는 병실을 방문해 쾌유 기도를 드리면서, 그 같은 부모님의 자식 사랑을 새삼 깨닫게 됐다. 심한 노환으로 휠체어에 의지해 힘들게 생활하는 어르신들과 생애가 얼마 남지 않은 호스피스 병동의 환자분들도 자신의 쾌유보다는 오로지 자식의 건강과 사업성취를 발원하시는 모습을 종종 마주했기 때문이다. "내 한 몸 부서져 저승에 가더라도 자식만큼은 행복하게 살게 해 달라"며, 움직이기 힘든 손으로 내 손을 잡고 부탁하는 간절한 마음에서 태산 같은 부모님의 사랑에 감동했다.

우리는 부처님오신날에는 절에 갈 수 없는 환자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병원 로비에 봉축 관불단을 일주일 동안 설치해 왔다. 환자들은 하루에도 여러 차례 부처님께 참배하고 아기 부처님을 목욕시키며 마음의 평온을 느낀다며 감사해했다. 이들에게는 부처님오신날의 봉축은 물론, 신앙의 기억을 되살리고 불심을 회상하며 마음을 안정시키는 기회가 됐다. 관불단을 꽃으로 장엄할 때도 환자들은 오랫동안 대화하고 싶은 마음에 곁을 떠나지 않았다. 크리스마스트리가 세워진 것처럼, 부처님오신날의 관불단은 환자들에게 특별한 위로가 된 것이다.

부처님께서도 지금 건강하다고 병들고 아플 때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인생의 참뜻을 모르는 것이라고 하셨다. 〈선생경〉에서는 "병자를 간호할 때 은혜를 내세우지 말고, 회복하면 기뻐하되 과보를 바라지 말며 불행히 세상을 떠나면 친지와 가족을 위로하라"는 가르침이 있다.

이제 우리는 부모님의 희생과 사랑으로 오늘 내가 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한다. 날마다 보은하는 마음으로 나의 부모님뿐 아니라 우리 곁의 어르신들도 내 부모님처럼 모시는 따뜻한 불자의 마음이 세상을 밝히는 가장 큰 힘이 될 것이다.



해성 스님 사회복지법인 연화원 이사장



김권태의 **요즘 학교는** ㉒ 공존이라는 감각 ②

공동체 위해 '공정'에서 '공존'으로

지난해 대학을 다니다 그만둔 학생이 10만 명을 넘었다고 한다. 이는 4년제 대학 신입생의 3분의 1로, 학생들이 더 상위권의 대학으로 옮겨 갔기 때문이다. 심지어 서울대생들도 열등감에 차 있다고 하는데, 그건 의대에 못 갔기 때문이라고 한다.

더 '웃픈(웃기면서도 슬픈)' 것은 지방의대 학생들은 수도권 의대에 가지 못한 열등감에, 인기과 레지던트에 합격하지 못한 의사들은 인기과에 못 간 열등감에, 이후 전문의 자격을 취득해도 강남에서 개원의가 되지 못하면 열등감에 빠진다고 한다. 이처럼 능력주의는 사람들을 끝없는 비교 지옥에 빠뜨리며 열등감과 패배주의로 몰아넣는다.

능력주의는 개인의 능력과 성과에 따라 사회적 지위와 권력, 재화의 획득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이념이자 시스템이다. 따라서 사람들은 '능력' 있는 자로 인정받기 위해 끊임없이 '경쟁'을 하고, 이 경쟁은 가장 '공정'한 것이 돼야 한다. 그리고 겉으로 선명하게 드러난 이 공정을 최고선으로 삼기에 우리는 공정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한다.

능력주의를 내면화한 우리들은 자기도 모르는 새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자기보다 덜 노력한 사람으로 여긴다. 한편으론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과 비교하며 열패감에 빠진다.

이때 공정이라는 근사한 방패는 자기 열등감을 숨기는 데 안성맞춤이다. 그렇게 안전한 방패 뒤에 숨어 어떤 기준에 못 미친 사람들에게 '맘충', '기레기', '지잡대' 등 조롱과 혐오의 말들을 거리낌 없이 쏟아낸다. 능력주의는 또 불평등이라는 누적된 사회 모순을 개인의 노력 부족 탓으로 여기므로, 누가 시키지 않아도 강박적으로 자기 계발에 매달리며 스스로를 소진하게 한다. 모두가 번아웃에 빠진 이유다.

성과 최우선 하는 경쟁 능력주의
시스템 효율 위해 인간성 유보
사회 신뢰 위해 공존 목적 필요

경쟁은 동일한 조건에서 누가 더 자격이 있나 능력만을 따지기에 그 결과에 대해 납득할 만한 절차적 정당성을 가진다. 따라서 경쟁을 통해 뽑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공정하다는 사회적 합의를 얻을 수 있다. 뭐든 경쟁을 붙이면 최소 비용으로 가장 생산성 높은 효율을 얻을 수 있고, 또 경쟁해야만 개인이 더 열심히 준비하고 성장할 동기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얼핏 그럴듯해 보이는 이 능력주의는 인간을 시스템의 한 부품으로 여기고 시스템의 효율성을 위해 인간성을 유보하도록 한다. 효율성과 이윤 극대화가 우선이기에, 제품을 보다 '더 싸고, 더 많이, 더 빠르게' 생산하는 것이 선의 가치에 서고, 그 과정에서 부품 취급받는 인간은 인간다운 가치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효율성과 이윤 극대화를 저해하는 일이 된다. '무엇이 옳고 그른가?'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더 효율적인가?'란 질문이 내재화된 사회는 목적지도 없이 그저 빠른 속도로만 경쟁하는 살벌한 고속도로와 같다.

앞으로 우리는 공정이란 말이 나올 때마다 공존으로 바꿔 읽으며 하나의 감각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럼 '공정'을 목적으로 할 때 부당하다고 느꼈던 일들이 '공존'을 목적으로 할 때는 공기처럼 이 사회의 신뢰를 위해 꼭 필요한 일임을 알 수 있다. 앞서 말한 '세금을 내는 일도, 약자를 위해 의자를 내어 주는 일도, 내 일을 제쳐 두고 물에 빠진 사람을 돕는 일도' 이런저런 공정성을 따지기 전에 공존을 위해 꼭 필요한 공동체의 약속이자 의무임을 깨달을 수 있다. 이때 능력주의는 필요악이 아닌, 세상에 '기여함'을 따지는 다른 차원의 능력주의가 되고, 남을 이기는 경쟁은 자기만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의미로 그 차원을 달리할 것이다.

〈동국대사범대학부속중학교 교사〉

기자칼럼

자제공덕회의 성공비결은?

최근 현대불교신문 '대만불교 교육연수' 중 자제공덕회 신디엔 자제정사당 기념관을 찾았을 때 일이다. 24년 동안 자제공덕회에서 봉사하고 있다는 류쥔안 슈퍼바이저를 만나 그의 불교 인연과 활동 계기를 들을 수 있었다.

어린 시절부터 미국에서 자란 그는 종교에 무심했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스님을 만나면서 삶이 바뀌게 됐다. 그 스님은 무너져 가는 성당을 다시 지어 주고, 자연재해로 파손된 이슬람 사원도 복구하며 종교의 경계를 넘어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 움직이던 수행자였다.

그는 몸소 자비를 실천하는 스님의 모습을 보며 자연스럽게 불교에 귀의했다. '세상은 다 함께 살아간다'는 확신이 생긴 것도 그때였다. 이후 술과 담배를 멀리하고, 일상에서 남을 배려하며 모범이 되고자 노력했다. 그렇게 24년 동안 그는 이웃의 행복을 위해 궂은일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의 변화된 생활 지켜보던 가족들도 불자는 아니지만, 점차 그를 지지하고 응원했다고 한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 지금의 자제공덕회를 만들었다. 대만에서는 자제공덕회 유니폼을 입은 이들만 봐도 '좋은 일 하는 사람들'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았다고 한다. 거창한 홍보보다 먼저 움직이는 한 사람의 마음이 만든 결과다.

자제공덕회는 1966년, 돈이 없어 제때 치료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이웃을 보고 증엄 스님이 설립했다. 당시 30여 명의 주부가 반찬값을 아껴 하루 5전씩 모아 활동기금을 마련했는데, 그 작은 실천이 전세계 68개국에 지부를 두고 회원 1500여 만명이 활동하는 지금의 성장을 이끌었다.

한국불교에서도 신도 수 확대와 포교 방안은 늘 중요한 과제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점은 때로는 거대한 계획보다 부처님 가르침을 자기 삶에서 분명하게 드러내는 실천이 더 강한 파급력을 갖는다는 것이다.

불교를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은 '많은 사람'이 아니라 '변화된 한 사람'에서 시작될지도 모른다.



김내영 편집국 기자

현밀 스님의 **뭉밀이 佛스타툰**





반려동물 장례로 불성 존중을

현불논단



성제 박준석 정사
위덕대 불교문화학과 교수

반려동물 1500만 시대, 애견 장묘와 탄소 다이아몬드 논란이 뜨겁다. 어떤 이는 "동물에게 무슨 장례냐", "상업화 아니냐"고 말하지만, 불교의 심층 교학-특히 유식과 밀교-의 관점에서 보면 이 논의는 단순한 호불호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을 바라보는 마음의 구조를 어떻게 다시 세울 것인가라는 더 근본적 물음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

불교는 인간과 동물을 본질적으로 나누지 않는다. 〈대승기신론〉이 밝히듯 모든 중생은 여래장을 품고 태어나며, 생멸과 진여가 뒤섞인 법계의 흐름 속에서 함께 살아간다. 반려동물과의 이별을 의례로 정돈하는 일은 과잉된 감정이 아니라, 함께 맺은 인연을 연기의 관점에서 정갈하게 마무리하는 행위라 할 수 있다.

유식학은 생명을 제8 아뢰야식의 상속으로 본다. 함께 지낸 기억, 손길, 정서적 교감은 그대로 업연이 되어 서로의 마음 깊은 곳에 새겨진다. 따라서 장묘 절차는 흩어진 감정과 업의 흔적을 차분히 수습하는 시간이 된다.

최근 관심을 모으는 탄소 다이아몬드는 이러한 유식적 구조를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유골 속 탄소가 보석으로 응결되는 과정은 생멸의 흔적이 하나의 표상(表相)으로 다시 태어나는 일이다. 유식에서 표상은 대상을 '어떻게 기억하느냐'에 관한 마음의 작용이므로, 탄소 다이아몬드는 집착의 산물이 아니라 인연을 한 점에 응축한 상징물로 이해할 수 있다.

반려동물 마지막 정중히 돌보기
불성 존중 태도 공덕으로 이어져
연기·자비·회향 삶에 새기게 해

밀교에서 보면 이 상징성은 더욱 선명하다. 육대 중 '지(地)'의 요소가 압축돼 새로운 상으로 드러나는 과정은, 속된 물질이 청정한 형상으로 전환되는 체·상·용의 회통에 가깝다. 사리란 돌덩이가 아니라 마음을 일으키는 매개였듯, 다이아몬드 역시 현대적 사리로 읽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밀교는 모든 존재가 부처의 성품을 지니며, 그 성품이 각기 다른 상(相)으로 드러난다고 본다. 따라서 반려동물의 마지막을 정중하게 돌보는 일은 그 존재 안에 깃든 불성(佛性)을 존중하는 태도이며, 그러한 마음가짐은 공덕으로 이어진다. 이별의 순간을 성스럽게 다루는 문화는 인간만의 장례를 넘어서 모든 중생을 법계의 동반자로 인정하는 윤리로 연결된다.

이러한 장묘문화가 집착이 아니라 감사의 회향이 될 때, 말나식의 '내 것'이라는 집착이 풀리고 평등지(平等智)가 열리게 된다. 몸·말·뜻이 함께 작용하는 삼밀(三密)의 행위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그 정성은 곧 자비의 실천이 된다.

결국 반려동물 장묘와 탄소 다이아몬드는 불교의 근본정신과 배치되지 않는다. 오히려 현대 사회에서 연기·자비·회향을 삶에 새기는 새로운 형태의 문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반려동물은 그저 '집안 동물'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길러 온 작은 스승이다. 그 인연을 정중히 보내는 일은 곧 우리의 마음을 단련하는 수행이다.

모든 생명은 법계의 한 점이다. 반려동물을 성숙하게 보내는 문화가 자리 잡을수록 우리의 마음도 함께 깊어지고, 인연도 청정해질 것이다. 이 시대의 장묘문화가 자비의 문명으로 이어지길 발원해 본다.

오구라 수집품 환수와 남북불교 공조

세간과 출세간



이상근
(재)문화유산회복재단 이사장

푸른 뱀 해의 마지막 달이다. 올해는 역사적으로 을사늑약 체결 120년, 광복 80년, 일본과의 국교정상화 조약을 맺으면서 문화재협정을 체결한 지 60주년이 되는 해이다. 120년 전, 우리나라는 일제에 의해 나라의 외교권을 빼앗기고 40년간 강제병합이라는 아픈 역사를 겪었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은 세계 10위의 강소국가로 문화적 영향력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문화적 영향력의 확산 배경에는 유산이 있다. 일례로 한국은 유네스코 유산 등재순위로 종합 10위다. 자연, 문화, 복합 유산을 포함한 세계유산은 22위이지만 기록유산은 4위로 아시아에서 으뜸이다. 중국, 일본, 인도 등 더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국가도 우리의 기록유산을 따라오지 못한다. 또한 한류의 바탕이 되는 인류 무형유산도 등재순위 4위이다. 자고로 흥과 끼, 멋과 맛을 아는 민족으로 불리던 우리 문화예술은 유네스코 가입국 206개국(준회원국 12개국 포함) 중 당당히 4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우리는 여전히 문화유산 피해국이다. 약 25만 점이 국외에 있고, 상당수는 불법 반출당했다. 1945년 광복 이후 1만3천여 점을 환수했고 이 중 6건이 국보로 지정됐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남북공조를 통해 환수한 유산 2건이 국보로 지정됐다는 것이다. 국보 지정 문화유산 6건은 1965년 일본과의 문화재협정으로 2점, 재일동포 김대현 선생의 기증 1건, 양인기 기상청장의 환수 1점, 그리고 2005년 야스쿠니 신사에서 환수한 북관대첩비(2006년 북으로 돌아가 국보로 지정)와 2006년 도쿄대에서 반환받은 〈조선왕조실록〉 47책이다. 북관대첩비는 1970년대부터 한국 정부가 반환을 요구했으나, '북한의 것이니 통일되면 돌려주겠다'는 일본 측의 주장에 환수를 위해 남북이 공동합의를 했고, 결국 일본은 약탈한 지 100년 만에 반환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06년 〈조선왕조실록〉의 환수도 남북이 공조했고 2011년 환수해 보물로 지정된 〈조선왕실의궤〉의 환수도 남북공조가 위력을 발휘했다.

유네스코 유산 등재순위 10위에도
문화유산 약 25만 점 국외에 반출
국내외 정세 맞게 환수 방안 세워야

주목할 점은 남북공조의 핵심역할을 불교계가 했다는 점이다. 북관대첩비, 〈조선왕조실록〉, 〈조선왕실의궤〉의 환수에는 북측의 조선불교도연맹과 남측의 대한불교조계종을 비롯한 불교종단이 역할을 수행했다. 이러한 결실 배경에는 2000년 6월 15일 남북공동선언 이후 해빙기를 맞이한 남북관계에 영향을 받은 바 크지만, 불교계는 민족정체성 회복과 평화 실현을 위해 정부 선언 이전부터 북측과의 교류를 진행돼 왔다. 환수 성과를 바탕으로 남북불교계 공조는 일본 오쿠라 호텔에 있는 석탑 2점과 도쿄국립박물관에 있는 오구라 수집품으로 이어졌다. 당시 조선불교도연맹은 환수를 위한 권한을 필자 등에게 위임한 바 있다.

이재명 정부는 북측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여러 경로로 활로를 찾고 있다. 평화만이 공존을 위한 유일한 해결책이기에 더욱 그렇다. 필자는 최근 새롭게 출범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관계자를 만나 오구라 수집품의 환수를 위해 남북공조 사례를 말하고 협력을 요청했다. 북측의 오구라 수집품 환수 의지를 재확인하기 위해 북과 관계가 있는 국가의 협력이 중요하다. 또한 불교계는 그동안 쌓은 성과를 바탕으로 변화하는 국내외 정세에 맞게 지혜를 모으고 방안을 세워야 한다.

社 說

'종교활동 3%'의 경고음

한국리서치의 '2025 종교인식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2018년 첫 조사 이후 종교별 종교인구 비율은 큰 변화 없이 유지돼 불교(16%)는 개신교(20%)에 이어 두 번째를 기록했다.

문제는 종교 활동 빈도다. 종교가 있는 사람의 37%는 매주 종교 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나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는데, 여기서 불교는 3%에 그쳤다. 개신교 63%, 천주교 34%에 비하면 극히 일부에 불과한 수치다. 또 '한 달에 한 번 미만'이 43%로 가장 많았고, '전혀 참여하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도 24%였다.

한국리서치는 예배 중심의 개신교·천주교와 달리 불교는 개인 수행의 비중이 높아 '종교 활동'의 개념이 다르게 인식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이 같은 해석이 현 상황을 온전히 설명해 주지는 못한다. 수행 중심의 전통은 소중한 자산이지만, 그것이 신행의 공동체성 부재, 종교단체의 책임성 약화, 젊은 세대와의 단절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최근 젊은 세대들은 불교의 강점으로 '강요하지 않음'을 꼽는다. 자율성과 유연함을 중시하는 MZ세대의 특징이 불교에 대한 호감으로 이어진 것이다. 하지만 종교는 호감만으로 전승될 수 없다.

이제 불교계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사찰이 신행 공동체가 되도록 운영 방식을 전환해야 한다. 불교가 다시 '찾아오고 머무는 수행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불교계 전체의 근본적 성찰과 실천이 절실하다.

폐사지 발굴조사 활성화 기대한다

폐사지는 불교문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문화유산이다. 하지만 상당수는 방치되거나 개발 위협에 놓여 있다.

실제 전국에서 확인되는 폐사지는 5738곳이지만 이중 국가 지정 사적으로 지정된 곳은 40여 곳 정도로, 이는 전국 사지의 0.7%에 불과하다.

이처럼 폐사지는 보존의 필요성이 높은 문화유산이지만 예상외로 국가기관과 지자체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폐사지의 전체적인 사격과 매장 유구들의 가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발굴조사가 필요하다. 하지만 발굴 가능한 시기는 정해져 있고, 발굴이 본격화 되기까지 기초조사 등도 필요해 시간과 인력, 자금이 많이 소요된다.

12월 3일 불교문화유산연구소와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의 업무협약은 폐사지 발굴조사의 새 장을 열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지하물리탐사(GPR) 기술을 폐사지 조사에 활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GPR은 지하로 레이더파를 방출해 지하 구조를 파악하는 비파괴 조사 기법으로 최근 문화유산 조사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국립문화유산연구원도 "지하물리탐사가 가장 잘 반응하는 매질이 바로 석재로 폐사지 조사에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밝힌 만큼 향후 폐사지 발굴에서 새로운 성과를 보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새로운 첨단기술이 조사 현장에 적용되는 만큼 폐사지 보존·활용도 함께 활성화되길 바란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 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스님 대표 겸 편집인 : 한명우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기사제보 (02)2004-8257
광고문의 (02)2004-8204
구독문의 (02)2004-8212
인터넷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대구경북지사 : 010-4152-4376
충 청 지 사 : 010-8341-0560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강 원 지 사 : 010-7339-8688
경기남부지사 : 010-8825-4367
경기북부지사 : 010-5323-0834
구독료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종 단 공 고

대한불교대승종

종도 모집 안내

대한불교 대승종은 1988년 도암선사께서 창종하였으며 (사)한국불교 종단협의회 회원종단으로 총본산은 서울 종남산 흥도사이며 제6세 종정예하 법경 스님과 제14대 총무원장 일봉스님을 중심으로 전국 350여의 사찰과 750여명의 승려및 전법사들이 포교와 수행에 매진하고 있는 대승불교의 대표 종단입니다.

이에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衆生)의 대승불교 정신을 계승하고 중생교화에 뜻을 함께 할 도반을 모집합니다.

문의 : 010-5165-0108 교육원장 진산

불기 2569년(2025) 12월 10일

대한불교대승종 교육원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종도 모집 안내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은 1988년 일붕 서경보 스님을 개조로 서울 일붕선원에서 창종된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재단법인으로서 일붕선교종은 국태안민과 남북 평화통일 기원 만등불사, 국군장병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 및 지원사업, 종도단합 및 국운 융창기원법회 등 각종 법회와 사회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함께 전할 종도를 모집합니다. 02-991-8175

불기 2569년(2025) 12월 10일

일붕선교종 총무원장 혜일 스님

대한불교삼론종

종도 모집 안내

대한불교삼론종은 고구려 삼론종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제6세 종정 혜승 스님과 제10대 총무원장 해불 스님을 중심으로 2023년 삼론불교대학을 개교하고 전법 포교에 나설 승단 양성에 역주하고 있으며, 중국 삼론종 발원지 및 사찰들과 결연을 맺고 자비실천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전법 포교에 함께 나설 종도를 모집합니다.

불기 2569년(2025) 12월 10일

대한불교삼론종 총무원장 남륜 스님

사)여래불교조계종

종도 모집 안내

사단법인 여래불교조계종은 시대가 요구하는 올바른 불교 모습을 정립하고자 공익법인 여래불교조계종을 창종하고 활발한 활동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불법홍포에 앞장설 전국 종도스님을 모집하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인천지역 상주하시는 종무원장 스님과 종도 스님들을 모집합니다.

010-6219-4757, 010-5385-3658

불기 2569년(2025) 12월 10일

여래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덕평 스님

장인의 손길, 복을 담는 그릇

100% 핸드메이드 연꽃 복전함



대형 (66cm×56cm×56cm) ⇒ **2,600,000원**
중형 (56cm×46cm×46cm) ⇒ **2,300,000원**
소형 (45cm 출시예정) ⇒ **1,900,000원**

청정한 연꽃의 기운과 복을 모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박지문(博地門)' 글씨 양각 새김



돈 꺼내는 도구

- **오동나무 원목** – 고급스러운 질감, 내구성 뛰어남
- **우레탄 금분 칠** – 오래도록 변색 없이 유지
- **복전함 & 박지문 양각** – 복을 모으고 지키는 의미의 상징
- **비밀 출금 구조** – 외부에서 절대 열 수 없음, 구입자에게만 안내
- **전용 출금 도구 제공** – 사용 편의성과 안전성 제공



복 전 함
설치사례

부산 관음사



주문은 마하몰! 1688-9099 / (02)732-1520 인터넷 주문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